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 연구

arts change the world

공연 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진단 연구

2015.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 진단 연구

2015년 12월 인쇄
2015년 12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20-350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3
홈페이지 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 진단 연구

2015. 12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 진단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주관 기관 :
(사)한국문화경제학회

연구책임자 :
이흥재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 |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연 구 원 :
정상철 (한국문화경제학회 이사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김인설 (한국문화경제학회 이사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신혜선 (한국문화경제학회 이사 |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방문연구자)
안지언 (성균관대학교 예술학협동 박사수료)
정지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수료)

목 차

연구 요약 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방법 37

1. 연구목적 및 구성 37

2. 연구설계 및 방법 39

제2장 사업체계 심층분석

제1절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개념과 목적 45

1. 개념과 사업목표 45

2. 사업의 제도적 변천 및 거버넌스 변화 53

제2절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현황 69

1. 사업규모 및 지원 현황 69

2. 지원심사 기준 및 지표 84

제3절 국내 유사 프로그램 사례 비교 분석 93

1. 공공기관 유사 사례 93

2. 민간단체 유사 사례 97

3. 유사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01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04

제3장 해외 유사사례 연구

제1절 연구개요 111

1. 사례선정기준과 조사방법 111

2. 선정개요 112

제2절 미국 유사사례 114

1. Art works 114

2. Creation Fund 119

3. The Next Link Project 122

제3절 영국 유사사례 125

1. Grants for the Arts and Carnival 125

2. The Oxford Samuel Beckett Theater Trsut Award 129
제4절 캐나다 유사사례 133
1. Production Project Grants in Dance 133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37

제4장 양적연구: 사업효과성 진단
제1절 효과성의 개념 141
제2절 설문조사 개요 144
1. 설문조사 개요 144
2. 설문조사 설계 145
3. 수혜단체 현황 147
제3절 사업 지원효과 152
1. 지원단계별 사업지원 효과 152
2. 사업지원 계기 및 동기 158
3. 장르별 사업 지원효과 161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73

제5장 질적연구: 사업효과성 진단
제1절 정성적 진단연구의 설계와 방법 177
1. 연구개요와 조사방법 177
2. 대상 선정 및 자료의 수집 179
3. 면접조사 질문내용 181
4. 면접조사 분석방법 183
제2절 수혜단체 정성연구 분석결과 185
1. 수혜단체 면접조사 참여자 185
2. 연구결과 분석 요약 186
3. 연구결과 분석 내용 188
제3절 이해관계자 정성연구 분석결과 210
1. 이해관계자 면접조사 참여자 210
2. 연구결과 분석 요약 211

3. 연구결과 분석 내용 212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24
1. 소결 224
2. 시사점 226

제6장 확대운영 및 개선방안
1. 지원 관행의 개선 231
2. 목표 우선순위와 적정 재원규모 파악 232
3. 창작성 제고 방안 233
4. 작품 우수성 제고 방안 235
5. 협업시스템 장려 236
6. 단체의 경쟁력향상 기여 방안 237
7. 심의평가제도 개선 238
8. 생태계발전 전략화 241
9. 사업목적에 부합한 세부전략 242
10. 위원회의 활성자 역할 강화 244
11. 단기적 개선 사항 246

부 록 249

참고문헌 261

표 목 차

<표 2-1> 창작산실 장르별 사업목적 47
<표 2-2> 창작산실 장르별 심의기준 49
<표 2-3> 창작산실사업의 주관기관 및 지원대상분야 변천 55
<표 2-4> 2008-2009년 창작팩토리 선정작 지원금액 60
<표 2-5> 창작팩토리 초기 사업운영내용 61
<표 2-6> 2008-2013년 창작산실사업(전 창작팩토리) 추진내역 64
<표 2-7> 2015년 창작산실 단계 및 장르별 지원내용 69
<표 2-8> 창작산실 장르별 지원규모: 연극 76
<표 2-9> 창작산실 장르별 지원규모: 무용 76
<표 2-10> 창작산실 장르별 지원규모: 오페라 77
<표 2-11> 창작산실 장르별 지원규모: 음악 77
<표 2-12> 창작산실 장르별 지원규모: 뮤지컬 78
<표 2-13> 2014-2015 장르별·사업단계별 선정작: 무용 79
<표 2-14> 2014-2015 장르별·사업단계별 선정작: 연극 80
<표 2-15> 2014-2015 장르별·사업단계별 선정작: 오페라 81
<표 2-16> 2014-2015 장르별·사업단계별 선정작: 음악 82
<표 2-17> 2014-2015 장르별·사업단계별 선정작: 뮤지컬 83
<표 2-18> 창작산실사업 장르별·사업단계별 심의절차 및 세부평가내용: 연극 85
<표 2-19> 창작산실사업 장르별·사업단계별 심의절차 및 세부평가내용: 무용 86
<표 2-20> 창작산실사업 장르별·사업단계별 심의절차 및 세부평가내용: 오페라 87
<표 2-21> 창작산실사업 장르별·사업단계별 심의절차 및 세부평가내용: 음악 88
<표 2-22> 창작산실사업 장르별·사업단계별 심의절차 및 세부평가내용: 뮤지컬 89
<표 2-23> 오작교 프로젝트 1차년도 평가 프로세스 91
<표 2-24> 오작교 프로젝트 1차년도 평가지표 92
<표 2-25> 오작교 프로젝트 1차년도 평가등급 92
<표 2-26> 유망예술지원사업의 분야별 지원내용 94
<표 2-27> 2013년도 유망예술지원사업의 지원규모 95
<표 2-28> 유망예술가지원 사업의 분야별 심의기준 96
<표 2-29> CJ azit 분야별 심의과정 99
<표 2-30> CJ azit의 개별 프로그램 지원내용 100

<표 3-1> ACE 2015-2018 문화예술지원계획 125
<표 3-2> 캐나다예술위원회(CCA)의 전략적 방향(2008-2016) 133

<표 4-1> 연도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 선정 공연작품 모집단 현황 146
<표 4-2> 장르별 설문 공연 단체 수 147
<표 4-3> 설문 공연단체의 일반 현황 148
<표 4-4> 지원단계사업 지원받은 작품 수 150
<표 4-5> 지원단계별 지원금액과 충당비중 151
<표 4-6> 우수작품재공연/제작지원 사업 효과 및 실익 - 1순위, 1+2순위 153
<표 4-7> 시범공연/대본공모지원 사업 효과 및 실익 - 1순위+2순위 154
<표 4-8> 우수작품제작/재공연지원 사업 이후 효과극대화 의견 156
<표 4-9> 지원 사업 이후 국내외 공연 실시이력 및 계획 157
<표 4-10> 우수작품제작/재공연지원 사업 이후 공연계획 단계/시점 158
<표 4-11>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에 지원 동기 159
<표 4-12>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재원배분 161
<표 4-13>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과 그 외 사업 성과차이 162
<표 4-14>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 전후 공연단체 운영실적 평가 163
<표 4-15>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우수 성과 요인 164
<표 4-16>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비 우수 성과 요인 165
<표 4-17>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을 통한 효과 - 1+2순위] 166
<표 4-18>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167
<표 4-19>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 168
<표 4-20> 최근 3년간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외 공공지원사업 혜택 유무 169
<표 4-21> 최근 3년간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외 공공지원사업명 169
<표 4-22>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장점 170
<표 4-23>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단점 171

<표 5-1> 정성적 효과연구 참여대상 분류체계 (N= 28) 180
<표 5-2> 정성적 진단연구 반구조화 질문체계 (수혜단체용) 182
<표 5-3> 정성적 진단연구 반구조화 질문체계 (이해관계자용) 182
<표 5-4> 수혜단체 정성연구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N= 21) 185
<표 5-5> 수혜단체(공연예술 창작산실)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N=21) 187
<표 5-6> 이해단체 정성연구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N= 7) 210
<표 5-7> 이해단체(공연예술 창작산실)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N=7) 212

그 림 목 차

[그림 1-1]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진단 연구의 주요내용구성	38
[그림 1-2]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진단 연구체계도	41
[그림 2-1]	창작산실 주요 개념 및 가치	50
[그림 2-2]	사업 초기 '창작팩토리 프로세스' 구상	56
[그림 2-3]	우수작품 제작지원과 레파토리화를 위한 공동제작 구조	59
[그림 2-4]	2010 창작팩토리 사업 운영체계	62
[그림 2-5]	2011-2012 창작팩토리 사업 운영체계	63
[그림 2-6]	창작산실사업 추진 절차	67
[그림 2-7]	오페라산실 심의과정 및 내용	90
[그림 2-8]	창작산실 주요 개념 및 가치	106
[그림 4-1]	우수작품재공연/제작지원 사업 효과 및 실익 - 1순위+2순위 포함	152
[그림 4-2]	시범공연/대본공모지원 사업 효과 및 실익 - 1순위+2순위	154
[그림 4-3]	음악분야 지원에 따른 사업 효과 및 실익 - 1순위+2순위	155
[그림 4-4]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지원동기 - 1+2순위	159
[그림 4-5]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을 통한 효과 - 1+2순위]	166
[그림 5-1]	정성적 진단 연구 체계도	177
[그림 5-2]	정성적 진단연구 분석모형	184
[그림 5-3]	장르별 주요 효과 그림	225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동 법에 따라 운영하는 공공기금(사업성 기금)으로서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은 2008년 “새 정부예술정책”의 4가지 방향 중,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를 모체로 “창작팩토리”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13년 3월 “공연예술 창작산실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은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 제작의 전 과정을 경쟁을 통해 단계별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대표 공연 레퍼토리를 육성하여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의욕 고취와 경쟁력 향상을 높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함
- 선정 분야는 연극, 뮤지컬, 무용, 오페라, 음악으로 대본공모지원, 시범공연지원, 우수작품제작지원, 우수작품재공연지원의 단계를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공연예술 창작 지원을 지향함. 공연단체는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설계에 의거, 선정된 작품의 규모와 발전가능성에 따라 단계별 심의를 통해 제작비용을 지원받음
- 현재까지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체계적 진단을 위한 객관적·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목표 달성 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었음. 이에 동 연구를 통하여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당초 기대효과 달성여부를 검증하여 총체적 진단을 통해 정책사업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창작산실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력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업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사안이 시급하게 요구

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총체적 진단을 위해 사업운영 체계 및 효과성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독자적이고 체계화된 창작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함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운영체계 전반의 심층진단을 통해 연구결과의 활용도 증대 및 향후 유사사업 진단 분석에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
- 장르별 사업 확대 추진 시 기존 문제점 보완 및 현장의 정책 수요가 반영된 사업 설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제안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과거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
- 국내외 유사정책 사례 연구 보고서 및 선행연구 조사
- 공연예술단체지원과 관련된 이론적 접근 및 선행연구 고찰

□ 양적연구

설문지 구조 및 내용

- 설문지의 내용은 사업의 구조가 동일한 연극/무용/오페라/뮤지컬은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고 음악은 별도 설문지 사용함. 음악의 경우, 전속작곡가에 대한 부분을 설문에 추가함
- 본 조사의 목적이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의 효과와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설문구조로 설문함(부록의 설문지 참조)

1 일반 현황 2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 현황 3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 계기 및 동기 4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효과 5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 위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한 설문항 외에 실태조사에 대한 문항을 추가 우수제작지원과 재공연지원을 받은 공연단체에 한해서 지원 이후의 작품 공연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함.
- 장르별 설문 표본 모집단 현황: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이 실시 운영된 2008-2015년간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공연단체 중 연락처가 확보된 176개 단체를 표본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음.

□ 질적연구

- 조사방법: 반구조화 질문지를 통한 초점집단면접 (FGI)
- 조사 대상 및 횟수: 수혜단체 및 이해관계자 / 총 8회 진행(회당 4~5명)
  ① 장르별 우수작품 제작지원 단체(4회), 재공연단체(1회)
  ※ 해당장르: 연극, 뮤지컬, 무용, 오페라+음악
  ② 공연비평가, 평론가, 심의위원 (1회)
  ③ 작품유통관련 기획자 집단 (1회)
  ④ 예술위원회 업무담당자 (1회)
- 조사 시기: 9월 ~ 10월
- 조사내용
  ① 지원 동기 및 배경, 기대한 효과
  ② 각 연구 참여자 관점에서의 사업의 효과 및 성과
- 수혜 단체 내부의 변화
- 수혜 단체 외부의 변화

① 각 연구 참여자 관점에서의 사업의 의미 및 사후 유지 필요성(중요성)
② 타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과 동 사업의 차별성 (장점 및 단점)
③ 사업 프로세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2장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 체계 심층분석

제1절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개념과 목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 사업'(이하 창작산실사업)은 다음 세 가지를 주요목적으로 함: 1) 공연예술분야 우수 창작작품 발굴, 2) 해당 분야의 창작의욕 고취와 경쟁력 향상, 3) 해당 분야의 대표 공연 레퍼토리 육성.

- 사업지원방식은 참여 작품 간의 단계별 경쟁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창작작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초로 함.
- 창작과정의 초기부터 완성작품의 유통까지, 창작의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함으로 창작자에게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시킴.
- 지원의 범위를 작품창작 전 과정으로 포괄하는 것은 예술가로 하여금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공연 레퍼토리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 창작산실사업의 전체 사업목표 외에도 오페라와 음악, 뮤지컬[1] 분야의 경우에는 각 장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목적을 세부적으로 조정 또는 추가하여 설정함.

- 오페라 창작산실의 경우, 사업목적의 강조점을 한국 오페라분야의 생태계 개선 및 강화에 두고 있음.

1) 뮤지컬 장르는 2014년 해당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된 이후부터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독립되어 시행 중이기는 하나, 창작산실사업의 전신인 '창작팩토리' 사업의 첫 시행년도부터 지원대상 장르였고, 여전히 해당사업과 공통된 목적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사업'을 연구범위에 포함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 우수한 창작오페라의 발굴과 유통을 지원하여 한국 오페라분야의 자생력 신장에 기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움.

– 음악 창작산실은 1) 창작음악활성화와 2) 전속작곡가 제도 정착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오작교 프로젝트'[2]라는 사업명으로 지원사업을 시행중임.

- 안정적으로 창작곡 발굴과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전속작곡가 제도'[3]를 도입하여 참여 작곡가와 오케스트라간의 공식화된 연계활동을 사업기간(2년) 동안 지원하고 있음.

–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은 '창작–제작–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창작뮤지컬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크게 1) 작품창작 지원사업, 2) 인력 육성 지원사업, 3) 유통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하위 지원사업별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음.

- 창작뮤지컬 작품창작 지원사업: 1) 공연제작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여 우수 레퍼토리 육성에 기여하고, 2) 작품 제작 멘토링 및 공동 홍보 지원을 통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작품의 예술성 향상을 유도함.
- 창작뮤지컬 인력 육성 지원사업: 1) 창작뮤지컬 소재를 함께 탐구하고 작법 교육을 실시하여 차세대 창작인력육성을 지원하고, 2) 기획·경영분야 교육을 통해 해당분야의 역량강화와 창의적인 기획인력을 육성하도록 함.
- 창작뮤지컬 유통 지원사업: 1) 국내 창작뮤지컬의 해외진출방안 모색과 2) 가능성 높은 작품을 선발, 작품개선 및 제작사 연결을 통해 레퍼토리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 창작산실 사업은 신진작가 발굴이 아닌 '창작작품'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음.

– 창작산실 사업의 전신인 '창작팩토리' 사업은 그 시작과 함께 "공연예술 분야의 역량 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는 것을 취지로 발표하였음. 그러나 사업의

2) 오케스트라와 작곡가 교류활성화 프로젝트의 줄임말이며, 견우와 직녀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우리나라의 작곡가와 오케스트라 사이에 긴밀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이다. (출처: 2015 오작교사업 소개서, 기관내부자료)

3) 전속작곡가 제도의 개념: 작곡가가 특정 연주단체와 창작곡 연주 및 발표 조건, 활동지원사항 등에 대한 계약을 통해 본인의 창작활동을 진행하는 지원방식 (출처: 2015년도 창작산실 음악분야 지원사업 계획(안), 기관내부자료)

목표가 신진작가 발굴과 창작작품 지원이라는 다소 중의적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목표의 이해나 일관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 (‘2008년도 창작팩토리 공모’ 2008, 황순원 2009).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창작산실의 사업목표는 우수 창작작품을 발굴하여 공연레파토리로 육성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신진작가 발굴 보다는 작품을 우선으로 지원하여 공연예술계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 창작산실 사업에는 신진작가뿐만 아니라 중견 작가도 지원 및 참가할 수 있으므로, 그 사업목표의 중점이 새롭게 창작된 ‘작품’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제2절 육성지원현황

□ 사업규모는 지원대상이 되는 장르의 확대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도 지속적인 확대를 나타내고 있음.

- 뮤지컬 분야의 예산을 제외한 2015년 창작산실사업 총 예산은 50억 원임.
  - 장르별로는 연극은 20억 원, 무용은 14억 원, 오페라는 10억 원, 음악은 6억 원을 예산으로 책정 함.
-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의 2015년 예산은 총 60억 원임.
  - 이는 2014년도의 총 예산 50억 원에서 20% 증가한 금액임.

□ 사업의 지원 내용

- 사업의 지원금 즉, 공연제작 지원금 외에도 공연장대관 지원 및 홍보 지원 등 당선된 주체에게 실연에 필요한 기타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연극(우수작품), 무용(우수작품), 오페라(시범공연 및 우수작품), 뮤지컬(우수작품)에 있어 공연장대관 및 홍보,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제공함(무용산실은 추가로 네트워킹 지원도 시행).
  - 무용 우수작품과 오페라 시범공연 및 우수작품에 대하여 프로모션 책자와 동영상 제작지원을 시행함.

- 오작교 프로젝트의 기재된 지원비 사용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오케스트라: 악기 임대, 홍보 및 마케팅, 객원 연주자 출연료 등 창작곡이 포함된 연주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 작곡가: 자료구입비, 국내외 음악관련 행사 참가비 등 창작/개작과 관련된 직접경비.
-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사업의 지원금은 부분 지원임. 예를 들어, 연극산실의 경우 총 공연제작비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 예산으로 투입해야 함(2014년 문예진흥기금 성과보고서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연극'기관내부자료).

□ 공연예술 창작산실 사업의 심사위원 구성

- 창작팩토리 초기 심사위원의 구성에 문예회관 실무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예술위원회의 창작산실사업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연출 포함 예술가, 기획·경영가, 평론가)을 중심으로 각 단계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증강함(I.e peer review structure).
- 창작작품의 향후 레퍼토리화를 위한 인지도 확산과 우수작품공연에 대한 관객의 기대향상을 고려하여 관객평가단을 모집, 기획형 실연심사에 참여하도록 추진함(관객평가단 총 102명 참석, 2014년 기준).

제3절 국내 유사정책 사례 비교분석

□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유망예술지원' 사업은 연극, 무용, 다원·전통·음악, 시각예술 총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구성됨.

- 각 분야별로 지정된 서울시 창작공간에서 사업이 시행됨.
  - 연극: 서울연극센터 NEW Stage
  - 무용: 서울무용센터 닻 dot (전 홍은예술창작센터)
  - 다원예술·전통기반창작예술·음악/사운드: 문래예술공장 MAP

- 시각예술분야: 서교예술실험센터 99℃
- 사업의 목적은 각 분야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통된 내용은 각 장르에서 예술가와 창작품을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극:
- 연극분야의 새롭고 다양한 창작 활성화를 위한 창작자 발굴 및 지원
-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연극분야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창작자의 역량 개발
- 연극을 통한 다양한 내용적, 형식적 실험 기회 제공

– 무용:
- 무용분야 유망예술가 발굴, 성장도모 및 창작역량 강화
- 창작지원금, 공간, 인큐베이팅을 결합한 입체적 지원시스템을 통한 제작지원 내실화
- 새로운 예술 흐름을 선도하는 창작 지원

– 다원·전통·음악/사운드: 다원예술, 전통기반창작예술, 음악·사운드 분야의 새롭고 다양한 창작활성화를 위한 창작자 및 작품 제작 지원

– 시각예술:
- 시각예술 분야의 새로운 경향의 예술을 선도하는 유망예술 발굴 및 육성
-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시각예술분야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예술가의 역량 개발

– 사업지원 대상 및 규모
- '유망예술지원' 사업은 각 분야별 10년 이내의 경력을 갖고 있는 예술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신작과 재창작 작품을 모두 포괄함 (단, 시각예술은 신작 발표만을 지원).
- 사업의 지원 내용은 창작지원금, 공간, 작품개발, 통합홍보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문화재단의 지원대상사업은 최소 10%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유망예술지원사업은 그 조건에 대한 예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CJ문화재단: CJ아지트

- 음악, 영화, 뮤지컬, 연극 분야의 신인 창작가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진들의 의견(feedback)을 듣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쇼케이스와 같은 발표를 통해 관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함.
- 장르별로 음악은 튜업(Tune Up), 연극과 뮤지컬은 크리에이티브마인즈(Creative Minds), 영화와 방송분야를 묶어 스토리텔러라고 명명한 분야는 프로젝트S(Project S)라는 이름으로 각각 프로그램을 진행함.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공공기관의 유사정책과 함께 민간단체의 유사사업을 살펴보는 이유는 공공성이라는 대표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아르코의 '창작산실'이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사업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임.

제3장 해외 유사사례 연구

제1절 연구개요

□ 사례선정 기준과 조사방법

- 해외 유사 사례조사는 미국, 영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영미문화권을 위주로 실행되었으며, 미국 유사사례 3건, 영국 유사사례 2건, 캐나다 유사사례 1건

총 6개의 사례를 조사하였음. 유사 사례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이제까지 국내에 사례조사로 보고 된 적이 없거나 소개의 정도가 미미한 사례를 우선 선정
- 미국의 경우, 비영리기관 전문평가기관인 Guide Star[4]의 자료, 유관기관의 평가자료, 연차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기준으로 사례 검토
-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유관기관의 평가, 기관 자체평가보고서, 연차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기준으로 사례 검토
- 각 관련 자료 검토 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목표와 단계적 지원의 형태, 지원금의 규모, 장르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별함

– 본 해외사례연구의 조사방법은 선정된 사례에 관련된 문헌분석을 기초로 함.

- 조사분석된 자료는 관련 기관자료 및 공신력 있는 미디어 자료, 학술문헌 및 외부 평가자료 등이 검토됨.
- 공연예술 창작산실사업의 조사 및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관개관, 단체운영구조, 지원내용 및 방식, 그리고 심의과정 등이 분석된 자료의 근거로 사용됨.
- 검토된 문헌조사 결과는 추후 본 연구보고서의 시사점 도출에 근거 자료로 사용될 예정임.

□ 미국 유사사례

– Art Works

- 주관기관: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장르: 무용, 디자인, 전통 예술(Folk & Traditional Arts), 문학, 음악, 오페라, 다원예술(Presenting & Multidisciplinary Works), 미디어 예술(Media Arts), 시각예술
- 홈페이지: www.arts.gov/grants-organizations/art-works/grant-program-description

– Creation Fund

4) 홈페이지: http://www.guidestar.org/

- 주관기관: The National Performance Network
- 장르: 현대(contemporary)공연예술과 시각예술
- 홈페이지: http://npnweb.org/whatwedo/programs/creation-fund

– The Next Link Project

- 주관기관: The New York Musical Theatre Festival
- 장르: 뮤지컬
- 홈페이지: http://www.nymf.org/programs/next-link-project/

□ 영국 유사사례

– Grants for the Arts and Carnival

- 주관기관: 잉글랜드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 장르: 카니발 (공연예술, 시각예술, 융합예술, 문학 등 장르의 제한은 없으며 세부사업에 따라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하여 지원함)
- 홈페이지: http://www.artscouncil.org.uk/

– The Oxford Samuel Beckett Theatre Trust Award

- 주관기관: 주최-옥스퍼드 사무엘 베케트 극장 신탁(The Oxford Samuel Beckett Theatre Trust) 협력-바비칸 센터(Barbican Center)
- 장르: 신진 예술가의 예술성과 실험정신을 겸비한 공연예술작품
- 홈페이지: http://www.osbttrust.com/

□ 캐나다 유사사례

– Production Project Grants in Dance

- 주관기관: 캐나다 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 장르: 동시대 무용가와 전통무용가, 안무가의 창작 무용작품
- 홈페이지: www.canadacouncil.ca

제4장 양적 연구: 효과성진단

□ 설문조사의 목적

- 창작산실사업 효과의 객관적 진단을 위하여 수혜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단계별 효과, 우수작품 제작지원 및 우수작품 재공연 수혜단체의 지원 이후의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사업의 효과성 판단 근거를 도출함.
- 구체적으로 지원장르 중 어떤 장르가, 지원단계별로 어떤 단계가 더 효과적이었는지 설문결과를 얻고자 함.

□ 장르별 설문 표본 모집단 공연단체와 응답 공연 단체 현황

- 176개 공연단체 대상 중 거절(7건), 결번 등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27건), 비수신(69건)등의 이유로 최종 60개 공연단체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음. 이 중 연극 12개, 무용 21개, 뮤지컬 13개, 오페라 9개 음악 5개 공연단체임.

<표 1> 장르별 설문 공연 단체 수

장르	표본 모집단 공연단체	응답 공연단체
연극	63	12(20%)
발레(무용)	41	21(35%)
뮤지컬	24	13(22%)
오페라	19	9(15%)
음악	29	5(8%)
합계	176	60(100%)

□ 지원단계별 지원금액의 충당 비중

-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각 지원단계에서 작품제작 총 비용 중 어느 정도로 충당이 되었는지 파악함.

-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금은 전체 공연비용의 64%를 충당함. 우수작품 제작지원은 73%, 시범공연지원은 86%, 대본공모는 75%임.
- 음악분야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전체 비용의 73%를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됨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재원배분

- 공연단체 입장에서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총 재원이 10점이라면 단계별 지원, 즉 시범공연 지원, 우수작품 제작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지원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로 배분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함.
- 평균적으로는 우수작품 제작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시범공연 지원 순으로 지원규모도 그에 상응하는 규모를 배분하였음
-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우수작품 제작지원에 대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적임.

□ 우수작품 재공연 및 우수 제작 지원사업 단계의 지원 효과

- 우수작품 재공연 및 우수 제작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동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효과 및 실익이 컸는지에 대한 설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함
- 우수작품 재공연 및 제작 지원단계에서의 효과는 공연장 확보 및 공연 기회 증대효과가 압도적으로 높음. 다음으로는 작품의 홍보 효과 제고와 차기작 준비를 위한 발판이 된다고 함

[그림 1] 우수작품재공연/제작지원 사업 효과 및 실익 – 1순위+2순위 포함

□ 시범공연 및 대본공모 지원사업 단계의 지원 효과

- 시범공연과 대본 공모지원 사업지원을 받은 작품을 가진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동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효과 및 실익이 컸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함.
-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을 포함한 두 경우 모두에서 작품을 완성하는 데 효과가 가장 높다고 응답을 하였음.
- 반면 시범공연 및 대본 공모 지원에 따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 시범 공연 및 대본 공모 지원사업의 효과에 모름 또는 무응답 비중이 23%임. 이렇게 동 지원단계에서의 효과에 대해 수혜 공연단체의 인지 수준이 낮은 것은 실제 효과도 미미하거나 모호함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원 이후의 공연 현황(사후 실태)

- 우수작품 제작지원 및 우수작품 재공연 이후 해당 작품의 국내외 공연 현황은 다음과 같음. 전체의 약 70%의 공연단체가 지원 작품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공연 경험이 없음

- 지원사업을 통해 단지 20% 만이 전국공연을 실시하였으며, 해외공연은 4%에 불과함. 이 중 뮤지컬이 지원사업 이후 실제 전국공연을 했거나 향후 계획된 경우를 모두 합해 42%로서 다른 장르에 비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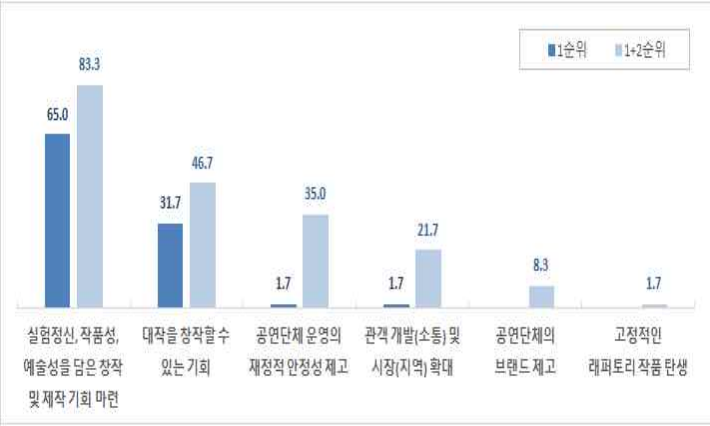
□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의 전반적인 효과

-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공연단체가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사업으로 우수작품 제작지원 및 우수작품재공연으로 지원받은 작품은 지원받지 않은 작품에 비해 전체적으로 성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실시하였음
  - 위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5점 척도로 설문 응답을 받았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수혜 공연단체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4.24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 오페라가 4.67로 가장 높고, 음악이 3.67로 가장 만족도가 낮음.
  - 연극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와 거의 그렇지 않다의 비중의 합이 17%로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통해 사업 지원 전후의 차이를 파악하였음. "귀 공연단체는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을 받기 전과 후로 나누어 공연단체 운영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몇 %정도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 비교의 기준은 관람객의 수와 같은 계량적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작품의 질적 향상과 같은 정성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
  -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 전후를 비교한 공연단체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51%이상이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1%~30%가 약 22% 비중을 차지하였음.
  -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을 받기 전보다 받은 후에 변동이 없거나 더

나빠졌다는 의견이 약 17%인데 반해, 좋아졌다는 의견이 83%로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에 대한 지원에 따른 전반적인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됨.

- 앞에서 지원 전후로 플러스의 효과를 본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문8-1. [문8의 ④,⑤,⑥ 응답자 대상]) 어떤 측면에서 성과가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물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재정적인 지원으로 인해 공연작품의 질적 향상에 신경 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높았음. 또한 창작산실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공연시장에서 홍보효과를 거두어 작품의 인지도나 관람객의 확보에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물은 결과, 실험정신, 작품성, 예술성을 담은 창작 및 제작 기회 마련이 1순위, 1순위+2순위에서도 가장 높은 효과로 제시됨.
  - 그 외에 대작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공연단체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 제고, 관객 개발 및 시장 확대, 공연단체의 브랜드 제고, 고정적인 래퍼토리 작품 탄생으로 열거함

[그림 2]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을 통한 효과 - 1+2순위



□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의 향후 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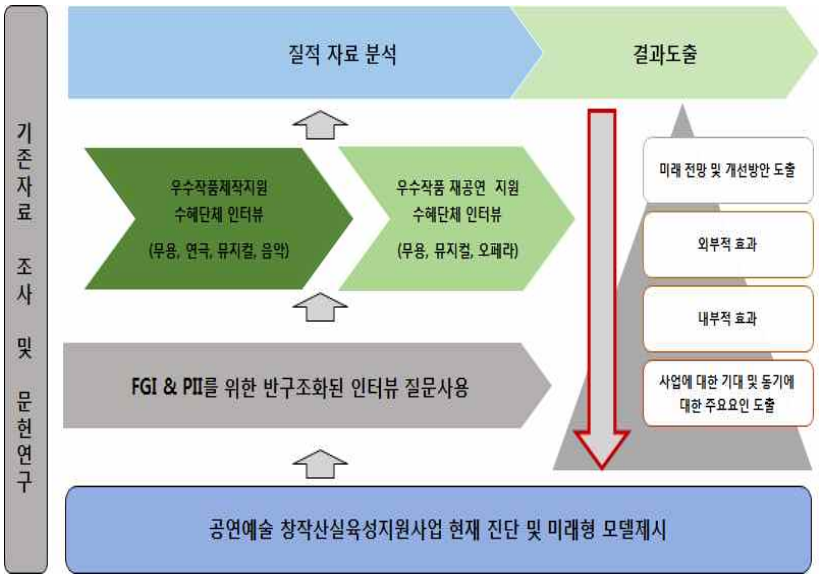
-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에서 향후 개선되거나 보완할 사항으로 아래의 답변을 제시함.
-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의 지원규모에 비해 해외진출 및 사후 공연과 연계한 지원들이 상대적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가 많음. 제작과 재공연 그 자체에 대한 지원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 공연예술시장의 활성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공정한 심사,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단 구성, 서류절차의 간소화나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원 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수요자에 맞춘 지원 행정체계에 대한 요구도 많았음.

제5장 질적연구: 효과성진단

□ 본 연구의 정성적 진단 연구는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과 개인심층 면접조사법(Personal Indepth Interview: 이하 PII)을 활용하여 실행되었으며 면접조사 참여자 총 28명을 통해 현 정책사업의 지원동기, 효과, 의미와 개선점 및 이에 따른 구체적 대안을 중심으로 조사·분석되었음

- 면접조사 참여자는 우수작품제작지원을 받은 장르별 단체대표(무용 N=5, 연극 N=2, 뮤지컬 N=6, 음악 N=4) 17명과 우수작품재공연지원을 받은 장르별 단체대표 (무용 N=2, 뮤지컬 N=1, 오페라 N=1) 4명, 장르별 작품유통관련 기획자 3명(무용 N=1, 뮤지컬 N=1, 음악 N=1), 비평가, 평론가 및 심의위원(무용 N=1, 뮤지컬 N=1, 연극 N=1, 음악 N=1) 4명, 총 28명을 대상으로 함

[그림 3] 정성적 진단 연구 체계도



□ 본 연구의 정성연구 방법, 자료수집기간, 참여대상, 분석기법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음

- 연구방법: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초점집단면접(FGI) 및 개인심층면접(PII) 조사법
- 자료수집기간: 2015년 9월 4일 ~ 201년 10월 22일
- 연구 참여대상: 총 28명
  - 우수작품제작지원 수혜작품 단체대표 17명
  - 우수작품재공연지원 수혜작품 단체대표 4명
  - 작품유통관련 기획자 3명
  - 비평가, 평론가 및 심의위원 4명
- 분석기법:

- 정책사업에 대한 지원동기, 효과, 의미, 문제점, 대안을 축으로 주요 테마(theme) 축출
- 축출된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개방형 코딩(open coding)과 축코딩(axis coding)을 통해 정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효과성 및 개선방안 도출

□ 연구방법: 초점집단면접(FGI)와 개인심층 면접조사법(PII)의 적합성

- 초점집단면접(FGI)은 연구주제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를 갖춘 현장 실무자 및 담당자들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 사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상호 교류하며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음(Kleiber, 2003; McCormack, 2004)
- 개인심층 면접조사법(PII)은 연구 참여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례와 평가, 제언 등을 심층적·집약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타당한 질적 논고 마련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임(강진숙, 2007; Creswell, 2012)
-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와 PII 조사방법을 통해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선정작품으로 수혜를 받은 단체대표를 우수작품지원 그룹과 우수작품재공연지원 그룹으로 나누어 사업의 효과성 및 내부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도록 유도함
-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추출하여 현 사업의 전반적 진단으로 정책사업의 효과와 의의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그림 4] 정성적 진단연구 분석모형

2. 연구결과 요약

□ 수혜단체 면접조사 분석 결과,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지원 배경으로는 동기에 2개의 주요테마가, 기대효과에서는 3개의 테마가 분석되었으며, 정책을 통한 효과로 내부적으로는 총 7개, 외부적으로는 5개의 주요한 테마들이 정책적 결과물로 파악됨

- 수혜단체의 관점에서 느끼는 정책에 대한 내재적 의미는 3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창작중심의 내재된 의미화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책의 적절성에 있어 정책사업의 목표는 불명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 정책사업의 문제점은 다양한 분야로 총 6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7개의 주요테마로 분석되었음

<표 2> 수혜단체(공연예술 창작산실)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N=21)

분석틀	상위 범주	하위범주 주요테마
배경	지원동기	– 소액다건의 지원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제작지원 – 단계적 계획과 긴 호흡을 통한 작품 창작의 기회
	기대효과	– (정책상 결여되어 있는) 규모있는 작품을 창작 할 수 있는 기회 – 실험정신, 작품성, 예술성을 담은 작품의 제작 – 창작을 통한 관객과의 소통
효과	내부적	– 제작비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안정감 – 작품제작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제공 – 실험정신, 새로운 시도를 통한 인식의 확장 – 예술성을 앞세운 시장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 완화 – 대표적 래퍼토리 구축 – 단원의 기량, 성취감 및 결속력 강화 – 단계별 계획을 통한 작품기획 및 역량 강화
	외부적	– 검증을 통한 외부의 신뢰도 및 인지도 상승 – 단체의 브랜드 네임 강화 – 폭넓어진 관객층 – 외부 단체 접촉을 통한 네트워크 및 협업의 기회 –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
의의	내재적 의미	– 창작역량 중심적 : 희망, 기회, 신발, 발판, 선물, 색깔, 새로운 예술생명의 시작 – 창작환경 중심적 : 숲을 위한 나무, 반달곰, 응원, 울타리 – 협업 중심적 : 책임감, 만남, 끈
	정책의 적절성	– 타 유사 정책사업과 비교 시 규모 및 시스템적 우위 – 정책목표와 방향의 모호성
제언	문제점	– 일관성과 지속성이 결여된 정책 및 행정 – 정책목표 설정과 취지의 모호함 – 작품규모에 맞는 시장의 부재 그리고 이에 따른 부담감 – 작품제작지원 이후 홍보 및 사후관리의 부족 – 유연하지 못한 평가기준과 서류상의 구조적 문제 – 심사 및 평가기준에 대한 심사위원 간 함의 및 이해
	개선방안	– 장기적 연계방안을 통한 지속적인 재공연의 기회제공 – 평가자 전문성과 평가체계 개선 – 장기적 안목과 장기적 성과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정책적 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심사위원에 대한 이해 도모 –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사후관리 – 해외진출 전략을 위한 다양한 지원 – 지원작품 기록을 위한 총체적 아카이빙 구축

□ 총체적으로 현 정책사업이 가지는 장르별 주요 효과는 아래와 같음

– 다만, 아래의 결과는 일반화가 연구의 목적이 아닌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로 성급한 일반화의 잣대로 다가가기보다는, 각 면접자의 답변을 정책적 맥락과 현 예술생태계와 연관지어 이해하는 관점이 요구됨

□ 공연예술단체가 사업에 지원한 동기와 기대효과를 실질적인 정책적 생산물인 내·외부적 효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의미가 큼. 다만, 현 정책사업의 문제점에서 드러나듯이, 수혜단체와 정부정책 사이에 가시적 성과 또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적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 현 정책사업의 목표로 설정된 “창작의욕 고취와 경쟁력 강화” 중 창작의욕과 이에 대한 결과는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이나, 우수작품제작지원을 통해 작품중심의 수익구조모델을 고안하여 시장경쟁력을 획득하는 것은 더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현 지원사업의 중요한 그리고 가장 뚜렷한 효과는 외부적 효과보다는 내부적 효과로, 공연예술창작에 대한 본질적이고 주축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해 보임

- 특히, 현 사업을 통해 대표적이고 독창적인 레퍼토리를 구축하고, 국내외 공연장 또는 페스티벌에 초청받거나 해외시장 진출 시발점이 된 점은 주목할 만한 효과임
- 다만, 창작력과 경쟁력 중 현 정책사업의 효과는 공연예술단체의 창작력에 더욱 실질적이고 확실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쟁력의 강화는 작품제작지원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사후관리나 홍보체계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그에 대한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급히 다루어져야 하는 우선 문제로 작품지원 후 작품에 대한 사후지원 및 관리의 부족이 도출되었으며, 정책의 고유한 목표설정과 이에 대한 예술계의 동의를 얻는 것 또한 주요한 사안임이 드러남.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러한 합의과정을 통해 심의위원에게 정책의도와 목표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개선방안임이 피력됨

- 장기적 연계방안을 통한 지속적인 재공연의 기회제공은 면접조사 참여자 대부분의 의견으로, 문화예술회관 및 국공립 공연장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공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우수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끊기면 사장되어 버리는 현 예술시장에 대한 대응과 창작산실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문화예술회관과 연계적 협업은 필수적 대안임이 강력히 재기됨

□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예술창작육성지원사업'을 기관의 독창적인 고유 브랜드 사업으로 심화하기 위해 정책 목표설정에 대한 차별성을 창작에 집중하고, 발굴된 작품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홍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사후관리를 통해 현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 시급함

□ 이와 함께,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예술인의 자부심과 예술계 내부에서 인정하는 신뢰와 위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심의위원의 위촉과정의 투명성, 단계별 심사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설계 및 심의결과 공개를 통한 소통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제6장 확대운영 및 개선방안

1. 지원 관행의 개선

- 1건당 지원액 규모를 상대적으로 더 늘려서 재정계획과 작품기획을 연계시키는 지원정책으로 창조적 실험, 작품성 제고, 예술성 담보, 예술소비자들의 다양한 기대 부응, 높은 수준 충족이 가능한 작품을 기획하도록 지원함.

2. 목표 우선순위와 적정 재원규모 파악

- 창작산실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정한 재정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주요 장르별로 먼저 고정비용을 조사하고 사업별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창작성 제고 방안

□ 컨설팅 지원으로 창작에 몰입케

- 창작산실사업으로 창작성제고에 몰입가능한 안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시장에서의 타격 우려 없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컨설팅을 병행하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있음.

□ '사전준비 지원' 제도 신설

- 공연 전 준비과정에 필요한 재원조성, 세미나,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하여 창작초기에 마케팅 제작, 공연기획이 충분히 이루어져 실질적 지원효과가 두드러지게 해야 함.

4. 작품 우수성 제고 방안

□ 제작기간 실질 보장

- 작품 우수성 보장을 위해서 장기적 지원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1년 단위 예산의 편성 주기에 맞춘 지원은 구조적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성과를 내기 좋은 분야나 방법만 발전하게 됨.

- 예술적 독창성이 장기 지원만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술적인 역량의 확보는 단기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로 일단 선택되면 선택된 자가 상황에 맞게 작품제작기간을 선정하도록 하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작품제작 기간 자율선택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요한 지원자격은 더욱 엄격하게

- 작품 우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탁월한 작품제작 경력이 있는 단체들이 임시적으로 만든 단체인 경우에는 매우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붙여서 우수성을 담보하는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함.

5. 협업시스템 장려

□ 협업으로 작품제작 장려

- 창작단체의 경쟁력을 키워 책임 있게 작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개의 단체가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특히 연극계통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작품을 제작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임시조직으로 신청하는 것도 장려하고 지원토록 함.

□ 교류 및 네트워크 향상

- 협업방식으로 참여하는 창작산실 지원 수혜단체들은 진행과정에서 서로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경영전략이나 시장마케팅을 공유하며, 추진과정이나 사후 관리 면에서 성과가 더 커지도록 전략개발을 장려함.
- 협업을 위해서는 개별단체들이 경쟁력을 갖춰야하는데 특히 외부와 교류를 늘려 향상되게 추진해야함. 따라서, 네트워크 소통시대에 알맞게 예술단체들이 협업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단체의 활동영역이나 홍보 및 마케팅 시장을 강화하도록 지원함.

6. 단체의 경쟁력향상 기여 방안

□ 대표레퍼토리 개발과 브랜드화

- 창작산실 지원을 받아서 대표적인 레퍼토리를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하거나, 실제로 단체가 지원받은 프로그램으로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데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단체의 위상을 정립하며, 이를 브랜드화 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브랜드화를 위해서 '창작산실육성지원'을 받은 작품은 '감상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수준'이라는 인식을 관객들에게 홍보하고, 작품의 브랜드가치를 만들어 가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창작산실육성지원' 로고를 디자인해 작품홍보에 활용하고, '창작산실육성지원'을 받은 작품 감상자들을 대상으로 '회원제'를 도입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감상 마니아층을 형성해 나감.

□ 단체 경영역량 제고

- 단체 리더나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되는 배분항목을 감안해서 배분기준으로 삼아야 함.
- 인적자원 역량제고 노력결집 매개체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예산활용 항목 검토도 필요함.

7. 심의평가제도 개선

□ '대중성' 항목의 개선

- 심사기준에서 '대중성' 항목이 연극분야와 뮤지컬분야의 대본심사에 들어 있음. 그런데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추도록 요구하는 심사기준은 창작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당혹스러움. 이 항목은 팩토리지원 때 만들어진 지표로서 사용되어오던 관행을 단순히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
-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대안지표를 개발해야 함. 대체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예를

들어 '관객친화성', '동시대성' 등을 제시할 수도 있음. '동시대성' 지표는 미국 뉴욕뮤지컬극장페스티벌(The New York Musical Theatre festival: NYMF)에서 '동시대의 현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뮤지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문화재단 에서도 이 항목을 기준으로 연극에 지원하는 등 사례가 있음. 그러나 이 역시 심사기준으로서 공감대를 얻어 수용될 수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실질적 심의방식

- 심의방식을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심의항목이나 절차를 개선함. 예를 들어, 3분 정도의 데모영상 심사방식을 도입하여 '서류에 기반 하는 인터뷰 심사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 안무가의 창작 의도를 명확히 평가함.

□ 대본과 데모 테이프심사

- 대본과 데모테이프를 전문가들이 철저한 브라인드를 거쳐 확정하여 심사를 공정성 있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함.

□ 평가내실화

- 평가지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대표성 있게 구성하여 종합적 체계를 갖추도록 함. 실질적인 요소를 평가하여 우열을 명확히 가리도록 해야 함.

□ 심사위원에 대한 신뢰 제고

- 평가에 대한 신뢰는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므로 평가위원들이 선정한 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함부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심사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적용하여 선정 후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함.
- 심사위원장은 사업 관련자들이나 예술인들이 만족할 수준에서 선정하기 위해 심사위원장의 선정절차 및 역할 등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을 상세히 설정함.

8. 생태계발전 전략화

□ 예술 생태계발전 기여목표의 명확화

-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사업으로 특성화하기 위해 지속발전 생태계 기반 조성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지원의미에 추가 반영하여 새로운 지원 전략적 가치를 키우는 사업으로 평가받도록 함.

□ 경쟁을 넘어 생태계 전반의 축제로

- 지원받은 단체들끼리 경쟁이 격화되게 부추기기보다는 이를 완화하여 축제분위기로 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전략임.

9. 사업목적에 부합한 세부전략

□ 장기적 연계

- 창작산실의 주요 목적가운데 하나인 창작의욕 고취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및 자생력제고를 위한 세부전략을 개발하여 일관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는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장기적 연계방안을 통한 지속적인 재공연의 기회를 제공함. 또한 장기적 안목과 장기성과를 거두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 아카이빙구축

- 사업지원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하여 지원 못지않게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을 중요 과제로 삼아야 함.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결과나 사업시행자들의 결과보고 등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결정을 위해서 그 간의 지원기준, 내역, 대상기관의 발전추이 등에 관련된 아카이빙 구축이 필요함.

□ 작품에 대한 사후관리

- 창작산실 지원 수혜자들에게 작품 규모에 맞는 시장의 부재와 이에 따른 부담감, 작품제작 이후 홍보 및 사후관리를 위해 후속으로 유통, 홍보, 사후관리, 해외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 주는 조치가 바람직함.

10. 위원회의 활성자 역할 강화

□ 활성자 역할 강화

- 위원회가 창작지원재원을 조성하고 배분하는 기본역할을 좀 더 적극화하여 생태계발전을 위한 활성자 역할(facilitator)을 하고 단순히 지원을 매개하는 조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가져야 함.

□ 매칭에 관한 적극 역할

- 공공문화재단 및 기업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창작지원사업 규모를 키워가도록 조율하며 재단이나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간의 역할을 조정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함.

□ 지원행정의 개선

- 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해야하며, 회계행정을 간소화하여 항목누락으로 본의 아니게 의심을 받거나, 사업 종료 후에 부실문제가 발견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함.
-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 관련 컨설팅을 상설화하거나, 지원받은 단체들이 관련 변호사나 회계사로부터 쉽게 도움을 받는 방안을 마련해 줌.

□ 위원회 주도의 연계발전 전략

- 선정된 프로그램을 다른 공연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함. 즉, 다른 지원, 다른 제도와 연계해서 작품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예술위원회에서 마련해 줌으로써 지원효과의 사회적 확산을 유도하는 방안임.
- 작품에 대한 홍보방안 등 사후관리를 통해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우수작품과 단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마련함.

11. 단기적 개선 사항

□ 가족극 지원개선

- 2016년도 지원 대상인 가족극 심의기준(시범공연, 제작지원)에서 작품의 예술성 비중을 낮추어야함. 또한, 작품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작품의 파급효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계량지표 적용 확대

- 재공연 지원 심의기준의 경우, '예술성'과 '자생성' 추구를 사업 방향으로 하므로 연극, 무용, 오페라 등 순수예술 분야라고 해서 계량지표 도입을 굳이 회피할 필요는 없다고 봄.

□ 프로모션 책자 및 동영상 제작지원 확대

- 연극 · 무용 · 전통 · 창작뮤지컬 분야의 경우에도 안내서에서 제시된 대관 지원, 통합홍보 지원, 전문가 멘토링 지원과 함께 '프로모션 책자 및 동영상 제작지원'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창작산실 제도의 근본적 공론화

- 예술위원회가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설정하고, 이 사업의 개선 및 중장기 발전, 이론적 · 비평적 측면에서 이 시대를 대표할 창작 방향의 제시 등을 위해서 지원정책 방향의 공론화가 필요함.
- 주력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매년 심사 과정과 결과, 성과 평가 내용, 세미나 개최 결과, 사업 개선을 위한 환류 등을 정리한 '연차보고서' 발간이 필요함. 이는 아카이빙과 연계해서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 ·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TF는 사업 계획의 수립, 심의 기준 · 방식 등 실행 방식의 개선, 분야별 심의위원 및 성과평가 참여, 관련 세미나 개최,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담당함.

□ 컨설팅 연결

-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정을 지원하고,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연결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정지원 외에도 창작에 필요한 자원이나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함.

□ 사업성과에 대한 다각적 평가방식

- 창작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원프로그램 수혜자들의 만족감을 창작산실지원사업의 성과로 포함해야 함.
- 수혜자를 대상 평가 외에도 시장의 새로운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예술계, 심사 탈락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필요함.
-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에 대해서 지원 수혜자 자체평가, 지원 전에 예상되는 효과와 기대효과에 대한 측정지표 사전 마련, 예술생태계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 등은 창작산실 지원성과의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고려할 만함.

□ 공연장 지원을 위한 협의

- 우수작품에 대한 사후관리, 연계지원 관점에서 예술위원회는 이를 한국문예회관연합회와 협의하여, 문예회관연합회에서 회원단체에 협조 요청토록 하는 방안을 알선하여 대상단체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및 구성
2. 연구설계 및 방법

제1절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및 구성

□ 연구배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동 법에 따라 운영하는 공공기금(사업성 기금)으로서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사업은 2008년 “새 정부예술정책”의 4가지 방향 중,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를 모체로 “창작팩토리”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13년 3월 “공연예술 창작산실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은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 제작의 전 과정을 경쟁을 통해 단계별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대표 공연 레퍼토리를 육성하여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의욕 고취와 경쟁력 향상을 높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함
- 선정 분야는 연극, 뮤지컬, 무용, 오페라, 음악(오작교프로젝트)으로 대본공모지원, 시범공연지원, 우수작품제작지원, 우수작품재공연지원의 단계를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공연예술 창작 지원을 지향함. 공연단체는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설계에 의거, 선정된 작품의 규모와 발전가능성에 따라 단계 별 심의를 통해 제작비용을 지원받음
- 현재까지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체계적 진단을 위한 객관적·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목표 달성 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음. 이에 동 연구를 통하여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당초 기대효과 달성여부를 검증하여 총체적 진단을 통해 정책사업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력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업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사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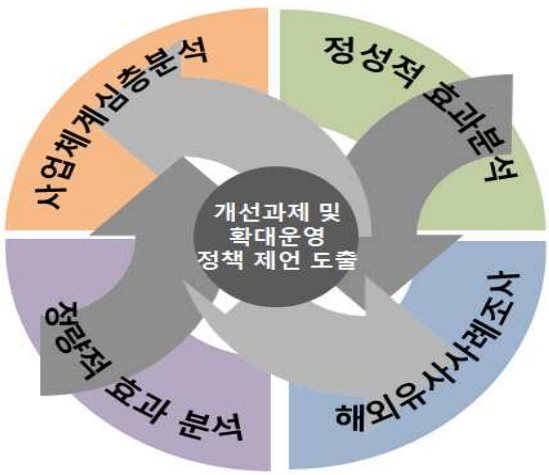
□ 연구목적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총체적 진단을 위해 사업운영 체계 및 효과성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독자적이고 체계화된 창작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둠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운영체계 전반의 심층진단을 통해 연구결과의 활용도 증대 및 향후 유사사업 진단 분석에 유용한 틀을 제공
- 장르별 사업 확대 추진 시 기존 문제점 보완 및 현장의 정책 수요가 반영된 사업 설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과 정책적 제언 제시

□ 연구범위

[그림 1-1]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진단 연구의 주요내용구성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체계 심층분석

- 동 사업의 사업전략, 사업목표, 사업대상, 운영방식, 추진체계, 재원규모,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 등 사업 전반을 진단할 수 있는 분석틀 제시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 관련 문헌검토, FGI, 설문조사 등 양적·질적 분석을 통한 사업의 적절성, 중요성, 효과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해외 유사사례연구 및 시사점 도출
  -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구조를 갖고 운영되는 해외 유사사례 분석
- 개선과제 및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확대운영 시 필요한 정책 제언
  - 사업의 체계 및 양적·질적 효과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집단의 자문회의 통해 검증

2. 연구 설계 및 방법

□ 문헌연구

- 과거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
- 국내외 유사정책 사례 연구 보고서 및 선행연구 조사
- 공연예술단체지원과 관련된 이론적 접근 및 선행연구 고찰

□ 양적연구

설문지 구조 및 내용

- 설문지의 내용은 사업의 구조가 동일한 연극/무용/오페라/뮤지컬은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고 음악은 별도 설문지 작성하여 사용함. 음악의 경우, 전속작곡가에 대한 부분을 설문에 추가함
- 본 조사의 목적이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의 효과와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설문구조로 설문함(부록의 설문지 참조)

1 일반 현황 2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 현황 3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 계기 및 동기 4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효과 5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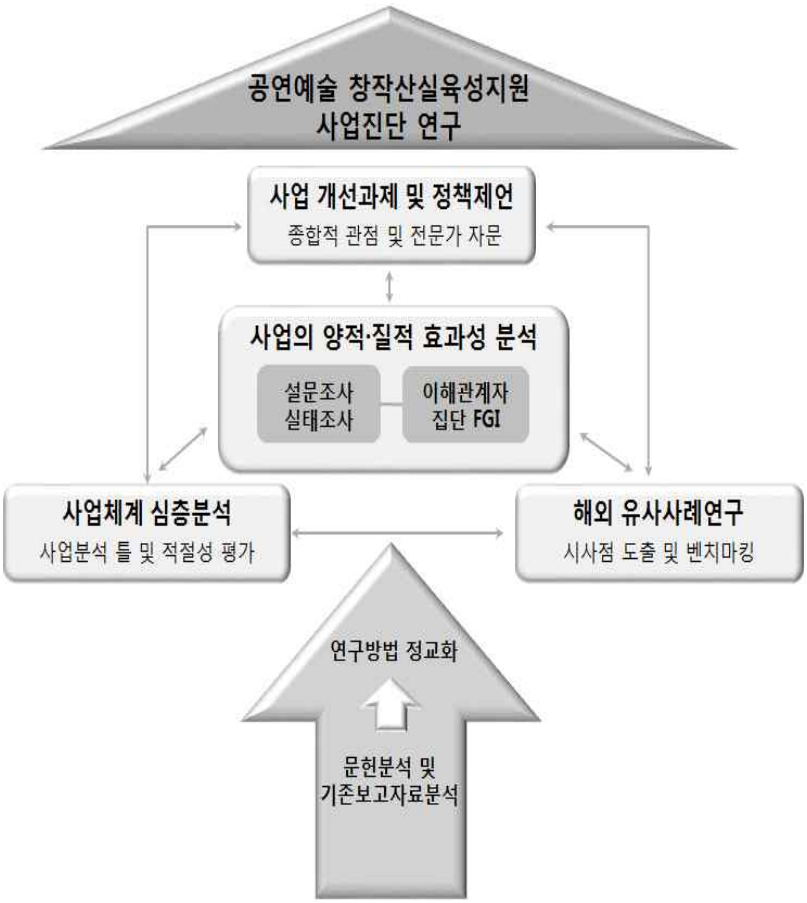
- 위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한 설문항 외에 실태조사에 대한 문항을 추가 우수제작지원과 재공연지원을 받은 공연단체에 한해서 지원 이후의 작품 공연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함.
- 장르별 설문 표본 모집단 현황: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이 실시 운영된 2008-2015년간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공연단체 중 연락처가 확보된 176개 공연단체를 표본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음.

□ 질적연구

- 조사방법: 반구조화 질문지를 통한 초점집단면접 (FGI)
- 조사 대상 및 횟수: 수혜단체 및 이해관계자 / 총 8회 진행(회당 4~5명)
  ① 장르별 우수작품 제작지원 단체(4회), 재공연단체(1회)
  ※ 해당장르: 연극, 뮤지컬, 무용, 오페라+음악
  ② 공연비평가, 평론가, 심의위원 (1회)
  ③ 작품유통관련 기획자 집단 (1회)
  ④ 예술위원회 업무담당자 (1회)
- 조사 시기: 9월 ~ 10월
- 조사내용
  ① 지원 동기 및 배경, 기대한 효과
  ② 각 연구참여자 관점에서의 사업의 효과 및 성과
- 수혜 단체 내부의 변화
- 수혜 단체 외부의 변화

③ 각 연구참여자 관점에서의 사업의 의미 및 사후 유지 필요성(중요성)
④ 타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과 동 사업의 차별성 (장점 및 단점)
⑤ 사업 프로세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그림 1-2]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진단 연구체계도



제2장

사업체계 심층분석

제1절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개념과 목적
1. 개념과 사업목표
2. 사업의 제도적 변천 및 거버넌스 변화

제2절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현황
1. 사업규모 및 지원현황
2. 지원심사 기준 및 지표

제3절 국내 유사 프로그램 사례 비교 분석
1. 공공기관 유사 사례
2. 민간단체 유사 사례
3. 유사사례로 통해 본 시사점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1절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개념과 목적

1. 개념과 사업목표

1) 창작산실의 사업목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 사업'(이하 창작산실사업)은 다음 세 가지를 주요목적으로 함: 1)공연예술분야 우수 창작작품 발굴, 2)해당 분야의 창작의욕 고취와 경쟁력 향상, 3)해당 분야의 대표 공연 레퍼토리 육성.

- 사업지원방식은 참여작품 간의 단계별 경쟁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창작작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초로 함.
- 창작과정의 초기부터 완성작품의 유통까지, 창작의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함으로 창작자에게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시킴.
- 지원의 범위를 작품창작 전 과정으로 포괄하는 것은 예술가로 하여금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공연 레퍼토리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 창작산실사업의 전체 사업목표 외에도 오페라와 음악, 뮤지컬[5] 분야의 경우에는 각 장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목적을 세부적으로 조정 또는 추가하여 설정함.

- 오페라 창작산실의 경우, 사업목적의 강조점을 한국 오페라분야의 생태계 개선 및 강화에 두고 있음.
  - 우수한 창작오페라의 발굴과 유통을 지원하여 한국 오페라분야의 자생력 신장에 기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움.
- 음악 창작산실은 1)창작음악활성화와 2) 전속작곡가 제도 정착을 사업목표로

5) 뮤지컬 장르는 2014년 해당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된 이후부터'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독립되어 시행 중이기는 하나, 창작산실사업의 전신인 창작팩토리'사업의 첫 시행년도부터 지원대상 장르였고, 여전히 해당사업과 공통된 목적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사업'을 연구범위에 포함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설정하고, ‘오작교 프로젝트’[6]라는 사업명으로 지원사업을 시행중 임.

- 안정적으로 창작곡 발굴과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전속작곡가 제도’[7]를 도입하여 참여 작곡가와 오케스트라간의 공식화된 연계활동을 사업기간(2년) 동안 지원하고 있음.

–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은 ‘창작–제작–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창작뮤지컬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크게 1)작품창작 지원사업, 2)인력 육성 지원사업, 3)유통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하위 지원사업별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음.

- 창작뮤지컬 작품창작 지원사업: 1)공연제작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여 우수 레퍼토리 육성에 기여하고, 2)작품 제작 멘토링 및 공동 홍보 지원을 통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작품의 예술성 향상을 유도함.
- 창작뮤지컬 인력 육성 지원사업: 1)창작뮤지컬 소재를 함께 탐구하고 작법교육을 실시하여 차세대 창작인력육성을 지원하고, 2)기획·경영분야 교육을 통해 해당분야의 역량강화와 창의적인 기획인력을 육성하도록 함.
- 창작뮤지컬 유통 지원사업: 1)국내 창작뮤지컬의 해외진출방안 모색과 2)가능성 높은 작품을 선발, 작품개선 및 제작사 연결을 통해 레퍼토리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 창작산실 사업은 신진작가 발굴이 아닌 ‘창작작품’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음.

– 창작산실 사업의 전신인 ‘창작팩토리’ 사업은 그 시작과 함께 “공연예술 분야의 역량 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는 것을 취지로 발표하였음. 그러나 사업의 목표가 신진작가 발굴과 창작작품 지원이라는 다소 중의적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목표의 이해나 일관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 (‘2008

6) 오케스트라와 작곡가 교류활성화 프로젝트의 줄임말이며, 견우와 직녀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우리나라의 작곡가와 오케스트라 사이에 긴밀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이다. (출처: 2015 오작교사업 소개서, 기관내부자료)

7) 전속작곡가 제도의 개념: 작곡가가 특정 연주단체와 창작곡 연주 및 발표 조건, 활동지원사항 등에 대한 계약을 통해 본인의 창작활동을 진행하는 지원방식 (출처: 2015년도 창작산실 음악분야 지원사업 계획(안), 기관내부자료)

년도 창작팩토리 공모' 2008, 황순원 2009).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창작산실의 사업목표는 우수 창작작품을 발굴하여 공연 레파토리로 육성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신진작가 발굴 보다는 작품을 우선으로 지원하여 공연예술계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 창작산실 사업에는 신진작가뿐만 아니라 중견 작가도 지원 및 참가할 수 있으므로, 그 사업목표의 중점이 새롭게 창작된 '작품'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2-1> 창작산실 장르별 사업목적

장르	사업목적	
연극	· 우수 창작작품 발굴과 전략적 지원	
무용	·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 고취와 경쟁력 향상 · 공연제작 전 과정의 경쟁을 통한 단계별 지원으로 레퍼토리 육성	
오페라	· 우수 창작작품 발굴과 유통 지원 · 공연예술 전반과 동반발전 도모 · 오페라분야의 자생력과 역량 강화	
음악	· 오케스트라와 작곡가의 공식화된 연계활동 지원 · 안정적인 창작곡 발굴과 발표 환경 및 기반 마련	
뮤지컬	작품 창작 지원	· 공연제작 전 과정의 경쟁을 통한 단계별 지원으로 레퍼토리 육성 · 작품제작 멘토링 및 공동 홍보 지원을 통해 작품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및 작품의 예술성 향상 도모
	유통 지원	· 국내 창작작품의 해외진출 방안 모색 · 개선 가능성이 높은 작품의 재발굴을 통해 작품 업그레이드 및 제작사 매칭으로 작품 레퍼토리화 연계

자료: 2015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사업 추진계획(안), 2015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계획(안) (기관 내부자료)

□ 장르별 사업목적을 살펴본 바, 현재 창작산실의 사업목표는 다음 세 가지 개념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우수 창작 작품 발굴: 창작된 작품의 예술적 수월성(excellence)
- 경쟁을 통한 단계별 지원: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제작의 단계별 심사 후 지원을 시행하는 인큐베이팅 전략(incubating-based strategies)
- 창작의욕 고취와 경쟁력 향상: 창작 작품의 공연 레파토리 육성을 통한 공연예술분야의 활성화 및 자생력(sustainability) 증강

2) 창작산실의 심의기준 개관

□ 심의기준은 지원작품 선정의 기본적 틀인 만큼 창작산실의 사업목표와 지향점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동 사업이 중심으로 삼는 개념 및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비율을 배재하여 살펴본 전 예술분야 심의기준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요소는 다음 세 가지로 함축되어 나타남: '작품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공연작품의 예술성', '공연단체의 역량.'
- 연극과 뮤지컬분야에서는 특징적으로 '대중성'을, 오페라분야의 경우 '대본(음악)공모'시 '곡의 완성도'를 기준에 포함하고 있음.
- 음악분야는 '연주단체의 창작음악에 대한 관심'이라는 항목과 더불어 '오작교 프로젝트'의 주요목적을 반영한 '전속작곡가 운영계획의 실행가능성과 기대효과'를 심사기준에 포함하고 있음.

<표 2-2> 창작산실 장르별 심의기준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음악	
대본(음악) 공모	심의 기준	**예술성(40)**, 대중성(30), 무대화 가능성(30)	-	**곡의 완성도·예술성(70)**, 발전 가능성(30)	**예술성(40)**, 대중성(30), 무대화 가능성(30)	1차 서면심의	**전속작곡가 운영계획의 실행가능성과 기대효과(40)**, 작곡가: 작품의 예술성(30), 연주단체: 단체의 창작음악에 대한 관심과 수행역량(30)
시범 공연	심의 기준	**예술성·대중성·발전가능성(40)**,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실현가능성(30), 공연단체의 역량(30)	작품계획의 충실성·타당성(30), **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	작품계획의 충실성·타당성(30), **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	예술성(30), **대중성(40)**, 무대화 가능성(30)	2차 인터뷰 심의	
우수 공연	심의 기준	-	작품계획의 충실성·타당성(30), **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	작품계획의 충실성·타당성(30), **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	예술성(30), **대중성(40)**, 무대화 가능성(30)	1차년도 평가실시 2년차 지원 지속여부 결정	-
우수 재공연	심의 기준	**예술성·대중성·과거공연 성과(40)**,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발전가능성(30), 실현가능성·공연단체의 역량(30)	작품계획의 충실성·타당성(30), **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	작품계획의 충실성·타당성(30), **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	예술성(30), **대중성(40)**, 무대화 가능성(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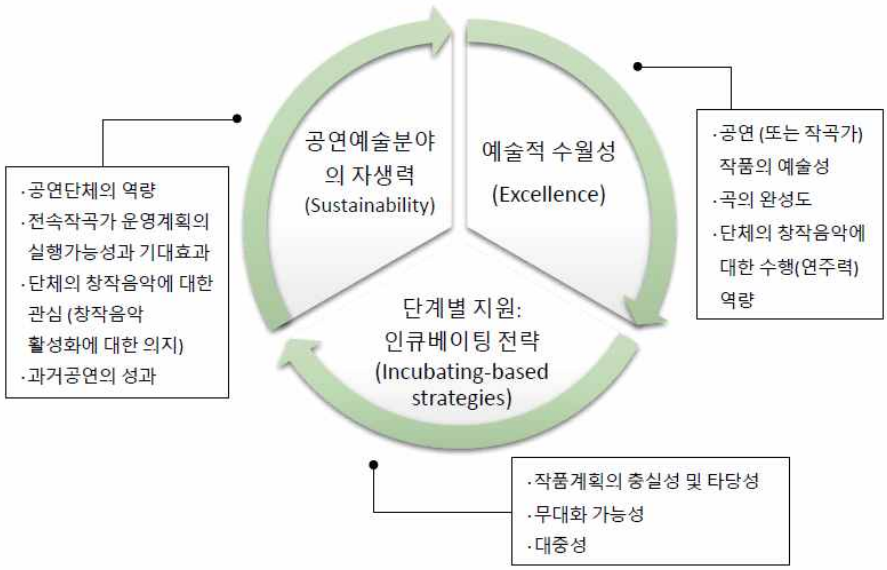
자료: 2014년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사업 성과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음악 지원 성과 및 향후계획(2015), 2015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계획(안) (기관내부자료)

3) 사업의 주요 개념

□ 사업의 주요개념은 창작산실 사업목적[8]과 심사기준[9]을 근거로 하여 도출함.

□ 창작산실의 사업목표에 나타난 주요개념과 그것을 반영한 개별 심의기준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그림 2-1] 창작산실 주요 개념 및 가치



□ 예술적 수월성(excellence): 수월성(artistic excellence)

- 예술적 수월성(artistic excellence)의 경우, 작품 또는 시연주체의 예술적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에 그 개념이 연관되어 있음.
  - 예술적 수월성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분야의 동료 예술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방법(peer review process)을 채택하는 경우, 예술적 수월

8)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의 경우, 창작산실사업의 주요목적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작품창작 지원사업'과 '유통지원사업'사업목적을 포함 하였다.

9) 심의기준의 경우에는 관련성을 고려하여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의'작품창작 지원사업'부문을 포함 하였다.

성의 정의가 과거 고급문화에 존속되어 있는 창의적 또는 예술적 기술을 넘어선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게 됨. (Wyszomirski 2013)

- 작곡가와 그 곡을 시연하는 주체인 오케스트라 단체의 협력을 주요로 하는 '오작교 프로젝트'(음악 창작산실)은 작품자체의 예술성과 더불어 시연주체의 예술적 역량 또한 평가항목에 포함한 것은 다른 장르와 차별화 된 점으로 나타남.

□ 단계별 지원: 인큐베이팅 전략(incubating-based strategies)

- 작품 창작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완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심사를 통해 선별된 작품의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것(예: 시범공연 지원, 우수공연 제작지원)은 창작작품의 완성을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인큐베이팅(incubating) 개념이 창작산실사업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음. (김승미 2012, 최윤우 2013)
- '인큐베이팅'이라는 개념은 창작산실 사업에서 나타나는 것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s): The National Business Incubator Association(전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협회, 이하 NBIA)가 내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정의는 신생 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시작하는 단계(the start-up period)에서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고 양육하는 것. (NBIA 2013, Essig 2014, 170 재인용)
  - 위의 기업적 개념이 예술계로 넘어와 새롭게 정의된 것은 다음과 같음. 예술 인큐베이터(arts incubators)란 예술가나 예술단체(영리 또는 비영리단체)가 그들의 비즈니스와 예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우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을 지칭함. (The Polish Art Inkubator 2013, Essig 2014, 171 재인용)
  - 이와 같은 포괄적인 예술 인큐베이터(arts incubator)의 정의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예술 인큐베이팅(arts incubating)을 반영한 것임. 그 다양성의 범위는 예술가 개인부터, 영리, 비영리 단체까지 그 대상과 단체의

재정적 활성화와 자립도 증강부터, 예술가의 전문성 개발까지 인큐베이팅 사업의 목적에도 폭넓게 나타남. (Essig 2014)

- 창작산실은 인큐베이팅 개념에 근거한 (즉, incubating-based) 지원방법을 사업에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앞서 사업의 목적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창작산실사업은 예술가보다 창작작품 자체에 지원의 초점을 두고 있음.
  - 초기의 예술적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예술인큐베이팅(arts incubating)의 주축개념과 유사하나 그 대상이 '작품'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창작작품에 대한 단계별 지원에 있어 작품의 '무대화 가능성'과 '작품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이라는 항목을 통해 참여 작품들의 완성을 향한 과정을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음.
  - 연극과 뮤지컬 장르의 심의기준 중, '대중성' 항목은 창작산실사업의 전신인 '창작팩토리' 사업의 초기 심의기준에 포함됨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나(최윤우 2013), 작품의 레퍼토리화와 관련된 심의기준으로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음(직원 인터뷰 2015).

□ 공연예술분야의 자생력(sustainability)

- 창작작품의 레퍼토리화를 유도 및 장려하여 간접적이나마 공연예술분야의 생태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동력의 기반마련을 돕는 창작산실의 주요한 사업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오작교 프로젝트'(음악 창작산실)에서 '단체의 창작음악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단체의 창작음악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향후 음악분야의 창작작품의 꾸준한 공급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비슷한 맥락에서, 합의된 단체별 전속작곡가 운영프로그램이 얼마나 창작음

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은 향후 그와 같은 프로그램의 음악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여짐.

- '공연단체의 역량'과 '과거공연의 성과'가 우수 재공연의 심사기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현재 공연단체의 역량과 과거 잠재력을 보여 주었던 공연활동을 참고하여 선택된 사업의 수혜단체에게 향후 창작작품의 지속적인 기획, 제작, 또는 유통을 통한 공연예술분야 자생력에의 기여를 유도 및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사업의 제도적 변천 및 거버넌스 변화

1) 사업의 제도적 변천

□ 공연예술 창작산실 사업의 전신 '창작팩토리'

- 2008년 당시 새정부 문화예술지원정책 발표 후,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의 지원 원칙에 따라 같은 해에 '창작팩토리'라는 사업명으로 공연예술지원사업이 시작됨.
- 기존의 정부예산주기에 맞추어 실시되던 단년도 사업 계획에서 벗어나 중장기 지원방식으로 설계 됨.
- 그러나 첫 시행년도에는 단계별 지원을 실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음.
  - 첫 시행년도에 첫 단계만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총 네 단계를 개별적으로 동시에 공모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음. 따라서 구조적으로 순차적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09년도부터 각 단계의 유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같은 해 대본공모에서 선정된 작품에 2010년 시범공연 지원 또는 우수작품 제작지원 후보 자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 해인 2011년에는 우수작품 재공연 후보에 올리면서 선정된 창작작품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할 수 있었음.

□ 주관 기관의 변천: ‘창작팩토리’부터 ‘창작산실’까지

- ‘창작팩토리’ 사업의 첫 2년 동안은 전국문예회관연합회(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주최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사업 3년 차인 2010년부터는 장르별로 각기 다른 주관처가 담당하게 됨.
  - 연극분야는 명동예술극장으로, 뮤지컬분야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우리금융아트홀로 이관됨. (<표 2-3> 참조)
  - 뮤지컬 분야는 이듬해인 2011년부터 명동예술극장이 사업을 우리금융아트홀로부터 이어받아 연극과 함께 통합하여 시행함.
- 2013년 사업명이 ‘창작팩토리’에서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으로 변환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
- 2014년부터는 장르별로 흩어져 있던 사업 주관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통합·이관 되어 사업이 실행되고 있음.
  - 단, 연극분야는 예외적으로 예술위원회로의 이관 첫 해인 2014년도에 한시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교부”하여 명동예술극장이 사업을 이어 진행하고, 2015년도부터 예술위원회에서 사업을 맡아 직접 실행함 (직원 인터뷰 2015).
  - 뮤지컬의 경우, 예술위원회로 이관되었으나 창작산실사업이 아닌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으로 독립되어 운영.
- 사업의 주관기관이 문화예술위원회로 옮겨지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사업비의 출처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변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표 2-3> 창작산실사업의 주관기관 및 지원대상분야 변천[1)]

<table>
<tr><td>사업명</td><td colspan="6">창작팩토리</td><td colspan="2">창작산실</td></tr>
<tr><td>주관기관</td><td colspan="2">전국문예회관연합회
(현 한국문화예술
회관 연합회)</td><td colspan="4">명동예술극장(연극·뮤지컬)
우리금융아트홀(뮤지컬, 2010 년도)
국립오페라단(오페라)
국립발레단(발레)
국립현대무용단(현대무용)
전통무용진흥재단(한국무용)</td><td colspan="2">한국문화예술위원회</td></tr>
<tr><td>연도</td><td>2008</td><td>2009</td><td>2010</td><td>2011</td><td>2012</td><td>2013</td><td>2014</td><td>현재</td></tr>
<tr><td>연극</td><td colspan="6"></td><td>명동예술극장</td><td>실질적 이관</td></tr>
<tr><td>뮤지컬</td><td colspan="2"></td><td>아트홀</td><td colspan="3">명동예술극장으로 이관</td><td colspan="2">창작뮤지컬육성지원사업(독립)</td></tr>
<tr><td>발레</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 rowspan="3">무용(통합)</td></tr>
<tr><td>현대무용</td><td colspan="3"></td><td colspan="2"></td><td></td></tr>
<tr><td>한국무용</td><td colspan="3"></td><td colspan="2"></td><td></td></tr>
<tr><td>오페라</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음악</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able>

비고: 표의 색칠부분은 각 장르별 창작산실사업(전 창작팩토리)에의 지원대상 시기를 나타냄.

□ 지원 공연예술장르의 확대

- 2008년도에 연극과 뮤지컬 두 장르로 시작했던 '창작산실' 지원사업이 현재는 연극, 무용, 오페라, 음악산실, 그리고 뮤지컬창작육성 지원 사업까지 포함하여 총 5개 분야로 확대개편 되었음.
  - 2010년 오페라분야가 신설되었고 그 해부터 예술위원회로의 이관 전까지 국립오페라단이 주관하여 사업을 실행함.
  - 발레는 2011년부터 신설되었고[10)], 현대무용의 경우에는 2013년 6월에, 이어 한국무용은 같은 년도 9월에 신설됨 (직원 인터뷰 2015).
  -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은 2014년 예술위원회로 사업이관과 함께 무용산실로 통합되어 운영됨.
  - 음악부분은 2014년 신설되어 '오작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음.

10) 타 게재논문(김승미 2012)에는 창작발레가 2012년에 신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발레분야의 대본과 음악공모가 2011.11.01 ~ 2012.04.20에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삼아 신설년도를 2011년으로 봄.

2) 사업 운영체계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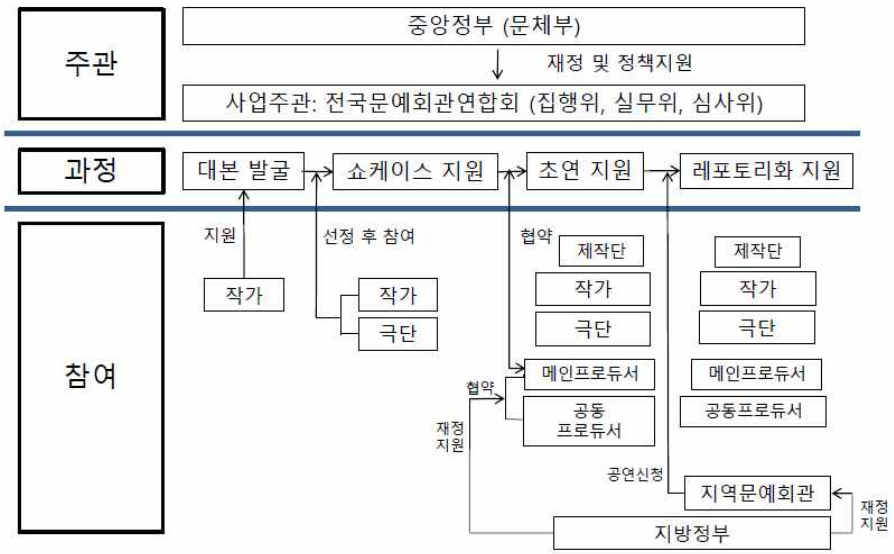
□ 사업의 제도적 변천에 따라 창작산실사업은 크게 4기로 나누어 그 운영체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음: 창작팩토리 제1기(2008-2009년), 창작팩토리 제2기(2010-2012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과도기(2013), 공연예술 창작산실 (2014-현재)

- 여기서는 당시 창작팩토리 사업의 운영구조와 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예술위원회로의 이관 이후 창작산실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절인 '제 2절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현황'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함.

□ 창작팩토리: 2008-2009년[11)]

- 2008년은 사업시행의 첫 해로 연극과 뮤지컬 분야를 시범으로 운영함.

[그림 2-2] 사업 초기 '창작팩토리 프로세스' 구상



출처: '창작팩토리 제도의 이해'이승엽 (2008.10.3), '국내 공연유통 활성화 토론회'발표자료.

11) "2008년도 창작팩토리 공모"(전국문예회관연합회 2008)와 "중기지원방식 도입과 문예회관 협업,"(2008.11.05), "창작개박 지원은 긍정적 (현장리뷰 2008 창작팩토리 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토론회)"(2009.4.22) weekly@예술경영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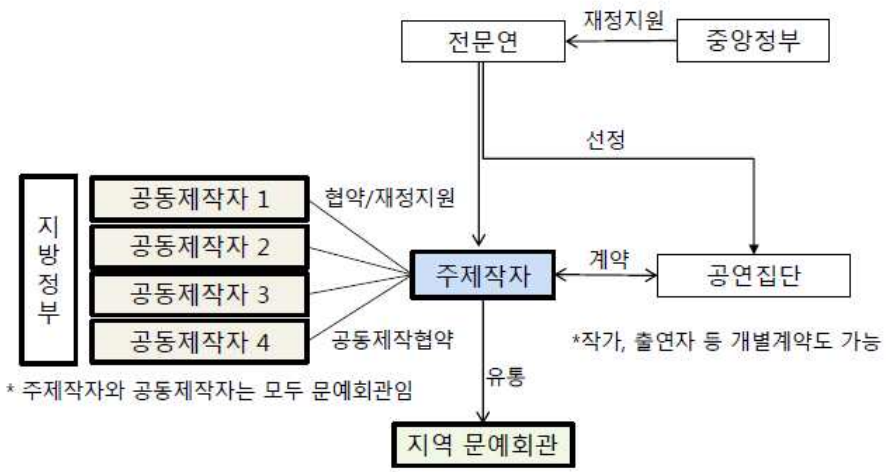
- 단계별 지원방식을 채택하여 기존의 단년사업계획에서 벗어난 다년도 지원(또는 '중기지원')으로 사업을 설계 및 운영함.
  - 사업의 출발 당시 "2008 The Incubation for Performing Art"라는 슬로건을 사업 타이틀 앞에 내걸면서 작품에 대한 예술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1)대본공모, 2)시범공연지원(쇼케이스), 3)작품제작지원(우수작품제작지원 – 그림의 '초연지원'과 같은 단계 지칭), 4)재공연지원의 네 단계 지원과정의 구성은 2008년 사업의 시범운영 첫 해부터 현재 창작산실사업으로의 변화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08년에는 시범사업의 첫 해로 단계별 지원과정 없이 각 단계의 개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시행함.
  - 그러나 사업시행 2년 차인 2009년부터는 대본공모의 선정작이 시범공연지원 대상이 되고, 우수작품 제작지원을 받은 창작작품이 재공연지원의 대상이 됨.
- 대본과 음악공모를 통해 새로운 창작작품발굴 뿐만 아니라 작가·작곡가 등 창작자 발굴에 대한 기대도 있었음.
  - 연극의 '희곡 부문'은 미발표된 창작희곡을, 뮤지컬 '대본&음악 부문'[12]에서는 저작권에 저촉되는 않는 소설, 신화, 영화 등의 원작 각색을 포함한 신작 대본과 원곡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된 음악을 포함하여 5곡 이상(악보, 반주 및 보컬 포함한 CD제출)을 제출물의 기준으로 지정하였음.
  - 대본과 음악공모의 지원자격에 있어서는 개인 또는 팀(작사와 작곡가로 이루어진)의 형태에 있어서나 기성 또는 신인의 차이에 대하여 구분을 적용하지 않았음. 즉, 신진작가발굴은 사업의 목적이 아니었음.
  - 새로운 창작작품의 생산을 돕는 창작환경을 동 지원사업을 통해 형성함으로 창작자 발굴을 기대했던 것은 사업의 간접적인 영향 또는 spillover effect를

12) 대본심사단계에서 연극분야는 희곡을 심사하고, 뮤지컬분야는 대본과 음악을 모두 심사에 포함하였음.

기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대본공모’의 수상작은 다음단계인 2009년 하반기 시범공연 참여 기회와 시범공연 준비를 위한 비용지원혜택을 받음.
- 시범공연(쇼케이스)은 다음 단계인 공연제작지원을 받게 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도 겸하고 있었는데, 이 심사과정에 공연관련 전문가 및 제작자, 그리고 문예회관 관계자와 관객이 참여하도록 계획·구성함.
  - 시범공연 준비과정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및 공연장 관계자, 제작자 외에도 관객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획하였는데, 당시 이것을 창작팩토리 사업의 차별된 점으로 그 의미를 두었음.
  - 시범공연 제작지원 대상작은 서류와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 후 한 달간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음.
  - 시범공연 제작비 지원의 의미 중 하나는 해당지원을 통해 제작구상 단계에 있는 창작작품을 공연으로 실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임.
  - 시범공연을 통한 제작지원 심사는 서류로만 이루어지던 심사과정의 한계를 심사위원들이 부분적이나마 작품을 직접 접하도록 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
- 시범공연(쇼케이스) 제작지원 공모의 ‘공연되지 않은 창작 연극 및 뮤지컬’이라는 지원자격의 모호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2008 창작팩토리 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토론회).
  - ‘공연되지 않은 창작 연극 및 뮤지컬’이라는 항목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공모 이전에 자체적으로 시범공연을 가졌던 작품이 선정되었다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음.
  - 또한 시범공연이 제작지원 심사를 겸하는 만큼 공정성을 위해 명확한 기술조건이나 작품의 축약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가 제기 되었음.

[그림 2-3] 우수작품 제작지원과 레파토리화를 위한 공동제작 구조



출처: '창작팩토리 제도의 이해' 이승엽 (2008.10.3), '국내 공연유통 활성화 토론회' 발표자료.

- 문예회관이 작품 제작지원, 재공연, 유통의 과정에 참여함.
  - 전국문예회관연합회(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최로 사업이 시행되었던 이 시기에는 지방 문예회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수작품의 공연을 반복하여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이것이 작품의 레퍼토리화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
  - 문예회관의 적극적인 공동 제작 참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의 목적은 제작단체로 하여금 문예회관과 공동제작의 파트너로 협업을 가능케 하여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설립하고, 창작작품 중 우수한 공연은 재공연의 기회를 제공하여 레파토리화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음.
  - 첫 해의 재공연 심사는 2008년도 발표된 작품 중 작품성, 발전가능성, 흥행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레파토리를 선정하고 2009년 2월까지 지역 문예회관에서의 공연기회를 부여하였음.
- 정책적 지원을 통해 문예회관을 메인 또는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 실제로는 간극이 큰 계획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소홍삼, 2008 창작팩토리 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토론회).

- 첫 해의 시범공연을 통해 문예회관을 적극적인 파트너로 삼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음을 발견하였음.
- 또한 참여 예술단체와 문예회관 간의 긴밀한 협업의 필요성이 대두됨.

<표 2-4> 2008-2009년 창작팩토리 선정작 지원금액

	대본 (& 음악) 공모	시범공연(쇼케이스) 제작지원	우수작품지원 지원금
연극	최우수작 (1 편): 2 천만원 우수작 (2 편): 각 1 천만원	편당 제작비 300 만원 (6 편 선정)	최우수작 (1 작품): 6 천만원 우수작 (2 작품): 각 4 천만원
뮤지컬	최우수작 (1 편): 2 천만원, 우수작 (2 편): 각 1 천만원	편당 제작비 500 만원 (6 편 선정)	최우수작 (1 작품): 1 억원 우수작 (2 작품): 각 6 천만원

자료: "2008년도 창작팩토리 공모"(전국문예회관연합회 2008)

- 대본(&음악)공모와 시범공연(쇼케이스) 서류심사 시에 요구되는 제출서류는 각각 다음과 같음.
  - 희곡 및 뮤지컬 대본&음악 공모 시: 공연시간 1시간 30분 이상 분량의 미발표된 창작 희곡 또는 창작뮤지컬 대본(뮤지컬의 경우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소설, 신화, 영화 등의 원작 각색도 가능), 뮤지컬부문 공모의 경우 5곡 이상의 악보 및 반주 및 보컬 포함된 음악 녹음 CD(원곡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된 음악도 가능, 대본극 순서에 맞게 배열)
  - 시범공연(쇼케이스) 제작지원 공모 시: 공모신청서, 제작계획서, 트리트먼트(줄거리, 등장인물, 막/장 구분) 각 1부. 뮤지컬 분야의 경우, 악보 및 음악이 녹음된 CD(10곡 이상, 보컬 및 반주 포함) 1부 추가 제출.
- 지원을 받아 시범공연을 올린 참가작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연극 3편, 뮤지컬 3편의 작품은 우수공연제작지원의 기회를 얻음.
  - 대본(& 음악)공모에서 분야별로 각 3편씩 선정되는 데에 반해 시범공연제작

지원을 6편 선정한다는 것은 대본공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범공연단계에 공모하여 시범공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을 가리킴.

<표 2-5> 창작팩토리 초기 사업운영내용

사업 구분	단계별 절차	내용
대본 공모	공모 공고	– 희곡 및 뮤지컬 대본 공모를 통해 역량있는 작가 발굴 및 창작 의욕 고취 – 선정작은 상금 및 차년도 시범공연 기회 제공
	접수 마감	
	심사 및 발표	
시범공연(쇼케이스) 지원	공모 공고	– 미발표된 순수 창작 연극 및 뮤지컬 공모하여 시범공연 제작비 및 시연회 개최 – 창작 및 투자유치기반 조성, 시장 저변 확대 – 시범공연작 중 제작지원 작품 선정
	사업홍보 워크숍	
	접수 마감	
	심사 및 발표	
	시범공연 시연회	
작품제작지원	제작지원 선정작 발표	– 창작 연극 및 뮤지컬 시범공연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창작 연극 및 뮤지컬 공연 제작 지원하고 제작 워크숍을 통해 국·공립 공연장 및 제작사, 투자사 등과 연계 추진 – 직품성 및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지원 – 공동제작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제작지원금 지급
	제작워크숍 및 지원금지급	
재연공연 지원	작품 추천	– 창작 연극 및 뮤지컬 중 우수하다고 평가(작품성 및 발전가능성, 흥행성적, 각종 어워즈 수상작 등)된 작품을 선정, 지속적으로 공연될 수 있도록 재공연 지원 (※2009년부터는 우수작품 제작 지원 사업과 연계추진) – 공연 재연을 통한 레퍼토리화 지원 – 재공연 기회 제공(공연료지원 및 공연지역 배정)
	작품선정	
	재공연 지원	

자료: "2008년도 창작팩토리 공모"(전국문예회관연합회 2008)

□ 창작팩토리: 2010-2012년[13]

– 당시 창작팩토리 사업이 사업 3년차인 2010년을 맞아 변화한 것 중 가장 큰 부분은 사업운영의 주최기관이 바뀐 것임.

• 전국문예회관연합회(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연극부문은 명동예

13) 참고자료: '2010 창작팩토리: 창작팩토리 전문연에서 제작극장으로 이관'(Weekly@예술경영, 2010.06.23)

술극장으로, 뮤지컬분야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운영하는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이관됨.

- 그러나 1년 후 뮤지컬 분야는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명동예술극장으로 사업주관처가 다시 한 번 이전됨.
- 당시 사업운영기관이 이관된 것에 대한 이유 중 하나로 꼽은 것은 사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창작자들이 지역문예회관과의 협업을 거쳐 지역에서 초연을 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들고 있음.
-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공연장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사업을 통해 발굴된 창작작품과 아이디어가 관객 앞에서 실연될 수 있는 공간을 기본적으로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 제작기능을 갖춘 극장이 사업을 주관하여 개인 창작자나 소규모 공연단체 등 프로덕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창작가에게는 프로덕션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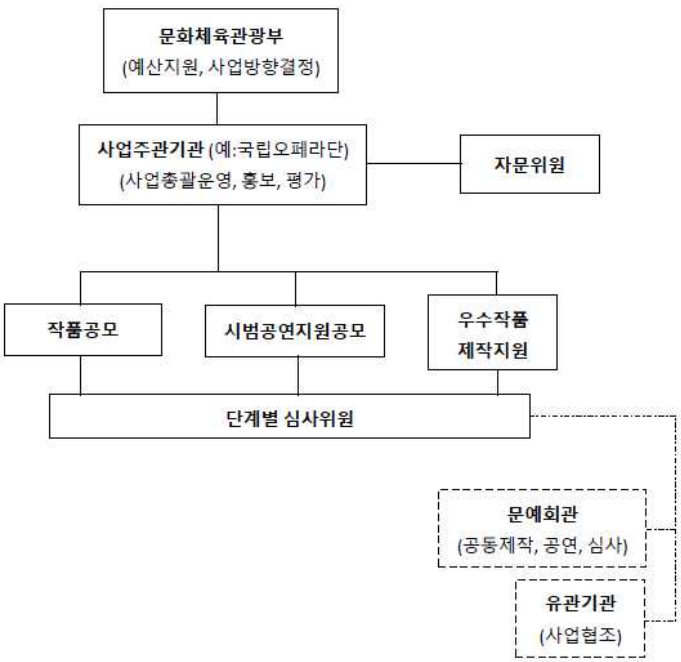
[그림 2-4] 2010 창작팩토리 사업 운영체계

출처: '2010 창작팩토리: 전문연에서 제작극장으로 이관'(weekly@예술경영, 2010.06.23)

– 2010년 사업 운영체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선정작품에 대한 지원금의 변화임.

• 선정된 작품의 우수작·최우수작 차등지원이 사라진 것에 더하여 시범공연 제작지원금이 장르별 각 300만원(연극), 500만원(뮤지컬)에서 각 2천만원(연극), 3천만원(뮤지컬)로 대폭 상승하였음.

[그림 2-5] 2011-2012 창작팩토리 사업 운영체계



자료: 2011 창작오페라 우수작품 공모 안내서, 2012년 국립오페라단 창작팩토리 사업 결과 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 점선 부분은 2011년도에는 포함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사라진 것을 나타냄.

– 축소된 지역 문예회관의 역할

• 사업 초기에는 주제작자·공동제작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레퍼토리 공연을 유치하도록 설계되었던 문예회관의 역할(이승엽 2008)이 2010년 사업 주관

처의 변화와 함께 우수재공연 선정작의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참여로 축소되면서 창작팩토리 사업과 문예회관 간의 느슨해진 파트너쉽을 나타냄.

- 창작팩토리 오페라 분야의 2011년도, 2012년도 사업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단계별 심사(시범공연, 우수공연, 재공연)에 참여하던 문예회관의 역할이 2012년도에는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음.
- 창작팩토리 초기 심사위원의 구성은 전문심사위원과 문예회관실무자의 개별채점을 통합하여 산정하는 방식이었음.

□ 공연예술 창작산실 과도기: 2013년

- 이 시기에는 사업의 명칭이 '창작팩토리'에서 '공연예술 창작산실'로 바뀐 첫 해이기는 하나, 사업의 운영체계나 주관기관의 변화는 크게 없었음.
- 2013년에는 추가적으로 현대무용분야(6월)와 고전무용분야(9월)가 잇따라 신설되었고 (직원 인터뷰 2015), 현대무용은 국립현대무용단이 고전무용은 전통무용진흥재단이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사업이 전체이관되기 전까지 운영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음.

<표 2-6> 2008-2013년 창작산실사업(전 창작팩토리) 추진내역

(단위: 백만원)

분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연극	16	277	14	483	14	489	13	320	14	405	22	885
뮤지컬	13	323	13	450	14	529	12	345	10	395	16	730
오페라	-	-	-	-	6	520	7	410	7	430	5	465
발레	-	-	-	-	-	-	11	440	12	430	10	480
합계	29	700	27	933	34	1,438	43	1,515	43	1,660	53	2,560

출처: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14, p.362)

□ 창작팩토리(2008-2012)와 창작산실사업(2013)의 국고지원액은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냄.

- 2013년 총 지원액은 2012년 총 지원액에서 54.21% 증가한 25억 6천만원으로 나타남.

□ 공연예술 창작산실: 2014년-현재

- 창작산실사업이 2014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되어 현재의 운영체계와 구성으로 변모하기 시작함.
- '2015년도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방향' 발표를 통해 예술위원회는 창작산실사업과 창작 뮤지컬 육성사업을 통해 작품의 창작에서 해외진출까지 단계적, 지속적 지원 전개를 확인시킴.
- 예술위원회로 이관 후, 사업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사업기금의 출처가 국고예산(문체부)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전환된 것임.
- 사업 운영방식의 전반적 큰 구성은 예술위원회로의 이관 후에도 이전의 것을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냄.
  - 특히 연극산실의 경우, 전체사업이 예술위원회로 이관된 2014년 첫 해에도 명동예술극장[14]이 계속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2015년이 예술위원회에서 연극분야 사업을 운영한 첫 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신설한 장르(음악)와 새롭게 독립한 분야(뮤지컬)를 포함하여 장르별 사업의 변화가 꾸준히 있어옴.
- 신설된 음악산실, 즉, '오작교 프로젝트'는 기존의 타 장르에서 나타내는 지원운영의 구조를 따르는 동시에 세부적으로는 한국 음악계와 클래식 음악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운영함.
  - 사업의 주관은 '기초공연예술활성화추진단'에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예산의 일부로 민간경상보조액(전체 예산의 1% 미만)이 포함되어 있음.
  - 오작교 프로젝트는 전국의 국·공립/민간 오케스트라(국악관현악단, 체임버/윈드 오케스트라 포함)가 각 악단의 음악적 지향점과 활동비전에 부합하는 작곡가를 자체적으로 단체 당 2명씩(단, 2명 중 1명은 반드시 45세 이하 작곡가) 선정하여 특색 있는 연주 레퍼토리 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

14) 20억을 민간경상보조액으로 교부하여 명동예술극장이 2014년도 연극산실 사업을 시행함 (직원 인터뷰, 2015.10.16)

- 예술위원회는 전속작곡가 제도 운영에 대한 기본 지침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각 오케스트라와 작곡가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작성된 자체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운영하여 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함.
- 3차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그림 2-6]. 창작산실사업 추진절차 참조).
- 2년간 지원으로 설계되어 있는 오작교 프로젝트는 지원 첫 해의 연간 전속작곡가 운영 실태를 심층 평가하여 성과별로 차년도 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원금을 조정하는 등 사업성과에 대한 지원에 차등을 둠.
- 2014년 11월 '제1회 낙선포럼 Off the Record'를 개최하여 사업에 신청했으나 탈락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떨어진 이유, 사업 공고문 해석 등 다양한 토론을 통해 지원정책과 예술현장 사이의 간극을 매우기 위한 시도를 선보임.

– 음악산실은 추가적으로 다년 지원사업인 '오작교 프로젝트' 외에 단년 지원사업으로 '창작음악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행함.
  - 당초 오작교 프로젝트에 최종 5팀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선정팀 외 지원신청팀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높은 효과가 기대되는 우수 기획사업 3건을 추가로 선정하여 '창작음악 활성화 기회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각 3천만원씩 별도 지원함.

– 무용산실의 경우, 예술위원회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의 세부장르가 통합되는 대신 작품의 규모에 따라 중극장·소극장으로 분류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림 2-6] 창작산실사업 추진 절차

출처: 2014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사업 성과보고서 (기관내부자료)

- 창작뮤지컬 육성지원사업은 기존의 뮤지컬 창작산실과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을 통합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음.
  - 창작뮤지컬 육성지원사업은 크게 '작품제작지원 사업'과 '창작인력 육성 지원사업: 아르코 창작 아카데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작품제작지원 사업이 공연예술 창작산실사업의 뮤지컬 분야와 창작뮤

지컬 육성 지원사업을[15] 통합하여 단계별 지원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창작뮤지컬의 레퍼토리화 육성을 도모하는 것임.

- 공연예술 장르 중 산업화의 가능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뮤지컬 분야와 순수예술의 특성을 보이는 타 분야 창작산실사업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장르의 특성을 반영한 주관 기관의 결정으로 이해됨.

– 2015년도부터 창작뮤지컬 육성지원사업은 청소년 뮤지컬 제작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함.

15)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은 창작뮤지컬의 경쟁력 및 산업화를 위하여 2012년 문화부가 신설·지원하였고, (사)한국뮤지컬협회가 주관·운영함. 우수 창작뮤지컬 재공연과 우수 창작뮤지컬 해외공연 지원 두 세부산업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음. 이 사업의 지원규모는 30억원 정도로 계획되어 편당 최대 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음 (2012년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계획 발표'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제2절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현황

1. 사업규모 및 지원현황

1) 사업의 규모

□ 사업규모는 지원대상이 되는 장르의 확대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도 지속적인 확대를 나타내고 있음.

- 뮤지컬 분야의 예산을 제외한 2015년 창작산실사업 총 예산은 50억 원임.
  - 장르별로는 연극은 20억 원, 무용은 14억 원, 오페라는 10억 원, 음악은 6억 원을 예산으로 책정 함.
-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의 2015년 예산은 총 60억 원임.
  - 이는 2014년도의 총 예산 50억 원에서 20% 증가한 금액임.

□ 다음 표는 공연예술 창작산실과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사업의 단계별 지원내용을 장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임.

<표 2-7> 2015년 창작산실 단계 및 장르별 지원내용

	대본/음악 공모	시범공연 지원공모	우수작품 제작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연극	• 최우수 1작품 : 5천만원 • 우수 4작품 : 2천만원	• 15작품 : 각 1천만원 • 전년도 대본공모 선정작 5작품 • 당해 연도 시범공모 선정작 10개 작품	• 10작품 : 각 1억원 지원 • 전년도 대본공모 선정작 최대 5개 작품 선정 • 당해 연도 시범공연지원 공모 선정작 중 최소 5개작품 선정	• 3작품 : 각 1억원 • 역대 선정작 중 공연된 작품 중 2016년 2월 내에 공연이 가능한 예술단체

무용	–	• 최대 20개 작품 선정 • 대극장:용 6–8작품: 각 1천5백만원 • 소극장: 용10–12작품: 각 1천만원	• 최대 10개 작품 선정 • 대극장용 3–4작품: 각 6천만원 • 소극장용 4–6작품: 각 3천만원	• 기존 우수작품 선정작 중 최대 4개 단체 선정 • 작품당 최소 4천만원–최대 7천만원 지원
오페라	–	• 총 4개 작품 : 각 2천만원	• 1개 작품 : 3억원	• 기존 우수작품 선정작 중 2작품 선정 • 지원금액은 작품규모와 발전가능성에 따라 결정
뮤지컬	• 최우수 1작품: 5천 만원 • 우수 4작품: 각 2천 5백만원 • 차년도 시범공연 지원 • 선정작품 수: 15작품 내외	• 일반부문 4건내외, 청소년부문 4건 내외 • 시범공연 제작비 각 2천만원 •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전년도 대본공모 선정작 외 추가 공모	• 10작품 내외: 각 1억 5천만원 • 공연장대관 지원 • 전문가 멘토링 • 홍보지원	• 6작품 내외: 각 2–3억원
음악	<오작교 프로젝트> • 오케스트라: 공연 지원금 각 6천만원 • 작곡가: 연간 창작 활동비 각 1천만원 (5건 – 총 오케스트라 5단체, 작곡가 10명 선정) <창작음악 활성화 프로젝트> • 팀별 각 3전만원			

자료: 2014년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사업 성과보고서, 2015년도 창작뮤지컬 작품창작 지원사업 계획(안). (기관내부자료)

※ 창작음악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운영방식에 따라 분할 지급 가능

□ 사업의 지원 내용

– 사업의 지원금 즉, 공연제작 지원금 외에도 공연장대관 지원 및 홍보 지원 등 당선된 주체에게 실연에 필요한 기타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연극(우수작품), 무용(우수작품), 오페라(시범공연 및 우수작품), 뮤지컬(우수작품)에 있어 공연장대관 및 홍보,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제공 함(무용산실은 추가로 네트워킹 지원도 시행).

• 무용 우수작품과 오페라 시범공연 및 우수작품에 대하여 프로모션 책자와

동영상 제작지원을 시행함.

- 오작교 프로젝트의 기재된 지원비 사용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오케스트라: 악기 임대, 홍보 및 마케팅, 객원 연주자 출연료 등 창작곡이 포함된 연주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 작곡가: 자료구입비, 국내외 음악관련 행사 참가비 등 창작/개작과 관련된 직접경비.
- 공연예술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사업의 지원금은 부분 지원임. 예를 들어, 연극산실의 경우 총 공연제작비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 예산으로 투입해야 함(2014년 문예진흥기금 성과보고서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연극' 기관내부자료).

□ 지원 관련 주요 개선점 및 변화

- 시범공연 지원일정에 대하여 공고기간을 늘여서 사업준비기간을 확보함.
- 기한 내에 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우수작품 재공연 접수기간을 2개월 앞당김.
- 연극분야의 중극장, 소극장 구분지원의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2015년도에는 구분을 두지 않고 지원하도록 개선하였고, 재공연 지원금을 9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
  - 2014년에 우수작품지원으로 소극장은 9천만 원, 중극장은 1억1천만 원을 지원했던 것을 2015년부터는 구분 없이 각 1억 원씩 지급.
- 무용분야는 규모별 지원금 금액의 차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극장/소극장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을 지속함.
  - 우수작품 제작지원의 소극장 금액을 2014년 2천만 원에서 2015년 3천만 원으로 증액.
- 오페라부분의 경우, 2014년도에 소극장 지원신청이 1건 밖에 못 미치는 등의 이유로 2015년부터 대극장/소극장 분류 대신 신청 사업성격과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을 선정하도록 함.

- 오페라의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 대상을 기존 창작산실 지원사업 참여작에서 국내 모든 창작작품으로 확대함.
- 2015년도부터 시행된 뮤지컬 지원내용 개선방안
  - 단계별 지원(대본, 시범공연, 우수공연, 재공연)의 연속성 강화
  - 제작과정 멘토링을 통한 예술성 및 기획력 향상
  - 우수작품 선정작의 공동 홍보 지원을 통한 유통 지원 강화

□ 창작작품을 지원함과 동시에 창작소재 발굴을 위한 특강과 공연기획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초기의 창작 단계부터 탄탄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기획인력 풀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함(이한신, 웹진 아르코 2015.1.19).

- 오페라 창작산실은 단계별 지원과 병행하여 '아르코 창작 아카데미-오페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아르코 창작아카데미'는 '창작뮤지컬 인력 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뮤지컬 분야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됨.
  - 기존 오페라 창작산실의 작품 공모(대본 및 음악) 선정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2013년도에 위촉사업(대본)을 신규 추진했으나, 위촉 공모 작품 심의 대상 역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선정작을 내지 못하였음.
  - 이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본가와 작곡가에 대한 체계적인 오페라 특화 교육과 대본가·작곡가 침의 협업을 통한 우수 창작 오페라 창작 아카데미 사업 추진의 필요를 발견함.
  - '아르코 창작 아카데미-오페라'는 총 2년 과정으로 교육과정과 작품창작·발표·제작과정을 포괄하고 있음(교육 과정: 소재탐구 → 심화과정 → 창작과정·멘토링 및 특강 → 작품발표 워크숍 → 작품제작).
  - 희곡 대본작가 5명과 작곡가 5명을 선정하여 매칭함으로 총 5개팀을 구성하

여 오페라에 특화된 교육을 9개월 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우수오페라 작품을 발굴하고자 함(참가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창작뮤지컬 인력 육성지원’ 사업은 ‘아르코 창작아카데미-뮤지컬’ 외에도 ‘뮤지컬 기획인력 육성지원’과 ‘신진인력 육성지원’을 함께 시행함.
  - 아르코 창작아카데미가 예술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반면, ‘뮤지컬 기획인력 육성지원’은 (사)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신진인력 육성지원’은 (사)대규뮤지컬페스티벌이 주관함.
  - ‘뮤지컬 기획인력 육성지원’은 뮤지컬 기획경영 분야 종사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교육과 현장관련 경력개발을 위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공하는 K-musical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됨.
  - 2015년에 시작한 ‘신진인력 육성지원’은 신진 뮤지컬창작인력 육성을 서울·경기권 이외 지역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작품 창작 또는 상업공연 참여 횟수가 3회 이하인 신진/지역기반 창작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

□ ‘창작뮤지컬 인력 육성지원’는 ‘창작뮤지컬 유통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제공함.

- 창작작품의 국내 및 해외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사)한국뮤지컬협회와 중구문화재단의 주관으로 국제진출 플랫폼 운영과 예그린앙코리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해외 유통은 서울뮤지컬페스티벌의 ‘서울뮤지컬마켓’을 통해, 국내 유통은 동 페스티벌의 ‘신규작품 쇼케이스 경연’을 개최하여 지원함.

□ 공연예술 창작산실 추진실적 및 성과(2014년 기준)

- 기관 최초 기획형 실연심사 운영으로 창작산실 지원사업 품질 제고 및 향상
  - 2014년도 사업 운영주체가 예술위원회로 일원화된 장점을 살려, 각 분야별

기획형 실연심사 추친.

- 실연심사를 통해 작품 중간점검 및 우수작품 선정.

– 우수작품제작지원 작품 매진 사례 및 해외진출.

- 무용: Mover의 <안녕>, Company K의 <Fatal>, 댄스씨어터 창의 <눈> 전석 매진.
- 무용: 트러스트 무용단의 <계보학적 탐구> 독일 프랑크푸르트 초청 공연 진행.
- 연극: 극단 이와삼의 <미국아버지> 대학로 예술극장 기획공연으로 연장 공연 진행.
- 연극: 극단 놀땅의 <홍준씨는 파라오다> 전문가들이 뽑은 기대작으로 선정 및 전석 매진.

– 음악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음악 창작산실(오작교 프로젝트)' 신규사업 개발.

- 전속작곡가 제도 도입을 통해 오케스트라와 작곡가의 다년간(2년) 공식화된 연계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곡 발굴과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 대내외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공연예술 창작산실 인지도 향상.

- 공동 SNS(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운영을 통한 '창작산실' 홍보 효과 극대화.
- 연극, 무용, 오페라, 음악 등 분야별 특성을 살린 홍보 및 이벤트 진행.
- 창작산실 개막식 개최를 통한 '공연예술 창작산실' 사업 인지도 향상과 브랜드성 강화
- 공연예술계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2014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사업성과 소개 및 선정작품 갈라 공연 진행.

– 창작음악분야 낙선포럼 <Off the Record> 개최.

- 낙선포럼 개최로 사업결과에 대한 투명성 강조와 사업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 사업지원 실시 후 수혜자 또는 단체는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성과보고서 양식은 크게 작품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사업추진실적,' 작품의 해당분야에 대한 기여도 및 의미를 묻는 '사업성과,' 그리고 '사업 수행자 의견수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정산보고서는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및 제출함.

□ 장르별 지원규모

- 창작산실: 연극, 무용, 오페라, 음악
  - 2014년도 뮤지컬 장르를 제외한 창작산실사업 지원 건수는 총 77건, 지원 금액은 총 36억2천5백만 원 이었음.
  - 2015년은 지원 건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77건, 지원 금액은 총 31억9천3백만 원으로 11.9% 감소함.
-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
  - 뮤지컬부분은 2014년 지원 건수가 30건 (시범공연과 우수작품의 중복 지원 건수는 포함), 지원 금액은 총 28억7천만 원이었음.
  - 2015년은 31건을(시범공연과 우수작품의 중복 지원건수는 포함) 선정 및 지원하였고, 총 25억 6천만 원을 제작비로 지원함.

□ 다음 5개의 표는 2014-2015년 동안 장르별·단계별 지원규모를 나타낸 것임.

<표 2-8> 창작산실 장르별 지원규모: 연극

연극							
년도	사업별 지원금액		건수	년도	사업별 지원금액		건수
2014	대본공모	각 2천만원	4	2015	대본공모	각 2천만원	4
		각 5천만원	1			각 5천만원	1
	시범공연	각 1천만원	15		시범공연	각 1천만원	15
	우수작품 제작지원	각 9천만원	6		우수작품 제작지원	각 1억원	8
		각 1억1천만원	4				
	우수작품 재공연	각 9천만원	3		우수작품 재공연	각 1억원	3
	총액	**14억7천만원**	**총 33**		**총액**	**13억8천만원**	**총 28**

자료: 2014·201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공모 선정 내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내부자료)

<표 2-9> 창작산실 장르별 지원규모: 무용

무용							
년도	사업별 지원금액		건수	년도	사업별 지원금액		건수
2014	시범공연	각 1천5백만원	19	2015	시범공연	각 1천만원	9
						각 1천5백만원	11
	우수작품 제작지원	각 2천만원	6		우수작품 제작지원	각 3천만원	4
		각 5천만원	4			각 6천만원	6
	우수작품 재공연	각 5천만원	1		우수작품 재공연	각 2천만원	2
		각 6천5백만원	2			각 3천5백만원	2
		각 7천만원	2			각 4천만원	3
	총액	**9억2천5백만원**	**총 34**			각 5천만원	1
					총액	**10억5백만원**	**총 38**

자료: 2014·201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공모 선정 내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내부자료)

<표 2-10> 창작산실 장르별 지원규모: 오페라

오페라							
년도	사업별 지원금액		건수	년도	사업별 지원금액		건수
2014	시범공연	각 2천만원	4	2015	시범공연	각 2천만원	5
	우수작품 제작지원	각 3억원	1		우수작품 제작지원	선정내역 없음	
	우수작품 재공연	각 1억원	1		우수작품 재공연	각 1억5천만원	1
		각 2억원	1			각 9천만원	1
	총액	**6억8천만원**	**총 7**			각 6천만원	1
					총액	**4억원**	**총 8**

자료: 2014·201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공모 선정 내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내부자료)

<표 2-11> 창작산실 장르별 지원규모: 음악

음악					
년도	지원금액	건수	년도	지원금액	건수
2014	각 3천만원 <창작음악 활성화 프로젝트>	3	2015 (연속 지원)	각 7천2백만원	2
				각 8천만원	1
	각 8천만원 <오작교 프로젝트>	5		각 8천8백만원	1
				각 9천6백만원	1
	총 4억9천만원	**총 8**		**총 4억8백만원**	**총 5**

자료: 2014·201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공모 선정 내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내부자료)

<표 2-12> 창작산실 장르별 지원규모: 뮤지컬

뮤지컬							
년도	사업별 지원금액		건수	년도	사업별 지원금액		건수
2014	대본공모	각 2천5백만원	6	2015	대본공모	각 2천5백만원	4
						각 5천만원	1
	시범공연	각 2천만원	11		시범공연	각 2천만원	13
	우수작품 제작지원	각 1억5천만원	5		우수작품 제작지원	각 1억5천만원	5
		각 2억원	3				
	우수작품 재공연	각 2억원	3		우수작품 재공연	각 1억5천만원	1
		각 2억5천만원	1			각 2억원	5
		각 3억원	1			각2억5천만원	1
	총액	**28억7천만원**	**총 30**		**총액**	**25억6천만원**	**총 30**

자료: 2014·201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공모 선정 내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내부자료)

2) 사업의 지원 현황

□ 다음은 창작산실 2014, 2015년도 장르별 선정작을 지원단계별로 작성한 표임.

- 다음 표의 연도별 수혜작 리스트를 통해 창작산실사업의 '지속적인 단계별 지원'에 대한 성과 및 전반적인 지원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음.

<표 2-13> 2014-2015 장르별·사업단계별 선정작: 무용

작품명	세부분야	단체 및 개인	시범공연 지원공모	우수작품 제작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RAGE	발레	(사)서울발레 시어터	2014	2014	2015
What a wonderful Smart World		장선희 발레단	2014		
백개의 머리를 가진 여인		김경영	2014	2014	
이방인		신현지 B Project	2014		
스코틀랜드의 꽃(부제: 멕베드)		이원국발레단	2013	2013	2014
Untitled		정형일 ballet creatice		2012	2014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		조윤라발레단	2013	2013	2014
천(千)	한국무용	김선미 무용단	2014	2014	2015
심청		이경옥 무용단	2014	2014	2015
붉은 빛이 바래다		창작놀이판 산	2014	2014	
푸너리 1.5		장유경무용단	2013	2013	2014
감각의 유희	현대무용	UBIN Dance	2014		
계보학적 탐구		(사)트러스트 무용단	2014	2014	2015
다리의 약속		노진환 댄스프로젝트	2014		
한숨		안영준	2014		
FATAL (치명적인)		company J	2014	2014	2015
에쿠우스		댄스씨어터 창	2014	2014	
시저테일 서전트 (열대 물고기)		박나훈 무용단	2014	2014	
완전한 고독에 빠지기		온앤오프 무용단	2014		
고도에 뛰다		춤창작집단존재	2014		
안녕 (Ciao)		김설진	2014	2014	2015
웅성거리는 매커니즘		노경애	2014		
Gefallt mir		황환희	2014		
Fake Diamond		Collective A	2013	2013	2014

자료: 2014·201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공모 선정 내역, 2011-2015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재공연 내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내부자료), 2013 창작산실(구.창작팩토리) 시범공연 시민평가단 모집공고, 국립발레단, '제1회 창작팩토리 시범공연 시민평가단 공모,' StageNews (2012.01.18).

<표 2-14> 2014-2015 장르별·사업단계별 선정작: 연극

작품명	세부분야	단체 및 개인	시범공연 지원공모	우수작품 제작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발레	M발레단	2015	2015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최소빈	2015	2015	
THE DOOR [La Danaide]		최진수발레단	2015	2015	
탄생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2015		
발레킬 'Once upon a time in 발레'		와이즈발레단	2012	2012	2015
등신불(等身佛)	한국무용	윤명화우리춤예술원	2015		
화 火 . 화 和		정신혜무용단	2015	2015	
거울 속의 거울		마홀라 컴퍼니	2015	2015	
I'm so tired	현대무용	예효승	2013	2013	2015
소무		Art Project BORA	2015	2015	
회귀선(tropics)		댄스씨어터틱	2015		
혼합(Immixture)		안성수픽업그룹	2015	2015	
파티 PARTY		장은정무용단	2015		
연옥(가제)		김설진	2015		
2015 Art we here yet?		유정옥	2015	2015	
링 위에 선 Factory		Factory 1+1+1	2015		
늑대와 춤추는 여인		Spring Dance Theater	2015		
Re-action		안수영컴퍼니	2015	2015	
Smile mask Syndrome		이정연 댄스 프로젝트	2015	2015	
재생인간		춤판야무	2015		
Best Deal		이은경	2015		
재난의 몸 (재난을 보는 몸)		장현준	2015		
응가 봉가		정영민	2015		

자료: 2014·201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공모 선정 내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내부자료), '창작팩토리 단계적 지원 시스템의 의미와 방향,' 연극평론 통권 70호 가을호 (최윤우, 2013).

<표 2-15> 2014-2015 장르별·사업단계별 선정작: 오페라

작품명	단체 및 개인(작가)	대본 공모	시범공연 지원공모	우수작품 제작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토일릿 피플	이여진, 극단작은신화	2014	2015	2015	
떠도는 땅	동이향, 동시대 이미지 연구소 영향	2014	2015	2015	
하나코	김민정, 극단물리	2014	2015	2015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박근형, 극단골목길	2014	2015	2015	
달빛 안갯길	신은수,극단한양레퍼토리	2014	2015	2015	
경복궁에서 만난 빨간여자	창작공동체 아르케		2014	2014	
눈이 보라색이다	극단 피오르		2014		
날아다니는 돌	극단 백수광부		2014	2014	
황제를 위한 레퀴엠	극단 집현		2014		
맘모스해동	공상집단 뚱딴지		2014	2014	2015
엄마	극단 작은신화		2014	2014	
변신 (원작 프란츠카스파)	극단 성북동 비둘기		2014		
색다른 이야기 읽기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극단 대학로 극장		2014	2014	2015
로베스피에르의 죽음	연극집단 뮈토스		2014		
홍준씨는 파라오다	극단 놀땅		2014	2014	
공장	극단 미인	2013	2014	2014	
미국 아버지	극단 이와삼		2014	2014	2015
그 봄, 한낮의 우울	한강아트컴퍼니		2014	2014	
그림자 아이	공연제작센터		2014	2014	
막내야	각설탕 프로덕션	2013	2014		
이인실(二人室)	극단 풍경		2013	2013	2014
비극의 일인자	극단 피오르	2012	2013	2013	2014
헤비메탈 걸스	극단 명작옥수수밭		2013	2013	2014
인어: 바다를 부른 여인	서종현	2015			
표절 작가	김성민	2015			
툇마루가 있는 집	김승철	2015			
비밀에 갇힌 방	김이율	2015			
소나기마차	신채경	2015			
종일본가	조은컴퍼니		2015		
로맨스 그레이	극단 떼아뜨로 고도		2015		
방문	극단풍경		2015	2015	
길 떠나기 좋은 날	극단 로뎀		2015		
혈우	M.Factory (극단 이안)		2015		
고제	극단 돌파구		2015	2015	
우주의 물방울 너는 영원해	극단 피오르		2015	2015	
미스터X의 은밀한 제안	극단 집현		2015		
안녕 미스터 로니 크누센	예술집단 페테		2015		
가족의 탄생	극단 가탄		2015		

작품명	단체 및 개인	대본 공모	음악공모	시범공연 지원공모	우수작품 제작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미호	서순정	2013	2014	2015		
소서노	장석진	2013	2014(재공모)			
서천 꿈길, 저편	서울오페라앙상블			2014	2014	
유랑	박창민, (사)호남오페라단			2014, 2015		
심청	라벨라 오페라단			2014		
역사오페라 단군왕검	심진섭, 구리시오페라단			2014, 2015		
고집불통 웅	하트뮤직					2014
쉰 살의 남자	자인오페라앙상블					2014
학동아리랑	(사)빛소리오페라단			2015		
안중근	(사)뉴서울오페라단			2015		
도산의 나라 (선구자 도산 안창호)	도산안창호흥사단 오페라단					2015
귀향	여수그랜드오페라단					2015
솔뫼(성 김대건신부)	충청오페라단					2015

자료: 2014·201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공모 선정 내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내부자료)
비고: 2015년도 우수작품제작지원 지원대상 없음. <유랑>과 <단군왕검>은 이례적으로 2014년과 2015년 모두 시범공연 지원공모에 지원 및 참여하였음.

<표 2-16> 2014-2015 장르별·사업단계별 선정작: 음악

연주단체명	전속작곡가	1차년도 지원	2차년도 연속지원
(사)화음	인지선, 최한별	2014	2015
(사)TIMF앙상블	최지연, 나실인	2014	2015
경기도립국악단	김성국, 황호준	2014	2015
(재)KBS교향악단	조은화, 임준희	2014	2015
대구MBC교향악단	진규영, 최명훈	2014	2015
연주단체명	전속작곡가	창작음악 활성화 프로젝트 (단년지원)	
(사)프라임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유주환, 이근형	2014	
앙상블 판	강지영, 신지수	2014	
(사)아카데미타악기앙상블	김경중, 김승림	2014	

자료: 2014·201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공모 선정 내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내부자료)

<표 2-17> 2014-2015 장르별·사업단계별 선정작: 뮤지컬

작품명	단체 및 개인	대본 공모	시범공연 지원공모	우수작품 제작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곤, 더 버스커	오픈런 뮤지컬컴퍼니	2013	2014	2014	2015
녹턴	극단 파파프로덕션	2013	2014		
뮤지컬A	극단 축도록달린다	2013	2014	2014	
가야십이지곡	기능재부	2013	2014	2014	
런웨이비트	달컴퍼니	2013	2014	2014	
로기수	(주)아이엠컬쳐		2014		2015
푸른 연꽃	한엔터테인먼트	2014	2015		
로미오 혹은 줄리엣	극단모도	2014	2015		
따뜻하게 부드럽게 달콤하게	동물왕국	2014	2015		
신과 함께 가라	뮤지컬이야기소	2014	2015	2015	
컷 더 로프	(주)안자일렌	2014	2015		
모스크바의 총	㈜HJ컬쳐	2014	2015		
사랑병원 1004호	주식회사 씨어터오		2014		
뮤지컬 아보카토	LSM Company		2014	2014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위네트웍스		2014	2014	2015
파리넬리	㈜HJ컬쳐		2014	2014	2015
뮤지컬 봄날	극단하늘하늘		2014	2014	
그날들	(주)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2014
총각네 야채가게	(주)라이브				2014
뮤지컬 정글라이프	와뮤지컬 그라운드		2013	2013	2014
사춘기	극단 연우무대				2014
심야식당	(주)적도				2014
덕혜옹주	극단 그애생각	2012	2013	2013	2014
곤 투마로우	이성일, 이지나, 최종윤	2015			
글릭아우프: 행운을 빌어요	이은혜, 이유정	2015			
레드북	한정석, 이선영	2015			
청년모험가회사-경성특사	현어진, 정준, 박기영	2015			
아라비안 나이트	한지안, 류찬	2015			
로빈슨 그루소를 찾아서	권근용, 문혜영, 이필승	2015	2016		
에어포트 베이비	(주)신시컴퍼니		2015	2015	
헬로우 미스터킴	DL프로덕션&극단두루		2015		
워 로드	와뮤지컬그라운드		2015		
안녕!유에프오	LSM Company		2015	2015	
망원동 브라더스	주식회사 씨어터오		2015		
웰 다잉	스페셜원컴퍼니		2015	2015	
맘2맘	신나는극단하늘나는오징어		2015	2015	
바람직한 청소년	(주)이다 엔터테인먼트				2015
마당을 나온 암탉	(주)극단 민들레				2015
난쟁이들	(주)피엠씨프러덕션				2015

자료: 2014·2015년도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공모 선정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페이지. '2015년도 창작뮤지컬 지원사업 선정작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내부자료).

2. 지원심사 기준 및 지표

□ 공연예술 창작산실 사업의 심사위원 구성

- 창작팩토리 초기 심사위원의 구성에 문예회관 실무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예술위원회의 창작산실사업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연출 포함 예술가, 기획·경영가, 평론가)을 중심으로 각 단계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증강함(i.e peer review structure).
- 창작작품의 향후 레퍼토리화를 위한 인지도 확산과 우수작품공연에 대한 관객의 기대향상을 고려하여 관객평가단을 모집, 기획형 실연심사에 참여하도록 추진함(관객평가단 총 102명 참석, 2014년 기준).

□ 지원 제외 대상은 '공연되지 않은' 작품과 '공연된' 작품으로 구분됨.

- '대본/음악' 공모부터 '우수작품 제작지원' 공모 까지 단계별 심사 시, 공연되지 않은 창작작품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공연되지 않은' 작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공연화 된 작품: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tryout공연, 쇼케이스는 공연되지 않은 작품으로 간주. 단, 이와 같은 형태를 갖추었으나 유료공연인 경우는 제외.
  -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 심사위원회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
- '공연된' 작품을 공모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모두 장르별 재공연심사 시임. 따라서 지원제외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기존 우수작품 재공연/해외공연지원 지원공모 선정작.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창작산실사업의 장르별 각 시행단계의 세부평가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18> 창작산실사업 장르별·사업단계별 심의절차 및 세부평가내용: 연극

단계	공모대상	심의절차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대본 심사	미발표 창작연극	비공개 서면심사 후 심사위원 개별심사 및 선정협의	공연작품의 예술성(4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작품 내용이 창의적이고 참신한가? • 작품 기획 의도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공연작품의 대중성(3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에 관객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가?
			무대화에 따른 발전 가능성(30%)	• 작품 내용이 무대화에 적합한가? • 작품내용으로 볼 때 발전가능성이 높은 작품인가? • 해당 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시범 공연 지원	공연되지 않은 창작연극	서면심사 및 선정협의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작품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있는가? • 작품계획에 참여하는 제작진(스탭진), 출연진은 실현성이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성(4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단체의 역량(30%)	• 단체(개인)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 단체(개인)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우수 작품 제작 지원 | 독회 심사	별도접수 없음	심사위원 개별 배점 후 점수 합산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 (시범공연)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었는가? • 무대화에 따른 발전가능성은 어떠한가? • 작품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있는가? • 작품계획에 참여하는 제작진(스탭진), 출연진은 실현성이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성(4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단체의 역량(30%)	• 단체(개인)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 단체(개인)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우수 작품 재공연 지원	기존 우수작품 제작지원 작품	서면심사 및 선정협의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공연장은 확정이 되어 있으며, 공연의 규모나 스탭 및 출연진의 구성 계획은 구체적인가? • 작품의 발전(업그레이드) 가능성은 충분한가? • 공연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과 관객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공연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성(4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신청한 작품에 대한 과거공연의 예술성은 우수한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단체의 역량(30%)	• 단체(개인)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 단체(개인)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 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공연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자료: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 상세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페이지

<표 2-19> 창작산실사업 장르별·사업단계별 심의절차 및 세부평가내용: 무용

단계	공모대상	심의절차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시범 공연 지원	공연되지 않은 창작무용	서면심사 및 인터뷰 심의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작품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있는가? • 작품계획에 참여하는 제작진(스탭진), 출연진은 실현성이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성(4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단체의 역량(30%)	• 단체(개인)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 단체(개인)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우수 작품 제작 지원	별도접수 없음	독회심사 (쇼케이스) 및 인터뷰 심사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 (시범공연)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었는가? • 무대화에 따른 발전가능성은 어떠한가? • 작품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있는가? • 작품계획에 참여하는 제작진(스탭진), 출연진은 실현성이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성(4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단체의 역량(30%)	• 단체(개인)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 단체(개인)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우수 작품 재공연 지원	기존 우수작품 제작지원 작품	서면심사 및 인터뷰 심의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공연장은 확정이 되어 있으며, 공연의 규모나 스탭 및 출연진의 구성 계획은 구체적인가? • 작품의 발전(업그레이드) 가능성은 충분한가? • 공연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과 관객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공연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성(4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신청한 작품에 대한 과거공연의 예술성은 우수한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단체의 역량(30%)	• 신청한 작품에 대한 과거공연의 성과는 어떠한가? • 단체(개인)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 단체(개인)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 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공연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자료: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 상세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페이지

<표 2-20> 창작산실사업 장르별·사업단계별 심의절차 및 세부평가내용: 오페라

단계	공모대상	심의절차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시범 공연 지원	공연되지 않은 창작오페라	서면심사 및 인터뷰 심의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작품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있는가? • 작품계획에 참여하는 제작진(스탭진), 출연진은 실현성이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성(4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소재와 기획의도가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의 음악적 완성도는 어떠한가? • 소재/기획의도/연출계획이 음악과 조화를 이루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단체의 역량(30%)	• 단체(개인)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 단체(개인)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우수 작품 제작 지원	별도접수 없음	실연심사 및 인터뷰 심사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 (시범공연)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었는가? • 무대화에 따른 발전가능성은 어떠한가? • 작품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있는가? • 작품계획에 참여하는 제작진(스탭진), 출연진은 실현성이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성(4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소재와 기획의도가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의 음악적 완성도는 어떠한가? • 소재/기획의도/연출계획이 음악과 조화를 이루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단체의 역량(30%)	• 단체(개인)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 단체(개인)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우수 작품 재공연 지원	기존 창작오페라 작품	서면심사 및 인터뷰 심의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공연장은 확정이 되어 있으며, 공연의 규모나 스탭 및 출연진의 구성 계획은 구체적인가? • 작품의 발전(업그레이드) 가능성은 충분한가? • 공연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과 관객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공연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성(4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신청한 작품에 대한 과거공연의 예술성은 우수한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단체의 역량(30%)	• 신청한 작품에 대한 과거공연의 성과는 어떠한가? • 단체(개인)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 단체(개인)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 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공연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자료: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 상세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페이지

<표 2-21> 창작산실사업 장르별·사업단계별 심의절차 및 세부평가내용: 음악

단계	공모대상	심의절차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지원단체 선정 (1차년도)	• 전국의 공립 및 민간 오케스트라 • 오케스트라 전속작곡가(단체 당 2 명)	• 1 차 심의: 서면인터뷰 및 제출자료 검토 • 2 차 심의: 그룹인터뷰 (2 개조로 편성하여 진행하며 조별 50 분 내외)	전속작곡가 운영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기대효과 (4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양자 간의 합의된 전속작곡가 운영프로그램은 창작음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작곡가: 작품의 예술성 (30%)	• 매칭된 작곡가들의 창작활동 경력은 이 사업의 목적달성에 적합한가? • 창작곡은 창의적이며 음악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연주단체: 단체의 창작음악에 대한 관심과 수행역량 (30%)	• 그 동안의 창작음악 발표 실적과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해 작곡가에게 제공하는 사항을 고려할 때, 단체는 창작음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가? • 연주단체의 연주력은 작곡가의 작곡의도를 구현할 만큼 일정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수행평가 (연속지원)	별도접수 없음 (대상: 전년도 사업참여 단체 및 개인)	사업수행평가 평가단 구성	평가절차: 심층 모니터링	사업수행평가 과정 및 내용
		전문평가위원 및 관객평가단 (공고를 통해 선발 및 교육) 심층 모니터링	사업계획 및 활동내용 수집	• 각 팀의 사업계획과 활동정보 수시 수집 • 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사업과 수집한 활동의 우수사업 상세내용 수집
			현장평가	• 해당분야 전문평가위원: 평가표 제출 • 관객평가단: 감상보고서 제출
			서면평가	• 각 선정 팀이 제출한 성과보고서

자료: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 상세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페이지

<표 2-22> 창작산실사업 장르별·사업단계별 심의절차 및 세부평가내용: 뮤지컬

단계	공모대상	심의절차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대본 심사	미발표된 창작뮤지컬 (대본 및 음악)	서면심사 (비공개)	공연작품의 예술성(4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작품 내용이 창의적이고 참신한가? • 작품 기획 의도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공연작품의 대중성(3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에 관객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가?
			무대화에 따른 발전 가능성(30%)	• 작품 내용이 무대화에 적합한가? • 작품내용으로 볼 때 발전가능성이 높은 작품인가? • 해당 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시범 공연 지원	공연되지 않은 창작뮤지컬	서면심사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작품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있는가? • 작품계획에 참여하는 제작진(스탭진), 출연진은 실현성이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성(4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단체의 역량(30%)	• 단체(개인)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 단체(개인)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우수 작품 제작 지원	별도접수 없음	시범공연 실연심사 및 인터뷰 심사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 (시범공연)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었는가? • 무대화에 따른 발전가능성은 어떠한가? • 작품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있는가? • 작품계획에 참여하는 제작진(스탭진), 출연진은 실현성이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성(4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단체의 역량(30%)	• 단체(개인)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 단체(개인)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우수 작품 재공연 지원	• 역대 창작뮤지컬 지원사업 (창작팩토리, 창작산실) 지원사업 선정작 • 지원사업 선정작 이외 초연 공연 중이거나 공연된 창작뮤지컬	서면심사 및 인터뷰 심의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공연장은 확정이 되어 있으며, 공연의 규모나 스탭 및 출연진의 구성 계획은 구체적인가? • 작품의 발전(업그레이드) 가능성은 충분한가? • 공연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과 관객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공연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성(4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신청한 작품에 대한 과거공연의 예술성은 우수한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단체의 역량(30%)	• 단체(개인)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 단체(개인)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 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공연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자료: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사업 상세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페이지

□ 공연예술 창작산실은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심사절차 및 기준에 있어 분야 간 공통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장르별 특성에 따라 차별성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음.

- 오페라분야는 2015년부터 심사방식에 변화를 줌.
  - 심사를 세분화하여 시범공연 심사과정을 1차 예비심사와 2차 최종심사로 나누어 시행함.
  - 한 차례의 30분 공연으로 우열을 가려야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심사 대상자들에게 수정 및 보완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의도로 변화를 시도.
  - 1차 실연심사는 시범공연 지원사업 단체 선정이 끝난 후 약 한 달의 시간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피아노 반주와 보컬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짐(연출과 의상 배제). 각 단체의 공연 후, 심의위원과 인터뷰.
  - 1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실시한 2차 최종심사에서는 분장과 연출이 허용되었고 오케스트라 반주로 평가를 진행함. 시범공연 후 각 단체별 관계자 2명이 심의위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함.

[그림 2-7] 오페라산실 심의과정 및 내용

출처: '한국 창작 오페라의 미래를 보다,' 웹진 아르코 (2015.07.20)

–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오작교 프로젝트'는 사업시행 1차년도 후 지원단체를 대상으로 중간 사업평가를 시행함.

- 오작교 1기 5개팀에 대한 1차년도 사업수행 평가는 연주단체의 계획대비 성과, 향후 계획에 초점을 맞춰 진행함.
- 비용 효율성, 예술성 평가에 따른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 및 실행 과정을 바탕으로 1)단체의 자체평가, 2)모니터단 예비평가, 3)전문가 심층평가 3단계로 시행.
- 평가등급 도입: 지원대상별 최종 등급을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고(<표 2-23> 참조), 평가 등급에 따라 차년도 지속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 평가결과의 환류 시도: 사업결과 평가를 통한 사후개선 중심에서 사전 컨설팅 개념의 사전제안방식을 도입하여, 활동 상담 및 모니터링 의견 제시 등 지원대상의 실행력 배양과 수행결과 환류의 선순환 체계 구축(2차년도 사업계획과 연계).

<표 2-23> 오작교 프로젝트 1차년도 평가 프로세스

1단계 (피평가자 자체평가)		2단계 (모니터링단 예비평가)		3단계 (전문가 심층평가/환류)
• 지정된 성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단체가 해당 평가지표별 활동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구체적 사유 기재	▶▶	• 1차년도 사업기간 각 팀별 활동 현장 모니터 활동 참여자 4명(전문가, 일반관객 각 2명)의 실제 활동점검 결과 반영 ⇒심층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	• 1, 2단계의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연주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대상 심층인터뷰 및 최종 활동성과 평가결과 확정 ⇒2차년도 활동계획에 개선방향 제시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음악 지원 성과 및 향후계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내부자료)

<표 2-24> 오작교 프로젝트 1차년도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 착안 사항		배점
1차년도 사업계획 (35점)	A-1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은 적절한가?	15점
	A-2	연간 활동내용이 계획대로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20점
사업운영 및 성과 (45점)	B-1	1차년도 사업을 통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례	7점
	B-2	1차년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가장 실패한 혹은 미진한 사례	3점
	B-3	전반적인 단체의 사업운영 성과는 어떠한가?	20점
	B-4	단체의 본 사업에 대한 홍보 노력과 성과는 어떠한가?	5점
	B-5	마케팅을 통한 수익창출 및 관객개발 노력과 성과는 어떠한가?	5점
	B-6	단체의 자체적인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활동은 충실한가?	5점
행정 평가 (10점)	C-1	단체는 지원금을 규정에 맞게 집행하였으며, 해당 지출증빙자료를 정확하게 구비하여 제출하였는가?	5점
	C-2	단체는 필수자료 및 기타 사업성과물을 정확하게 제출하였는가?	5점
2차년도 사업계획 (10점)	D-1	2차년도 활동계획이 구체적이며 의욕적인가?	10점
총 계	**11개 평가 항목**		**100점**

출처: 공연예술 창작산실 음악분야: 오작교 프로젝트 1차년도 평가계획(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내부자료)

<표 2-25> 오작교 프로젝트 1차년도 평가등급

구 분	평가결과 적용방안	비고
A등급 (90점 이상)	2차년도 지원금액 증액 검토(전년 대비 20% 증액)	단, D, E 등급시 에도 전속작곡가 개인별 창작지원금 1천만원 유지
B등급 (89점~80점)	2차년도 지원금액 증액 검토(전년 대비 10% 증액)	
C등급 (79점~70점)	전년도 수준 지원	
D등급 (69점~60점)	2차년도 사업 지원금액 감액 검토(전년 대비 10% 감액)	
E등급 (60점 미만)	2차년도 사업 지원금액 감액 검토(전년 대비 20% 감액)	

출처: 공연예술 창작산실 음악분야: 오작교 프로젝트 1차년도 평가계획(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내부자료)

제3절 국내 유사 프로그램 사례 비교 분석

1. 공공기관 유사 사례: 서울문화재단의 '유망예술지원'

□ '유망예술지원' 사업은 연극, 무용, 다원·전통·음악, 시각예술 총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구성됨.

- 각 분야별로 지정된 서울시 창작공간에서 사업이 시행됨.
  - 연극: 서울연극센터 NEWStage
  - 무용: 서울무용센터 닻 dot (전 홍은예술창작센터)
  - 다원예술·전통기반창작예술·음악/사운드: 문래예술공장 MAP
  - 시각예술분야: 서교예술실험센터 99℃

□ 사업의 목적은 각 분야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통된 내용은 각 장르에서 예술가와 창작품을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극:
  - 연극분야의 새롭고 다양한 창작 활성화를 위한 창작자 발굴 및 지원
  -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연극분야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재능있는 창작자의 역량 개발
  - 연극을 통한 다양한 내용적, 형식적 실험 기회 제공
- 무용:
  - 무용분야 유망예술가 발굴, 성장도모 및 창작역량 강화
  - 창작지원금, 공간, 인큐베이팅을 결합한 입체적 지원시스템을 통한 제작지원 내실화
  - 새로운 예술 흐름을 선도하는 창작 지원
- 다원·전통·음악/사운드: 다원예술, 전통기반창작예술, 음악사운드 분야의 새롭고 다양한 창작활성화를 위한 창작자 및 작품 제작 지원

- 시각예술:
  - 시각예술 분야의 새로운 경향의 예술을 선도하는 유망예술 발굴 및 육성
  -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시각예술분야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예술가의 역량 개발

□ 사업지원 대상 및 규모

- '유망예술지원' 사업은 각 분야별 10년 이내의 경력을 갖고 있는 예술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신작과 재창작 작품을 모두 포괄함 (단, 시각예술은 신작 발표만을 지원).
- 사업의 지원 내용은 창작지원금, 공간, 작품개발, 통합홍보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문화재단의 지원대상사업은 최소 10%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유망예술지원사업은 그 조건에 대한 예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표 2-26> 유망예술지원사업의 분야별 지원내용

	연극	무용	다원·전통·음악	시각예술
창작지원금	2 천만원 이내	2 천만원 이내	1 천 5 백만원 이내	7 백만원 이내
공간지원	연습·발표 공간 지원	연습공간 제공	연습·발표 공간 및 장비 지원	전시공간 지원
작품개발지원	낭독회,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필요시)	자문·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필요시)	멘토링-크리틱 프로그램 운영 (필요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필요시)
통합홍보지원	작품발표를 위한 언론홍보 지원	홍보물 및 결과자료집 제작 등	프로모션을 위한 통합홍보 진행	작품발표를 위한 언론홍보 지원

자료: 2016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안내. 서울문화재단.

<표 2-27> 2013년도 유망예술지원사업의 지원규모

사업	장르	수혜자/단체명	작품명	지원결정금액
NEWStage	연극	이영석	수다연극-청춘수업	2 천만원
	연극	윤혜진	먼지섬	2 천만원
	연극	극단 Theatre201	주변인들(가제)	2 천만원
닻 dot	무용	열혈예술청년단	SYNCH – Captured Sceneries (가제)	2 천만원
	무용	Gound Zero Project	New World in Kunsthalle	2 천만원
	무용	장인선	홍은도 홍은아일랜드	2 천만원
MAP	다원예술	하수민	good day today	1 천 4 백만원
	다원예술	김웅용	결정된 우연에 반응하는 에피소드들	1 천만원
	다원예술	이티시	김선녀 여인열전	1 천 7 백만원
	다원예술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다페르튜토 서울	1 천 5 백만원
	다원예술	김태원	새로운 유형의 시집	7 백만원
	음악	잠비나이	잠비나이 정규 2 집앨범제작	1 천 2 백만원
	음악	배인숙	Sounding Sounder	1 천 2 백만원
	음악	강효지	You have the piano	1 천 2 백만원
	음악	오홍준	오대리 [국풍 13]	5 백만원
	전통예술	박민희	그들 각자의 방	1 천 7 백만원
	전통예술	프로젝트이리	창작 판소리극 달려라 아비	1 천 7 백만원
	전통예술	김봉영	-	1 천 7 백만원
99℃	시각예술	이화평	비 내리는 도시를 위한 드로잉	7 백만원
	시각예술	이주리	Waiting for the Inner Side's Call	7 백만원
	시각예술	이미래	낭만 취하기	7 백만원
	시각예술	오희원	공백의 공백: white space of white space	7 백만원
	시각예술	구민정	칸만화와 드로잉의 모색	7 백만원

자료: 서울문화재단 웹페이지 http://www.sfac.or.kr/html/main/index.asp

□ 심의절차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됨.

- 1차 재단 (예비)행정심사: 신청자격 확인
- 2차 전문가 서류심사: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개별심사
- 3차 전문가 인터뷰심사: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심사

□ 분야별 심의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28> 유망예술가지원 사업의 분야별 심의기준

장르	심의기준(가중치)	세부내용
연극	계획: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20%)	·사업계획의 충실도,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절성
	실행: 사업의 질 (50%)	·작품 내용과 형식의 독창성·실험성·동시대성, 사업목적의 적합성
	성과: 사업성과 및 기여도 (30%)	·예술가(단체)의 성장 기대효과, 해당분야 예술적 발전기여 효과 등
무용	작품성 및 창의성 (30%)	·작품의 독창성과 예상 결과물의 완성도 및 우수성
	성장가능성 (20%)	·예술가로서의 성장 가능성 및 무용예술의 발전 기여도
	사업계획의 충실성 (40%)	·계획서의 충실도, 실현가능성 및 예산의 적절성
	지원의 필요성 (10%)	·유망예술지원사업 선정의 필요성
다원·전통·음악	작품성 및 창의성 (60%)	·작품내용과 형식의 독창성과 실험성 및 우수성, 예술가로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및 해당 분야의 발전 기여도
	제안 프로젝트의 충실성 (30%)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취지와의 부합성 ·프로젝트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도
	예산계획의 타당성 (10%)	·소요예산의 적절성
시각예술	계획: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30%)	·사업계획의 충실도,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절성
	실행: 사업의 질 (50%)	·작품 내용과 형식의 독창성·실험성·동시대성, 사업목적의 적합성
	성과: 사업성과 및 기여도 (20%)	·예술가(단체)의 성장 기대효과, 해당분야 예술적 발전기여 효과 등

자료: 2016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안내. 서울문화재단.

2. 민간단체 유사 사례: CJ문화재단의 CJ azit[16)]

□ 민간단체의 유사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의 의의로는 공공성이 투영되는 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 창작산실이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 지원 프로그램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임.

□ 지원 프로그램 개관 및 목표

- CJ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CJ azit는 창작활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진행과정을 실제 현장에서의 것처럼 시험해보고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으로 2009년에 개관하였음.
- CJ azit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참여자에게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진들의 의견(feedback)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또한, 쇼케이스와 같은 발표를 통해 관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의 목표는 “try whatever, enjoy together”라는 비전과 함께 신인 창작자들에게 장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임.
  - 프로그램을 통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인 예술가들에게 쇼케이스와 실질적 네트워크의 기회를 제공.
  - 분야별 시장에 창작작품과 신인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등의 시장과 신인 예술가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

□ CJ azit의 지원 프로그램은 세 가지 부문(Tune Up, Creative Minds, Project 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 영화, 뮤지컬, 연극 분야의 신인 창작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 튜업(Tune Up):

16) 자료: CJ문화재단 웹사이트 http://www.cjculturefoundation.org/index.html

- 음악분야의 신인 창작 뮤지션 지원프로그램으로 2010년 시작하여 다양한 장르의 신인 뮤지션에게 선배와 공동작업, 음반제작 활동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함 (프로그램 참여 장르: Rock, Soul, Pop, Ethnic, Jazz, Electronic, DJ 등).
- 문화예술산업의 스타시스템 외부에서 활동하는 신인 뮤지션들에게 선배 뮤지션과의 네트워킹, 기획사 소개, 공연무대 등 예술가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진 음악활동을 지원.
- 매칭된 선배 뮤지션은 <권진원>, <김창완 밴드>, <클래지콰이>, <디제이 소울스케이프> 등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가 참여함.

– 크리에이티브마인즈(Creative Minds):

- 2010년 뮤지컬 부문 창작지원을 시작으로 2011년 연극부문으로까지 확대하여 지원.
- 연극과 뮤지컬 부문의 신인 공연 창작자들의 신작 개발을 지원하고 작품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무대를 지원함.
- 뮤지컬의 경우 리딩(reading)이라는 간소한 무대로 개발된 작품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관객과 공연관계자의 의견을 통해 작품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점검하고 반영함.
- 연극은 희곡과 무대연출 기획안이 무대 위 정식 공연으로 올려지기 까지 그 과정을 멘토링 등을 통하여 지원함.

– 프로젝트S(Project S):

-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방송 드라마 부문의 영상 인재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작품 기획·개발 지원과 전문가 그룹의 모니터링, 그리고 제작사, 투자사를 대상으로 한 피칭 기회 등의 후속지원을 제공.
- 해당 지원 프로그램 과정의 결과물은 시나리오 또는 파일럿이며, 이것이 완성되면 국내 메이저 투자 배급사를 통해 투자 및 제작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에 따라 해외 영화 시장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번역

지원 등도 제공.

□ 심의과정은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2단계에 걸친 심사 후,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 튜업(Tune Up) 즉, 음악부문의 경우, 정원영, 디제이 소울스케이프, 하림 등과 같은 현업 선배뮤지션들이 온라인 심사와 공연 심사에 참여함.
- 심의과정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임.

<표 2-29> CJ azit 분야별 심의과정

사업명	심의 과정
Tune Up	예선: 온라인 음원 및 동영상 심사 (상/하반기 총 2 회) 본선: 쇼케이스 실연 심사 (상/하반기 총 2 회) 결선: 쇼케이스 실연 심사 최종 선발 (연말 1 회)
Creative Minds	<연극 부문> 온라인 접수: 희곡, 연출구성안(선택) 1 차: 희곡심사 2 차: 독회+연출 구성안 심사
	<뮤지컬 부문> 1 차: 서류심사 (1 차 선정작은 작품 개발과정 참여 및 2 차 심사 참여) 2 차: 인터뷰 심사 및 대본/음악 심사
Project S	접수: 극영화, 드라마 – 트리트먼트 / 다큐멘터리 – 기획구성안 1 차: 서류심사 2 차: 인터뷰 심사

자료: CJ azit 웹페이지. CJ 문화재단.

□ 지원작 현황

- Tune up: 16기까지의 지원 수혜자 그룹이 있고, 7기, 14기, 16기를 제외하고는 각 기수별로 2팀씩 선정되어 총 31팀이 수혜대상이 됨 (7기는 선정팀 없음. 14기는 1팀, 16기는 4팀 선정).

- Creative Minds: 연극분야는 2012-2013년까지 총 6작품 선정하였고, 뮤지컬 분야는 2010-2014년까지 총 21편을 지원하였음.
- Project S: 5기까지 선발 지원하여 총 82편(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드라마 포함)이 수혜 받음.

□ 심의 후 선정된 예술가 지원 내용은 각 지원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30> CJ azit의 개별 프로그램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Tune Up	· 음반제작비 및 홍보마케팅 지원 · CJ 문화재단 아지트 기획공연 참여 기회 제공 · 단독공연 시 공간 지원 · 국내외 뮤직페스티벌에 개설되는 '튠업스테이지' 참여기회 제공 · 문화나눔 프로그램 '튠업음악교실' 강사 참여 기회 제공	후속 지원 단계: 선정 뮤지션 전용 무대 및 컴필레이션 앨범 참여 기회 제공
Creative Minds	<연극 부문> · 선배 연극인(예술감독)의 멘토링 · 공연제작 지원 단계: 공연장 대관, 연습실, 캐스팅 등 지원	
	<뮤지컬 부문> · 작품 창작개발비 · 대본, 음악 각 부문별 전문가 그룹 모니터링 서비스 · 연습실, 배우 캐스팅, 음원 및 영상 제작 지원 · 리딩(reading) 무대 지원	선정작 지원내용은 선정된 작품의 개발 일정과 상황에 따라 창작자와 CJ 문화재단이 협의하에 정하게 되며, 각 작품별 지원 항목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Project S	· 팀별 개별 면담을 통한 성장 지원프로그램의 맞춤 구성 · 창작 지원금 제공 – 팀별 최대 1 천 5 백 만원 · 전문가 컨설팅, 모니터링, 멘토링, 파트너 매칭 등 창작물 성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인적 네트워킹 및 투자 유치, 프로젝트 피칭 등을 통한 시장 진출 독려 · 시나리오 번역 등 후속 지원	

자료: CJ azit 웹페이지. CJ 문화재단.

3. 유사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서울문화재단의 '유망예술지원' 사업과 CJ 문화재단의 CJ azit의 모두 지원의도가 문화예술계의 창작역량 제고와 새로운 창작작품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계의 체력 증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살펴보았으나 각각 세분화된 사업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 각각 다른 운영기관의 특성과 사업의 초점을 고려할 때, 사례 간의 직접적 비교 또는 세부사항 도입은 무리가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살펴 본 사례의 색다른 시도 및 운영과 관련한 시사점 도출은 향후 창작산실사업의 현장성 반영과 관련한 적절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명시함.

□ 타 기관의 사례와 공연예술 창작산실사업과의 차이점

- 서울문화재단의 '유망예술지원' 사업과 같은 경우,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는 지점에서 공공성 유지 및 지원 과정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도 발견할 수 있음.
  - 지원대상에 있어 큰 차이점은 시각예술을 포함한 순수예술의 전 장르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임.
  - 유망예술지원사업은 사업의 목표에서부터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실험적인 예술적 시도를 지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특히 연극분야에서 강조).
  - 작품개발지원 시, 자문·멘토링 및 크리틱 프로그램은 필요시에 지원·운영된다는 단서가 따름.
  - 연극과 시각예술의 경우 동시대성을 심의기준에 포함하고 있음.
  - 유망예술지원사업은 최소 10%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서울문화재단 지원대상사업 조건에서 예외로 분류됨.
  - 분야별 10년 이내의 경력을 갖고 있는 신진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를 사업의 목표로 지정한 차이가 보임.

- CJ azit는 민간단체인 CJ 문화재단 산하에서 운영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 창작산실사업에 비해 산업중심의 창작 예술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장르가 Rock, Soul, Pop, 뮤지컬, 극영화, 방송 드라마 등으로 문화산업의 부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반면 연극과 다큐멘터리와 같은 산업적 측면에서 쉽게 외면 받는 장르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여 시행함.
  - 신인 예술가들로 하여금 실제 현장을 체험하고 또한 본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인 창작예술가의 시장진입을 돕는 측면이 두드러짐.
  - 산업적 장르가 주를 이루는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과 연관하여, 후속지원으로 창작품의 유통단계까지 연속적으로 도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음.

□ 공연예술 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시사점

- 서울문화재단이 '유망예술지원' 사업의 재단지원대상에게 최소 10%이상 자체재원을 확보해야하는 조건을 면제한 것은 앞서 언급되었던 소규모 연극산실 수혜작의 제작비가 총 제작 지원비보다 적은 경우의 난감한 상황에 대해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음. 다만, '유망예술지원' 사업은 신인 창작 예술가 대상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할 필요는 있음.
- 유망예술지원 사업의 연극과 시각예술 부문에서 동시대성을 심의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관객의 공감대 형성 및 창작작품의 레퍼토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에 따라 지원되도록 하는 것은 창작산실사업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사항으로 보임.
  - 신인 창작예술가를 발굴하는 것이 창작산실사업의 목적이 아니며, 때로는

지원사업 과정 중 참여 예술가가 멘토링에 대한 불필요함 또는 불편함을 알려오는 경우도 있음(직원 인터뷰 2015).

- CJ azit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예술의 산업적 측면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으므로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됨.
  - CJ azit 프로그램과 창작뮤지컬 육성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서 유사점이 많이 발견되나, 인적 네트워킹 형성을 도와 작품의 유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고려해볼만한 시사점이라고 생각됨.
- 문화예술산업 창작작품에 대한 유통 지원이 더욱 다양한 것을 비추어 볼 때에, 창작작품 유통과 관련하여 순수예술 장르와 산업적 장르의 차이점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 사업과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사업 모두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창작팩토리 사업을 전신으로 하여, 단계별 지원이라는 구조 아래 창작작품 발굴과 레퍼토리 육성을 사업목표로 사업을 시행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 사업'은 다음 세 가지를 주요목적으로 함:
  - 공연예술분야 우수 창작작품 발굴,
  - 해당 분야의 창작의욕 고취와 경쟁력 향상,
  - 해당 분야의 대표 공연 레퍼토리 육성.
-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은 '창작-제작-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창작뮤지컬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크게 1)작품창작 지원사업, 2)인력 육성 지원사업, 3)유통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창작에서 유통까지 과정에 관련된 세 요소 – 작품제작 단계별 지원, 창작자 및 제작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작품유통 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시행하고 있음을 나타냄.
  -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의 경우 뮤지컬의 산업적 측면을 반영하여 기획과 경영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인력 육성 지원에 포함하며,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구성·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양상으로 보임.
  - 즉, 순수예술로 분류될 수 있는 타 장르로부터 독립하여 특성화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있음.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 사업과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사업은 또한 주관처 이관을 포함한 사업의 구조 및 내용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사업이 이전된 것은 2014년으로(단, 연극은 2015년) 지난 2년은 사업의 정책적 목적과 시행과정이 예술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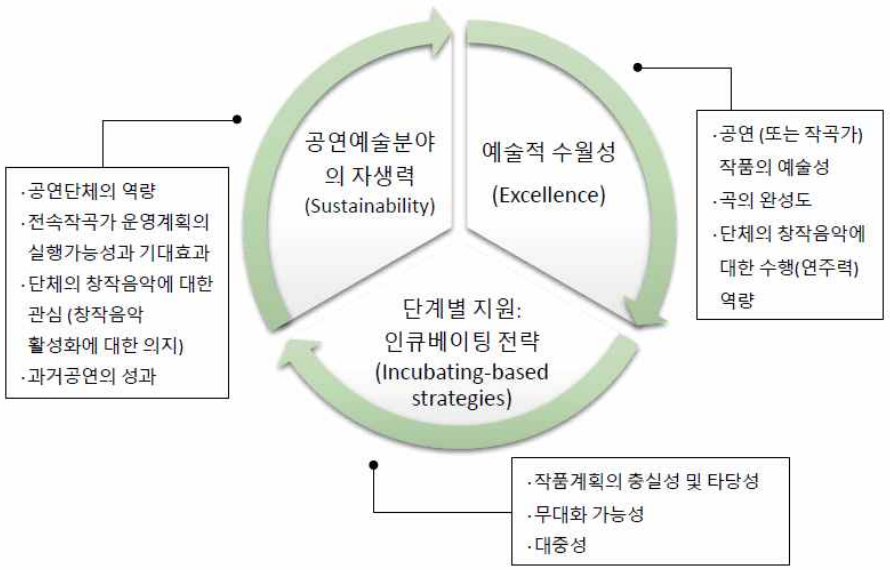
가운데 안착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심의기준은 지원작품 선정의 기본적 틀인 만큼 창작산실의 사업목표와 지향점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동 사업이 중심으로 삼는 개념 및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비율을 배재하여 살펴본 전 예술분야 심의기준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요소는 다음 세 가지로 함축되어 나타남: '작품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공연작품의 예술성', '공연단체의 역량.'
- 연극과 뮤지컬분야에서는 특징적으로 '대중성'을, 오페라분야의 경우 '대본(음악)공모'시 '곡의 완성도'를 기준에 포함하고 있음.
- 음악분야는 '연주단체의 창작음악에 대한 관심'이라는 항목과 더불어 '오작교 프로젝트'의 주요목적을 반영한 '전속작곡가 운영계획의 실행가능성과 기대효과'를 심사기준에 포함하고 있음.
- 우수 재공연의 심의기준에서는 연극분야가 타 분야와는 다르게 '과거공연의 성과'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심의기준의 세부내용에 있어 예술분야별로 특화된 내용보다는 공통된 부분을 다소 많이 보이고 있음.
  - 장르별로 동일한 기준의 심의내용을 두어 사업 전반적으로 일괄적인 심의과정을 거치는 것과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심의기준 설정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사업의 주요개념은 창작산실 사업목적과 심사기준을 근거로 하여 도출하였으며, 사업의 주요개념과 심의기준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그림 2-8] 창작산실 주요 개념 및 가치



□ 국내 유사사례의 공연예술 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시사점

- 서울문화재단의 '유망예술지원' 사업과 CJ 문화재단의 CJ azit의 모두 지원의 도가 문화예술계의 창작역량 제고와 새로운 창작작품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계의 체력 증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살펴보았으나 각각 세분화된 사업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 각각 다른 운영기관의 특성과 사업의 초점을 고려할 때, 사례 간의 직접적 비교 또는 세부사항 도입은 무리가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살펴 본 사례의 색다른 시도 및 운영과 관련한 시사점 도출은 향후 창작산실사업의 현장성 반영과 관련한 적절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명시함.
- 서울문화재단이 '유망예술지원'사업의 재단지원대상에게 최소 10%이상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하는 조건을 면제한 것은 앞서 언급되었던 소규모 연극산실 수혜작의 제작비가 총 제작 지원비보다 적은 경우의 난감한 상황에 대해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음.

- 다만, '유망예술지원'사업은 신인 창작 예술가 대상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할 필요는 있음

– 유망예술지원 사업의 연극과 시각예술 부문에서 동시대성을 심의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관객의 공감대 형성 및 창작작품의 레퍼토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에 따라 지원되도록 하는 것은 창작산실사업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사항으로 보임.

- 신인 창작예술가를 발굴하는 것이 창작산실사업의 목적이 아니며, 때로는 지원사업 과정 중 참여 예술가가 멘토링에 대한 불필요함 또는 불편함을 알려오는 경우도 있음(직원 인터뷰 2015).

– CJ azit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예술의 산업적 측면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으므로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됨.

- CJ azit 프로그램과 창작뮤지컬 육성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서 유사점이 많이 발견되나, 인적 네트워킹 형성을 도와 작품의 유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고려해볼만한 시사점이라고 생각됨.

– 문화예술산업 창작작품에 대한 유통 지원이 더욱 다양한 것을 비추어 볼 때에, 창작작품 유통과 관련하여 순수예술 장르와 산업적 장르의 차이점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제3장

해외 유사사례 연구

제1절 연구개요
1. 사례선정기준과 조사방법
2. 선정개요

제2절 미국 유사사례
1. Art works
2. Creation Fund
3. The Next Link Project

제3절 영국 유사사례
1. Grants for the Arts and Carnival
2. The Oxford Samuel Beckett Theatre Trust Award

제4절 캐나다 유사사례
1. Production Project Grants in Dance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제1절 연구개요

1. 사례선정기준과 조사방법

□ 해외 유사 사례조사는 미국, 영국, 캐나다, 캐나다를 중심으로 영미문화권을 위주로 실행되었으며, 미국 유사사례 3건, 영국 유사사례 2건, 캐나다 유사사례 1건 총 6개의 사례를 조사하였음. 유사 사례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이제까지 국내에 사례조사로 보고 된 적이 없거나 소개의 정도가 미미한 사례를 우선 선정
- 미국의 경우, 비영리기관 전문평가기관인 Guide Star[17]의 자료, 유관기관의 평가자료, 연차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기준으로 사례 검토
-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유관기관의 평가, 기관 자체평가보고서, 연차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기준으로 사례 검토
- 각 관련 자료 검토 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목표와 단계적 지원의 형태, 지원금의 규모, 장르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별함

□ 본 해외사례연구의 조사방법은 선정된 사례에 관련된 문헌분석을 기초로 함.

- 조사·분석된 자료는 관련 기관자료 및 공신력 있는 미디어 자료, 학술문헌 및 외부 평가자료 등이 검토됨.
- 공연예술 창작산실사업의 조사 및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관개관, 단체운영구조, 지원내용 및 방식, 그리고 심의과정 등이 분석된 자료의 근거로 사용됨.
- 검토된 문헌조사 결과는 추후 본 연구보고서의 시사점 도출에 근거 자료로 사용될 예정임.

17) 홈페이지: http://www.guidestar.org/

2. 선정개요

□ 미국 유사사례 지원정책

- Art Works
  - 주관기관: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장르: 무용, 디자인, 전통 예술(Folk & Traditional Arts), 문학, 음악, 오페라, 다원예술(Presenting & Multidisciplinary Works), 미디어 예술(Media Arts), 시각예술
  - 홈페이지: www.arts.gov/grants-organizations/art-works/grant-program-description
- Creation Fund
  - 주관기관: The National Performance Network
  - 장르: 현대(contemporary)공연예술과 시각예술
  - 홈페이지: http://npnweb.org/whatwedo/programs/creation-fund
- The Next Link Project
  - 주관기관: The New York Musical Theatre Festival
  - 장르: 뮤지컬
  - 홈페이지: http://www.nymf.org/programs/next-link-project

□ 영국 유사사례 지원정책

- Grants for the Arts and Carnival
  - 주관기관: 잉글랜드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이하 ACE)
  - 장르: 카니발 (공연예술, 시각예술, 융합예술, 문학 등 장르의 제한은 없으며 세부사업에 따라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하여 지원함)
  - 홈페이지: www.artscouncil.org.uk
- The Oxford Samuel Beckett Theatre Trust Award

- 주관기관: 주최-옥스퍼드 사무엘 베케트 극장 신탁(The Oxford Samuel Beckett Theatre Trust) 협력-바비칸 센터(Barbican Center)
- 장르: 신진 예술가의 예술성과 실험정신을 겸비한 공연예술작품
- 홈페이지: www.osbttrust.com

□ 캐나다 유사사례

- Production Project Grants in Dance
  - 주관기관: 캐나다 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이하 CCA)
  - 장르: 동시대 무용가와 전통무용가, 안무가의 창작 무용작품
  - 홈페이지: www.canadacouncil.ca

제2절 미국 유사사례

□ 미국 유사사례 논의에 앞 서, 미국과 우리나라 문화예술 행정구조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을 명시함.

- 미국정부는 시장논리에 근거한 예술시장에 간접적 지원을 주요특징으로 하는 'facilitator model'(협력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유사하게 중앙정부를 설립하고 그것을 중추로 하여 예술행정과 지원을 하는 'architect model'(설계자)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Chartrand and McCaughey 1989).
- 따라서 미국의 경우, 창작산실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례를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부분적으로라도 사업의 주요개념을 근거로 하는 해외 유사 예술지원사업을 살펴보는 것은 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한 부분 또는 방향을 타진해 봄에 있어 유의미한 조사임.

1.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Art Works'

□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이하 NEA)의 지원 프로그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독립된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예술위원회의 창작산실사업에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기관 개요

- NEA는 미 연방정부의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1965년 미 의회에 의해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2015년도 재정보고서 기준) US$50억(한화 약 6조450억 원) 이상을 문화예술계 지원에 투자하였음.
  - 2014년 6월 12일 미국 상원(US Senate)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제인 추(Jane Chu)를 NEA의 11대 의장으로 승인하였음.

- NEA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시민에게 다양한 예술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내에 창의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음.
  - NEA는 또한 주정부 예술 기관 및 타 중앙정부 부처, 지역 단체와 재단 등 여러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운영함.
- 2014년 NEA 총 예산은 US$146,021,000(한화 약 1,765억4천만 원)으로 2013년의 예산에 비해 US$7.6M(한화 약 91억9천만 원) 증가되었음.
  - NEA는 2014년 예산을 통해 3만개의 콘서트, 독회(문학), 공연예술과 3천개의 시각, 미디어 예술 전시를 지원(direct funding) 하였음.
- NEA의 지원 사업은 크게 단체, 개인, 주립예술단체와의 협력지원 세 가지로 분류됨.

□ 사업 개요 및 목표

- 'Art Works' 지원사업의 주요기조는 NEA의 중심 가치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Art Works"가 예술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예술 그 자체
  - 예술이 문화예술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
  - 예술가와 문화예술 전문가에게 예술이 미치는 영향
- NEA는 우수한 예술과 예술단체의 역량을 통해 예술의 가치 확대와 심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창의성 및 참신성의 전형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함.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새로운 예술 형태(art forms)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것을 발전시켜 예술 창작 및 발표의 새로운 시도 또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예술참여를 제시하는 프로젝트.
  - 독보적이며 신선한 시각과 가치로 해당 분야 기여할 수 있거나, 또는 공공분야에 진부하지 않은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작업.

- 해당 예술분야를 선도하며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 NEA는 'Art Works' 지원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창작(creation): 높은 기준의 수월성을 나타내는 예술창작.
  - 참여(engagement): 대중의 다양하고 우수한 예술에의 참여.
  - 학습(learning): 예술을 통한 평생교육.
  - 삶의 질(livability): 예술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

□ 'Art Works'가 포괄하는 지원 대상 분야 및 단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함.
  – 장르: 무용, 디자인, 전통 예술(Folk & Traditional Arts), 문학, 음악, 오페라, 다원예술(Presenting & Multidisciplinary Works), 미디어 예술(Media Arts), 시각예술, 예술교육
  – 단체: 예술가 공동체(Artist Communities), 미술관(Museums), 극장(Theater & Musical Theater), 지역예술기관(Local Arts Agencies)
  – NEA에서 구분하는 지원 가능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한 번 이상의 이벤트/행사 또는 활동을 포함한 것(예: 지원 단체의 시즌공연, 페스티벌 등).
    - 프로젝트의 부분별 또는 전 단계에 대한 지원 가능.
    - 신작이 아니어도 수월성이 포함된 프로젝트는 지원 가능.
    - 프로젝트의 규모에 대한 제한 없음.

□ 예술위원회의 창작산실사업과 중첩되는 장르는 무용, 음악, 오페라이며, 'Art Works'의 각 장르별 세부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무용:
    - 1)발레, 현대 무용, 재즈, 탭(tap), 힙합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과 규모의 무용공연(professional dance)을 지원하며,

- 2)무용의 역사와 관련된 무보와 공연 기록과 보존 및
- 3)페스티벌, 정기회의, 교육행사 등을 지원함.

– 음악:

- 클래식(classical)장르에서 현대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를 지원하고, 예술가 개발 프로그램 및 레지던시 등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함.
- 더불어 기존의 레퍼토리뿐만 아니라 참신한 창작 작품에 대한 지원도 격려함.

– 오페라:

- 풀 스테이지(fully-staged) 오페라와 오페라 콘서트와 같은 모든 형식과 규모의 우수 오페라 공연을 지원함.
- 새로운 작품이나 기존 오페라 작품의 녹음(recording)도 지원하며 예술가 개발 및 레지던스도 지원함.

□ 사업의 지원 규모 및 내용

– 지원금액은 프로젝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US$ 10K - 100K(한화 약 1180만원 - 1억 18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받음.

- 드물지만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의 영향력이 전 미국 지역에 미치는 등 확연하게 크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그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음.
- 'Art Works'는 최소 1:1 비율의 매칭(matching)을 증명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총 2차로 나뉘어 이루어짐.
- 지난 몇 년간, 절반이 넘는 경우의 지원 금액이 US$25K(한화 약 3천만원)이었음.

□ 심사과정

– 심사과정은 패널심사(panel review)방식으로 그 단계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담당직원 서류 적격여부 검토
- 2단계: 각 분야별 심사지표(review criteria)에 따른 패널그룹의 심사(closed session)후 선정 대상 프로젝트 추천
- 3단계: 패널심사를 통과한 지원 추천 리스트와 그 해 예산을 바탕으로 담당 직원이 지원액 조정
- 4단계: 미 국립예술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n the Arts)[18]에서 검토(open session)
- 5단계: 예술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추천서식으로 NEA 의장에게 제출
- 6단계: NEA 의장이 예술위원회에서 제출한 지원 추천서류 검토 후 최종 결정
- 심사 후 지원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원 단체는 결과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NEA 분야별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야 함.

– 연중 2회의 심사가 열리며 각 지원 단체는 1년에 1회 지원에 한함. 다음의 2016년도 서류제출기한을 통해 심사주기를 살펴볼 수 있음.

- 전기:
  1차 온라인 서류 제출(grants.gov): 2016.02.18
  2차 관련자료 제출(NEA-GO): 2016.02.25-2016.03.03
  낙선통보 2016년 11월부터
  지원작 공연시작 시기: 2017년 1월 1일부터
- 후기:
  1차 온라인 서류 제출(grants.gov): 2016.07.14
  2차 관련자료 제출(NEA-GO): 2016.07.21-2016.07.28
  낙선통보 2017년 4월부터
  지원작 공연시작 시기: 2017년 6월 1일부터

18) 미 국립예술위원회는 NEA 및 NEA 의장의 자문기관으로 주로 지원심사, 지원 가이드라인, 기관 전략 개발 및 추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 심사위원 지원부문의 규모에 따라 다수의 패널그룹이 선정되며, 패널그룹의 참여자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이 시행됨.

- 각 패널그룹은 해당 분야 예술 전문가 그룹과 1인 이상의 해당 장르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있는 비전문가로 구성됨.
- 패널그룹은 미 전역에서 모이도록 구성함.
- 패널 구성원(panel membership)은 주기적으로 변화됨.

2. The National Performance Network의 'Creation Fund'

□ 단체 개관

- The National Performance Network(이하 NPN)은 미국의 전 지역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로 예술가의 현대(contemporary)공연예술과 시각예술 창작 및 투어를 지원함.
  - 지난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 전 지역에 혁신적인 공연 예술가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현재 61개의 NPN Partners라는 이름의 회원단체(membership-based)와 함께 일하고 있음.
- NPN은 예술가 중심 및 현장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세워진 단체로 특별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
  - NPN의 회원제 구조는 폐쇄적인 특징(closed network)을 나타냄. NPN Partners 가입은 초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매년 기존 회원단체의 추천 및 자원단체의 신청을 받아 그 중 소수의 단체만 선정·승인함.
  - NPN Partners 회원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전략적으로 구조화된 협업을 만들어 냄.
- 예술가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경영자들의 모임으로 정의할 수 있는 NPN의 미션은 미국 대중의 예술 경험과 예술을 실현 및 생산을 위해 의미 있는 파트너

쉽과 리더쉽을 형성하여 분야에 기여하는 것임.

- 단체의 사업목표는 예술가와 NPN Partners과 협력하여 다양하고 실험적인 예술을 육성하는 것임.
-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음: 파트너쉽, 표현의 자유, 비판적 논의, 평생교육, 다양성, 사회를 위한 재정지원.

– NPN가 운영하는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공연 및 전시 투어를 통한 창의성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 문화·예술계의 역량 증강을 위한 지원
- 지역 및 미국 내 리더쉽 실행

□ 'Creation Fund'(창작 기금)사업의 개요 및 목적

– 'Creation Fund'는 예술창작지원 프로그램의 배경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고 있음.

- 1)새로운 공연예술의 창작 또는 발전과정, 그리고 조사 과정을 지원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현실인식과
- 2)아직 창작되기 이전의 예술작품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재정지원환경의 비합리성.

– 따라서 'Creation Fund'의 설립목적은 예술가에게 창작의 과정에 대한 직접적이고 부담이 없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이와 같은 창작에 대한 직접지원의 활성화임.

– 'Creation Fund' 지원 사업은 재정지원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예술가들의 작품이 새로운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 기관의 또 주요 목적은 기금사업(fund)을 통하여 예술가로 하여금 새로운 작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임.

– NPN의 'Creation Fund' 지원 사업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 지원(commissioning):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고자 하는 예술가 또는

예술 단체는 각기 다른 지역 공동체에 속한 2개의 공연장기관(commissioners)의 동의를 얻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 (단, 두 지원단체 중 하나는 NPN Partner이어야 함).

- 공연 레지던시(performance residency): 지원받은 예술가는 3년이라는 기간 안에 1주 또는 2주 기간의 공연 레지던시에 참여하여 작품 발표를 해야 함.

□ 사업의 지원 규모 및 내용

- NPN의 'Creation Fund'는 예술가에게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는 데에 최소 US$13,000(한화 약1525만원)을 지원함.
  - 지원여부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NPN Partners 회원의 추천 및 동의를 통하여 결정됨.
  - NPN Partners가 지원 대상 예술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시, 회원 소속 지역에 기반을 둔 지원자를 추천해야 함.
  - 선정된 예술가 또는 단체를 재정지원 함에 있어서는 동일 지역사회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한 지원 대상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마다 2개의 지원운영단체[19]가 매칭됨.
- 지원 선정 예술가/단체는 적어도 2곳에서 공연투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음.
- 지원 선정 예술가/단체는 NPN의 연간 모임 "Live & On Stage"에서 공연할 수 있는 후보대상이 됨.
- 또한 지원 선정작 중 선별된 작품은 추가적으로 US$15,000(한화 약1천8백만원)상당의 NPN의 'Forth Fund'를 받을 수 있음.

□ 'Creation Fund'는 다음의 재단 및 공공기관의 기금을 통해 운영됨.

- 도리스 듀크 재단(The Doris Duke Charitable Foundation)
- 포드 재단(Ford Foundation)

19) 지원운영단체는 공연장기관(presenting organizations)임.

-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NEA)

□ NPN이 비영리 단체이며, NEA가 그러한 NPN의 'Creation Fund'에 기금지원을 한다는 점은 예술위원회 역시 창작작품을 지원함에 있어 간접지원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제시함.

- 또한, NPN의 'Creation Fund' 사업은 창작과정 지원과 공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창작산실사업과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음.

3. The New York Musical Theatre Festival의 'The Next Link Project'

□ 단체 개요

- The New York Musical Theatre Festival(이하 NYMF)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뮤지컬 극장 페스티벌임.
  - NYMF는 비영리 단체인 National Music Theater Network, Inc.(전미뮤지컬극장네트워크)의 주력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뮤지컬의 창작, 제작, 발표를 육성하며 뮤지컬 극장의 향후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함.
  - NYMF는 매 해 여름 뉴욕시의 극장가의 중심에서 개최되며 프로덕션, 콘서트, 독회, 특별행사가 마련됨.
- NYMF는 새로운 공연,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인재가 뮤지컬 극장의 중심범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둠.
  - 뮤지컬 극장은 동시대의 현상과 철학에 의해 형성된다는 믿음에 기조를 둠.
  - 뮤지컬 극장의 활성화와 강성은 작품이 신선하고 시대 또는 관객과 연관성 여부에 달렸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함.
- NYMF는 뮤지컬 극장계를 활성화를 위해 스타일면이나 주제면에서, 또한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뮤지컬의 창작과 프로덕션, 발표를 육성·지원하는 사업임.

- NYMF는 2004년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총 350편 이상의 뮤지컬 공연을 올렸고 8천 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참여했으며 3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참여하였음.
- NYMF에서 소개되었던 뮤지컬 작품들과 예술가들은 브로드웨이, 오프-브로드웨이(Off-Broadway)를 넘어 전미 지역과 세계에서 활동하는 성공을 거두고 있음.

□ 'The Next Link Project' 프로그램의 개요 및 목표

- NYMF가 진행하는 주요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Next Link Project'는 제작된 작품 창작경력의 여부와 소속된 기획사(agency)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극)작가를 지원함.
- 'Next Link Project'는 뮤지컬 작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 마다 10팀의 뮤지컬 극작가들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의 지원 내용

- 최종 선정된 10개의 작품은 페스티벌에 공연을 올리기 전 준비과정 동안 세미나부터, 마케팅, 재원조성, 제작까지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제공됨.
- 대본 개발 과정(Developmental Reading Series)
  - 드라마투르기 스태프와의 미팅(3-4개월)
  - 대본에 대한 피드백 제공 및 교정 마감 시간/스케줄 제공
  - 필요에 따라 뮤지컬 출연진(creative team) 캐스팅에 대한 도움 제공
  - 독회, 3회의 공연(이 중 1회는 오픈공연(free admission)임).
  - 관객들에게 설문조사 실시(연출 및 극작법에 대한 내용) - 피드백은 그 다음 독회를 위한 대본 교정에 사용됨.
- 작품 제작(Full Productions)
  - 예술경영/기획에 대한 교육(entrepreneurial training)

- 네트워킹의 기회
- 드라마투르기 지원
- 참가비 US$5,000 지원

□ 심사과정

- 매해 가을, 전 세계의 지원자로부터 지원서 및 대본, 녹음 CD(demo recording)를 접수받음.
  - 심사과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본은 완성본을 제출해야 하고, 음악(노래)은 전체의 75%가 녹음되어 있어야 함.
- 제출한 대본과 데모 자료를 다수의 NYMF 대본 심사위원들(reading committee)이 심사함.
  - 대본심사과정은 2회 시행되며 블라인드 심사(blind screening) 형식으로 진행됨.
- 블라인드 심사를 통과한 최종 후보작들은 뮤지컬 극장의 최고 예술가와 프로듀서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Grand Jury)에 의해 심사되며, 그들의 결정에 따라 최종 10개의 뮤지컬 작품이 NYMF의 페스티벌 무대에 서게 됨.
  - 최종 단계 심사위원(Grand Jury)은 Tony Award®, Drama Desk Award, Outer Critics Circle Award, GRAMMY® 입상 경력이 있는 배우, 프로듀서와 유명 작가와 디렉터들로 구성되어 있음.

□ 작품창작 초기에 지원을 받아 마케팅과 제작 그리고 공연기회까지 부여하는 'Next Link Project'는 창작산실사업의 주요개념 중 하나인 인큐베이팅(incubating-based approach)과 높은 유관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단, 창작산실 또는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 사업과 'Next Link Project'의 차이점은 'Next Link Project'의 경우 제작비 직접지원 보다는 작품의 발전 과정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임.

제3절 영국 유사사례

1. Grants for the Arts and Carnival

□ 사업운영 기관 개요

- 잉글랜드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이하 ACE)는 영국의 매개자 모델 또는 공적 후원자(public patron) 모델의 핵심기관으로, 정부의 간섭과 예술계의 압력으로부터 이중적인 자율성을 견지하며 국가의 문화와 예술을 진흥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임
  - ACE의 모체는 대영예술위원회(Art Council of Great Britain)로 케인즈의 주도로 설립되어 영국의 문화행정을 대표하는 기관이었으나, 1992년에 국가유산부가 연방정부의 문화전담 부처로 창설되면서 1994년부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로 사분화 되었음
- ACE는 1994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 (모두를 위한 위대한 예술과 문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영국 정부와 국립복권청에서 예산을 교부 받아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ACE가 발표한 2015년부터 2018년 발표한 '영국 예술위원회 지원계획(Arts Council England Investment Plans)'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3-1> ACE 2015-2018 문화예술지원계획

예산항목	주요내용
예술단체 지원사업* (National portfolio)	- 대상: 670개 예술단체(Arts organizations) - 장르: 융합예술, 무용, 문학, 음악, 연극, 시각예술 - 목적: 전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예술의 발전 - 지원 예산: 연간 3억 4천만 파운드(약 5,955억 원)
박물관 지원사업 (Major partner Museums, MPMs)	- 대상: 영국 소재 박물관 - 목적: 재정지원을 통한 박물관 문화예술 활성화 - 지원 예산: 연간 2천 2백만 파운드(약 384억 원)

예산항목	주요내용
전략기금 (Strategic funds)	– 장르: 문학, 미디어, 음악 등 – 목적: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 지원 예산: 연간 1억 4백만 파운드(약 1,818억 원)
예술보조금 (Grants for the arts)	– 대상: 문화예술 단체 관계자, 개인 예술가 및 지역사회 – 장르: 무용, 시각예술, 문학, 연극, 음악, 융합예술, 교육 등 – 목적: 예술활동 지원 – 지원 예산: 연간 7천만 파운드(약 1,225억 원)

* 예술단체의 지원사업(National portfolio)의 경우, 대상이 '예술단체'에만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창작보다는 단체운영에 있어 필요한 자금지원(인건비, 건물관리, 홍보, 교육 등)으로 공연예술창작산실사업의 유사사례로 보기에는 거리가 있음.

□ Grants for the Arts 사업 개요 및 목표

– Grants for the Arts는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된 예술보조금으로 2003년부터 복권기금의 일부로 연간 7천만 파운드(약 1,225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예술가, 예술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예술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교육, 재무, 창작, 레코딩,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공연예술, 시각예술, 융합예술, 문학 등 장르의 제한은 없으며 세부사업에 따라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하여 지원함

– Grants for the Arts의 기본목표와 원칙은 국민의 문화예술참여와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grants)은 반드시 특정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사용되어야 함.

• 프로젝트 별 보조금의 규모는 천 파운드(한화 180만원)에서 10만 파운드(한화1억8천)이며, 프로젝트 예산의 90%까지 지원함. 각 프로젝트의 기간은 최대 3년임.

– 예술단체의 지원사업인 National portfolio의 수혜 예술단체는 Grants for the Arts에 중복지원이 불가함

□ Grants for the Arts and Carnival 사업 개요 및 목표

- Grants for the Arts and Carnival은 Grants for the Arts의 세부 보조금 항목 중 하나로 Grants for the Arts의 동일한 원칙과 목표 내에서 카니발 및 예술축제의 제작을 지원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갖고 있음
- 카니발의 경우 공연, 워크샵, 퍼레이드 등 다양한 요소를 혼합한 이벤트이지만,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의 주요 특징인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공연작품을 지원한다는 공통분모를 내포하고 있음
- Grants for the Arts and Carnival의 주요 목표는 예술성을 담보한 카니발 제작과 이를 매개로 한 시민참여임
  - 높은 예술적 완성도와 시민참여 기능을 갖춘 카니발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원서 작성 시, 희망 단체 및 개인은 반드시 예술성과 시민참여를 어떤 방법으로 획득할지를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카니발의 성격 상 행해질 수 있는 예술과 관계없는 활동(예: 음식만들기, 바디페인팅) 등은 지원 할 수 없음을 명시

□ Grants for the Arts and Carnival 지원 규모 및 내용

- 제작과정은 최대 3년으로, 카니발 별 지원규모는 천 파운드(한화 180만원)에서 10만 파운드(한화1억8천)임
  - 본 사업은 카니발 총 예산의 90%까지 지원하며, 예산항목에는 예측되는 수입과 지출 모두를 기재하여함
  - 예산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세부 지출 요목으로는 예술가 인건비, (시민참여를 위한) 워크샵 진행비용, 연습공간, 물품보관비, 운반비, 보험비, 홍보비용이 있음
- 카니발 제작을 위해 지원 가능한 요목은 매우 구체적이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 카니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제작될 다양한 장르의 공연 창작 비용
-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트레이닝 및 예술가 초청 비용
- 높은 수준의 예술가를 동반하는 시민참여기반의 창작 워크샵
- 카니발 운영에 쓰이는 각종 배너 및 의상, 마스크 제작비용
- 새로운 무용과 안무
- 콘서트 및 밴드 공연을 위한 인건비 및 작곡비용
- 퍼레이드 또는 카니발 행사에 필수적인 세트 제작비
- 투어 비용

– 카니발의 예술성 및 시민참여를 위해 지원서에 기술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작품 제작의 시간적 범위 및 로드맵, 참여예술가 또는 단체의 대표작, 경력 및 수상이력, 의상, 음악, 안무, 참여 예술가 및 인력 선택 기준, 각종 세트 디자인 제작 기획, 시민 참여 워크샵 기획 및 공간사용에 대한 계획

□ 심사과정

– 심사의 주요 기준은 4개 영역으로 지원자 또는 지원단체의 ① 예술성(artistic quality), ② 대중의 수용(public engagement), ③ 운영능력 (management), ④ 예산기획(finance)부분임

– 심사단계는 총 4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단계별로 심사위원단의 심의를 거치게 됨. 심사척도는 4점 척도 매우적절,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으로 분류함. 각 단계 별 주요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 1단계 적절성 검증(eligibility check):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자 또는 지원단체의 역량 및 세부기준에 대한 적절성
  - 2단계 위험요소 검증(risk check): 각 지원서에 기술된 구체적 달성목표를 저해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 검증

- 3단계: 예산적정성(appraisal): 지원서에 기술된 예산항목의 적절성
- 4단계 최종결정(final decision): 각 단계별 점수 합산 후, 분야(장르)별 균형 및 수혜지역 균형 고려 후 최종 결정

– 위 4단계의 심사과정은 총 12주가 걸리며, 최종결정 후 수혜자 또는 수혜기관은 공식레터와 함께 보조금 수령안내서와 계약서 등을 수령 하게 됨.

– 탈락자 또는 탈락 기관은 ACE로부터 탈락의 주요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차선책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됨. 만약 탈락자 또는 탈락단체가 이후 동일한 분야의 보조금 사업에 지원할 경우, 탈락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정된 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함

2. The Oxford Samuel Beckett Theatre Trust Award

□ 사업운영 기관 개요

– 옥스퍼드 사무엘 베케트 극장 신탁 상(The Oxford Samuel Beckett Theatre Trust Award, 이하 베케트 극장상)은 주최기관과 협력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운영됨

– 주최기관인 옥스퍼드 사무엘 베케트 극장 신탁(The Oxford Samuel Beckett Theatre Trust, 이하 OSBT 신탁)은 공연예술작품 제작비용을 부담하며, 협력기관인 바비칸 센터(Barbican Center)는 센터의 시즌 프로그램을 통해 수상작품 공연의 실연 및 홍보, 기술, 행정 지원 등을 담당함

– 주최기관인 OSBT 신탁은 '고도를 기다리며'의 작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사무엘 베케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1976년도에 창립되었으며, 동시대적이며 실험적인 예술을 지향하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신탁의 미션으로 두고 있음

- OSBT 신탁의 모체는 옥스퍼드 대학 중 하나인 St. Peter's College에서 1967년에 시작된 아방가르드 예술지원 프로젝트였으며, 1976년부터 OSBT

신탁으로 독립되어 운영됨

- 베케트 극장상은 OSBT 신탁에 의해 2003년부터 수상되기 시작함

– 협력 기관인 바비칸 센터(Barbican Center)는 홍보, 기술, 행정지원을 통해 바비칸 극장에서 수상작품의 무대실연을 담당함.

- 1982년 완공된 바비칸 센터는 런던의 대표적인 복합문화예술공간이자 다양한 예술공연과 컨퍼런스가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아트 컴플렉스임.
-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얄 세익스피어 컴퍼니(RSC)의 홈 공연장이기도 하며, 연중 미술, 음악, 영화,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바비칸 센터의 주요목표는 동시대 최고의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들의 공연과 전시 유치, 모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획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질적 수준 고취임.

- 바비칸 센터는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공연작품을 과감히 무대에 올림으로서 센터의 정체성과 명성을 강화해 왔음

□ 사업 개요 및 목표

– 베케트 극장상은 단순한 어워드의 개념이 아닌 실험적 공연예술작품의 창작과 개발, 제작, 실연과 홍보까지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으로 공연예술창작산실사업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음

– 베케트 극장상의 목적은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신 예술세대의 부흥을 위해 신진 예술가의 모험적 공연예술작품을 지원하는 것임.

– OSBT 신탁은 상업적 극장에 설 기회가 없는 도전적이며 실험적인 아방가르드 예술을 지향하는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열정과 재능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표로 삼고 있음

- 특히 예술성과 재능, 실험정신과 대담함으로 무장한 공연예술인 또는 공연예술단체에게 공연작품 제작부터 완성, 그리고 홍보까지 전문적 지원과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베케트상의 주요기능으로 소개하고 있음

- 베케트상은 매 해 세 단계의 심사를 거쳐 최종우수작품 한 편을 선정하며, 같은 해 바비칸 극장의 시즌 중 주요작품으로 관객과 예술계에 소개됨

□ 지원 규모 및 내용

- 베케트상의 구성은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 개발 보조금 (Research & Development Grant): 최대 £2,500 지원 (한화 약 450만원), 10편의 후보작품 중 3편 우수작품을 선정 후 지원
  - 공연제작 보조금 (Production Grant): 최대 £32,000 지원(한화 약 5,500만원), 3편의 우수작품 중, 시범공연 실연 심사를 통해 최종우수작품 1편을 선정하여 지원
  - 전문가 그룹 멘토링 지원
  - 조직 간 지원(In-kind Support): 바비칸 극장 측의 행정 및 기술 지원, 미디어 노출, 홍보마케팅 등 무대실연을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 단, 최종우수작품만 해당
- 최종우수작품에 한해서 개인이나 단체는 최대 £10,000 (한화 약 1,700만원)까지 다른 경로를 통해 제작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나, 타 기관의 조직 간 지원(in-kind support) 수혜는 불가함
- 공연작품의 제작기간은 약 1년으로 2017년도 바케트상 수상을 위한 지원서 마감은 2015년 12월임. 지원서 접수는 바비칸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함

□ 심사과정

- 베케트상의 지원 자격은 아래의 세부사항에 해당하여야 함
  - 영국 또는 아일랜드의 장기거주인 (3년이상)
  - 영국 또는 아일랜드 공연예술계에 대한 헌신
  -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 (장르 제한 없음)

- 영국 또는 아일랜드 내에서 공연 제작 경험 (최소 2~3회의 프린지 또는 동일한 스케일의 프로덕션 제작)
- 모든 지원서에는 예술감독(예: 디렉터, 안무가 등)이 명시되어야 함

– 베케트상의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풀타임 학업 종사자
  - 중견 이상으로 저명한 극장 무대에서 이미 활동 중에 있는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
  - 예술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이미 공연화 되어 실연된 작품
  - 예술감독이 명시되지 않은 지원서
– 베케트 극장상의 심사기준은 예술적 우수성, 공연예술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실험정신과 담대함이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임. 단, 대중성이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은 수상 선정기준에서 고려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 심사과정은 크게 총 3단계임
  - 1단계: 지원서 평가 / 후보작품 10편 내외 선정
  - 2단계: 면접 평가 / 최종후보작품 3편 선정 후 시범공연 제작비 지원
  - 3단계: 시범공연 평가 / 시범공연은 10분~30분 내외로 전문가 심사단과 시민 심사단을 통해 최종우수작품을 선정

제4절 캐나다 유사사례

1. Production Project Grants in Dance

□ 사업운영 기관 개요

- Production Project Grants in Dance는 캐나다 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이하 CCA)의 지원사업 중 하나로 수월성과 작품성이 탁월한 무용작품제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CCA는 1957년 창설되었으며, 팔길이 예술지원기관(arm's-length arts funding agency)으로서 '예술의 연구와 향유 및 작품 생산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음
- CCA는 2007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컨설팅을 통해서 예술위원회의 비전과 전략,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2008-2011년 전략 보고서 (Moving Forward)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정립된 다섯 가지 방향은 2011-2016년 전략 보고서(Strengthening Connections)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최근 CCA의 사업 및 운용의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표 3-2> 캐나다예술위원회(CCA)의 전략적 방향(2008-2016)

1. Individual Artists (개별 예술가 지원)	캐나다의 예술적 실천의 중심(core)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협업으로 일하고 있는 개별 예술가들에 대한 위원회의 헌신을 강화하기
2. Arts Organizations (예술기관 지원)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예술적 실천을 떠받치고 있는 예술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헌신을 확대하기
3. Equity (공정성 촉진)	캐나다의 예술적 열망을 완수함에 있어 공정성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리기
4. Partnership (파트너십을 통한 접근)	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임무 달성을 위한 위원회의 접근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로 만들기
5. Organizational Development (조직개발)	구조, 인력관리, 서비스 등을 강화함으로써 예술을 지원하고 변화를 실행하는 예술위원회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출처: 정종은 (2011), p. 19

□ 사업 개요 및 목표

- Production Project Grants in Dance (이하 PPGD)는 수월성과 작품성이 탁월한 무용작품제작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무용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이는 것을 그 목표로 함
- 다양한 문화에 기반을 둔 동시대 무용가와 전통무용가, 안무가의 작품제작 지원이 주목적이며 장르 제한은 없음
  - 예 : 캐나다 원주민 무용, 아프리카 무용, 발레, 바로크 무용, 브라질의 무술 춤, 플라멩고, 미디어를 활용한 무용, 동아시아 무용, 유럽 민속 무용, 중동 무용, 남아시아 무용 등
- 캐나다 예술위원회는 '작품'을 무용 신작 또는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 창작으로 규정함. 이는 현존하는 작품의 재해석 또는 전문 안무가에게 위촉한 신작 등이 해당됨
- 작품제작 지원사업으로 개인 또는 단체, 무용수와 안무가가 각자 지원할 수도 있으나, Ad Hoc 방식으로 팀을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사업 지원도 가능함. 단, 사업의 목적인 예술적 수월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원자의 자격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임
  - 개인 지원자는 반드시 신진(1~7년), 중견(7년~15년), 고경력(15년이상)으로 자신의 경력을 구분하여 지원해야하며, 최소 1년 이상 전문인력으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안무가의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지원 규모 및 내용

- PPGD는 캐나다의 모든 무용 형식과 장르 안에서 전문 무용가 또는 무용단체를 단기작품지원과 장기작품지원으로 나누어 선별하여 지원함
  - 단기작품지원 : 프로젝트 시작 후 24개월 이내에 작품이 완료되고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개별 작품에 대한 지원

- 장기작품지원 : 작품 완료 및 공연을 위해 2년~4년이 소요되는 작품에 대한 지원

– 단기작품지원 : 최대 $30,000 까지 신청 가능 함

– 장기작품지원 : 2년~4년간 최대 $100,000까지 신청 가능 함

- 지원금 수혜자는 지원금을 해당기간 내 적절히 배분 할 수 있지만, 첫 해 최대 50%까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함

– 작품제작에 대한 지원이 확정 되었을지라도, 전문가 심사과정에서 희망한 지원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안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준함

– 지원가능 금액 범위

- 안무료, 연출료, 공동연출료, 무대, 소품, 의상, 조명 디자인료
- 작곡료 및 객원 안무료 및 기술 지원, 매니저 비용, 행정 비용
- 예술가(협력예술가) 및 해외초청예술가의 교통비
- 각색료, 리허설 비용 및 창작 및 제작 비용
- 대관료 및 홍보/마케팅 비용

– 지원가능 금액 범위 외 기타 지출비용도 지원 가능

- 작품의 원숙미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초청 및 관객 시연 비용
- 무용수 장기 계약을 위한 비용 및 프로젝트 관리/사무비용

□ 심사과정

– 캐나다에서 무용계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평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전문가 그룹은 예술적 전문성과 성별, 연령, 영어/불어 사용여부, 캐나다 원주민, 종교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 선발 함

– 전문가 평가 위원회는 3~6명으로 구성되며, 평가 시마다 새롭게 구성함

– 전문가 평가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할 책임을 짐. 위원회 미팅 전에 심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열람 후, 심사 자료로 제출 된 시청각 자료를 검토·토

론 하며 최종 결정함

- 심사기준
  - 신청서를 기준으로 다른 작품 및 가용한 지원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과거 작품 실적 / 지원자의 예술적 경력에 따른 잠재적 기여도
  - 예술적 의도, 가치, 과정 등 참여 무용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 유사한 맥락의 작품들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우수성
  - 작품의 명확함과 제출한 자료들의 적절성
  - 이전 성과들에 근거한 협업의 가능성
  - 공연일정이나 기획사들의 관심 등 작품이 공연될 미래의 가시성
  - 무용수나 협력예술가가 각색 또는 재해석 할 수 있는 작품의 잠재적 가능성
  - 일반적인 실행 가능성 및 기한 엄수 여부
  - 협력예술가나 무용수의 출연료 지불가능 및 예상되는 수입 외 추가 재정적 수입 가능 여부
  - 작품의 규모 및 길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 위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우선 순위로 구분한 후, 동점자 발생 시 원주민 및 문화다양성, 지역공동체 및 장애인 작품 우대 선정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 해외유사사례 분석 결과 작품을 지원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각 사례의 정책사업 목표는 매우 뚜렷하며 명확한 점이 확인됨

□ 미국의 사례인 NEA의 'Art Works'는 ①창작(creation), ②참여(engagement), ③학습(learning), ④ 삶의 질(livability)을 부흥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를 위해 새로운 예술 형태(art forms)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것을 발전시켜 대중의 예술참여가 궁극적 목표임

□ 미국의 'Creation Fund' 지원 사업은 재정지원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예술가들의 작품이 새로운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 기관의 또 주요 목적은 기금사업(fund)을 통하여 예술가로 하여금 새로운 작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미국의 뮤지컬 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작품창작 초기에 지원을 받아 마케팅과 제작 그리고 공연기회까지 부여하는 'Next Link Project'는 뮤지컬 창작작품의 인큐베이팅(incubating- based approach)이 목적임

□ 영국의 Grants for the Arts and Carnival의 주요 목표는 예술성을 담보한 카니발 제작과 이를 매개로 한 시민참여로, 카니발의 경우 공연, 워크샵, 퍼레이드 등 다양한 요소를 혼합한 이벤트 제작임

□ 영국의 베케트 극장상 (The Oxford Samuel Beckett Theatre Trust Award)의 목적은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신 예술세대의 부흥을 위해 신진 예술가의 모험적 공연예술작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업적 극장에 설 기회가 없는 도전적이며 실험

적인 아방가르드 예술을 지향하는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열정과 재능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표로 삼고 있음

- 캐나다의 Production Project Grants in Dance 는 수월성과 작품성이 탁월한 무용작품제작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무용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이는 것을 그 목표로 함

□ 작품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 또는 단체에 대한 배려를 위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 있으며, 지원사업의 명확한 목적 및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주요 요소와 단계에 대한 부가설명이 충분히 제시됨. 또한 영국의 경우, 탈락자 또는 탈락단체에게 이유를 고시하는 등 심사과정에 생기는 투명성과 잠재적 불만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임 특징임

□ 지원금 분배에 있어, 지원 액수의 상한액수를 제시하지만 동일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음. 지원자 또는 지원단체는 작품규모에 따라 희망액수를 제시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희망액수에 비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공지하고 있음. 즉, 작품의 규모, 성격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확인됨

제4장

양적연구: 사업효과성 진단

제1절 효과성의 개념
제2절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설계
3. 수혜단체 현황
제3절 사업 지원효과
1. 지원단계별 사업지원 효과
2. 사업지원 계기 및 동기
3. 장르별 사업 지원효과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1절 효과성의 개념

□ 정책의 효과성은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음.

- 비용효과분석이란 정책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정책의 목적 혹은 목표를 표현하는 성과(outcome)지표를 설정하고 정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비용 대 효과를 살펴보고,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선택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임.
- 따라서 비용효과분석은 사회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인명과 연관되어 화폐 환산에 저항이 생기는 경우, 정책의 편익이 중간재로 머무는 경우(가령, 방위관계 서비스)에 비용편익분석의 유력한 대체 방법임.
- 이 방법은 정책효과를 대리 표현하는 적절한 성과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면 비용편익분석과 비교해서 쉽고도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실제로 비용편익분석을 행하는 것이 논리적·기술적으로 가능해도 분석에 필요한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비용효과분석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선택되기도 함.

□ 비용 vs. 성과(outcome)

- 지금 어떤 정책을 실시할 때의 비용을 C, 그 성과(outcome)를 O라고 나타낸다면 O/C가 단위비용당 성과가 됨. 그리고 이 값이 클수록 비용효과는 크게 됨.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 지수의 대소에 따라 비용대효과(outcome)의 서열을 매길 수 있음.
- 비용효과분석은 반드시 기회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화된 비용만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음. 정책의 분석·평가라는 의미로는 본래 기회비용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모든 기회비용을 화폐가치로 평가하기는 곤란함.
- 받은 예산에 대해 최대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정부·행정의 책무이며 Value

for Money라는 말로 표현됨

□ 비용효과분석의 한계

- 이상과 같이 비용효과분석은 쉬우면서도 낮은 가격으로 실시하기 쉽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결점이나 한계점도 지니고 있음.
- 첫 번째, 근본적 결점으로 정책이 사회적으로 실시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이 불가하다는 점이 제기됨. 어떤 정책의 비용과 효과(outcome)를 대비할 수 있을지라도 그 정책이 플러스적인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주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감함
  - 비용효과분석은 선택지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정책 수단이 보다 결과적으로 효과적인지를 비교할 때 편리함. 하루에 한 명만 방문하는 미술관이나 한 대 밖에 지나가지 않는 도로도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 받음.
  - 그러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용과의 대비로 그 비용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상회할 수 있는) 편익이나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임.
- 두 번째 문제점은 적절한 성과(outcome)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비용효과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지는 성과 지표 설정에 달려있음
  - 정책의 성과 혹은 사회적 편익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지표를 관찰 가능한 정보로 얻을 수 있는지 여부임. 현실적으로는 성과를 나타내는 정보 입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성과를 정책 결과가 아닌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나타내는 산출(output)지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음.
  - 정책에 따라서는 outcome과 output을 구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음. 성과 지표가 1개가 아닌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런 경우에 정책 수단의 서열을 어떻게 매겨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점도 있음.
- 세 번째 문제점은 비용효과분석은 유사한 정책 수단 사이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합할지라도 성질·내용이 다른 선택지 사이나 사업규모·예산규모가 다른 선택지 사이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어떤 정책 목적을 달성한 뒤에 여러 개의 정책 수단을 생각할 때는 성과(정책효과)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달성되어야만 하는 수준과 최대한 허용 가능한 비용 수준을 제약 조건으로 두고 그 제약 중에서 각 정책 수단의 가능과 불가능이나 서열 매김을 논의하는 방법도 있음.

제2절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의 목적

- 지원받은 다수의 단체로 확대하여 정책지원 효과를 더욱 더 객관화시키는 방법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함.
- 설문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단계별 효과에 대한 파악, 우수작품 제작지원 및 우수작품 재공연 수혜단체의 지원 이후의 실태에 대해 파악 하고, 사업의 효과성 판단 근거를 도출함.
- 구체적으로는 어떤 장르가 지원단계별로 어떤 단계가 더 효과적이었는지를 설문결과로 얻고자 함.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구조와 설문조사 방향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은 연극, 무용(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오페라, 뮤지컬. 음악(오작교 프로젝트)으로 5개 장르로 구성되어 있음. 무용의 경우, 2013년부터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이 통합되어 무용으로 사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시범공연, 우수작품 제작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으로 지원단계가 구성되어 있음. 연극과 뮤지컬은 위의 단계에 대본공모가 추가적으로 있음. 음악은 위의 지원단계로 구분없이 지원하고 있음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목적이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 제작의 전 과정을 경쟁을 통해 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우수공연의 자생력 확보 및 대표 공연 레퍼토리를 육성하는 것이므로, 공연이 완성되어 공연하는 우수작품 재공연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함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악을 제외한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은 시범공

연 → 우수작품 제작지원 → 우수작품 재공연으로 단계별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지원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장르별 성과 및 효과를 최종단계인 우수작품 재공연에 당선된 공연단체를 중심으로 파악할 것임. 재공연을 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시범공연과 우수작품제작지원을 받은 단체이므로 단계별 지원에 대한 성과도 동시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임.

※ 단, 뮤지컬의 경우 우수제작지원에 선정되지 않고도 우수작품재공연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설문조사 설계

□ 설문지 구조 및 내용

- 설문지의 내용은 사업의 구조가 동일한 연극/무용/오페라/뮤지컬은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고 음악은 별도 설문지 작성하여 사용함. 음악의 경우, 전속작곡가에 대한 부분을 설문에 추가함
- 본 조사의 목적이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의 효과와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설문구조로 설문함(부록의 설문지 참조)

1 일반 현황 2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 현황 3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 계기 및 동기 4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효과 5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 위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한 설문항 외에 실태조사에 대한 문항을 추가
  우수제작지원과 재공연지원을 받은 공연단체에 한해서 지원 이후의 작품 공연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함.

□ 장르별 설문 표본 모집단 현황

-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이 실시 운영된 2008-2015년간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공연단체 중 연락처가 확보된 176개 공연단체를 표본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음.

<표 4-1> 연도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 선정 공연작품 모집단 현황

분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극	16	14	14	13	14	22	33	26
무용(발레)	-	-	-	11	12	10	34	38
뮤지컬	13	13	14	12	10	16	19	9
오페라	-	-	6	7	7	5	7	8
음악	-	-	-	-	-	-	8	5
합계	29	27	34	43	43	53	101	86

- 설문조사를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수혜 작품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동일 작품이 지원단계별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의 성격을 반영하여 연락처가 확보된 공연단체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함.
  - 발레는 2013년부터 무용으로 개명되고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으로 세부분야가 나눠져 있음.
  - 음악분야는 오작교프로젝트와 창작음악 활성화 프로젝트의 공연단체임.

□ 장르별 유효 설문 조사 현황

- 연락처가 있는 공연단체 총 176개 단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 176개 공연단체 대상 중 거절(7건), 결번 등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27건), 비수신(69건)등의 이유로 최종 60개 공연단체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음
- 60개 공연단체는 아래의 <표 4-2>와 같이 구성됨. 연극 12개, 무용 21개, 뮤지

컬 13개, 오페라 9개 음악 5개 공연단체임

<표 4-2> 장르별 설문 공연 단체 수

장르	모집단 공연단체	응답 공연단체
연극	63	12(20%)
발레(무용)	41	21(35%)
뮤지컬	24	13(22%)
오페라	19	9(15%)
음악	29	5(8%)
합계	176	60(100%0

- 조사 방법은 1차적으로 전화로 본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사에 응하는 관계자에게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설문지를 제공하고 이후 회신 받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3. 수혜단체 현황

□ 공연단체의 창단

- 전체 공연단체의 50%가 2006년 이후에 창단한 단체로서 공연 이력이 대체로 짧음.
- 특히 무용단체의 경우 2011년 이후에 설립한 단체가 40%를 넘으며 음악단체와 연극단체의 경우 1995년 이전에 설립한 단체가 25%를 차지함.

<표 4-3> 설문 공연단체의 일반 현황

		사례수	비중	뮤지컬	연극	무용	음악	오페라
				%	%	%	%	%
전 체		(60)	100.0	21.7	20.0	35.0	8.3	15.0
▣ 창단 (설립)연도	1995년 이전	(8)	13.3	0.0	25.0	12.5	25.0	37.5
	1995년~2000년	(13)	21.7	15.4	15.4	46.2	15.4	7.7
	2001년~2005년	(9)	15.0	0.0	44.4	44.4	0.0	11.1
	2006년~2010년	(11)	18.3	54.5	18.2	18.2	0.0	9.1
	2011년 이후	(19)	31.7	26.3	10.5	42.1	5.3	15.8
▣지 역	서울	(44)	73.3	25.0	27.3	31.8	6.8	9.1
	경기	(9)	15.0	11.1	0.0	55.6	22.2	11.1
	대전, 충청	(2)	3.3	0.0	0.0	50.0	0.0	50.0
	광주, 전라	(3)	5.0	0.0	0.0	0.0	0.0	100.0
	대구	(1)	1.7	0.0	0.0	100.0	0.0	0.0
	제주	(1)	1.7	100.0	0.0	0.0	0.0	0.0
▣ 단체규모 (전임자수)	5명 이하	(19)	31.7	42.1	5.3	42.1	5.3	5.3
	6~10명	(8)	13.3	37.5	12.5	50.0	0.0	0.0
	11~20명	(11)	18.3	9.1	45.5	27.3	9.1	9.1
	21~40명	(12)	20.0	0.0	25.0	41.7	8.3	25.0
	41명 이상	(9)	15.0	11.1	22.2	0.0	22.2	44.4
	모름/ 무응답	(1)	1.7	0.0	0.0	100.0	0.0	0.0
▣법적 위상	재단법인	(1)	1.7	0.0	0.0	0.0	100.0	0.0
	사단법인	(10)	16.7	0.0	0.0	20.0	30.0	50.0
	상법인	(3)	5.0	66.7	0.0	33.3	0.0	0.0
	비법인 사설단체 (민간/임의)	(31)	51.7	16.1	32.3	35.5	3.2	12.9
	기타	(15)	25.0	40.0	13.3	46.7	0.0	0.0

□ 지역별 분포

- 서울지역에 73%,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전체 공연단체의 88%가 분포함.

- 지역에 대한 배려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공연단체는 대부분 수도권 공연단체인 것으로 파악됨.

□ 공연단체 규모

- 전임자 5명 이하의 공연단체가 32%로 소규모 공연단체가 많음.

  * 전임자 수는 4대 보험가입자를 말하며 상근 및 비상근자로 구분하였음.

□ 공연단체의 법적 위상 및 성격

- 공연단체의 법적 위상은 대체로 비법인 사설단체의 민간 및 임의 단체가 31개로서 52%를 차지함.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으로부터 수혜 받은 작품(공연) 현황

- 설문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그간(2008년~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지원단계별 사업지원을 한번이라도 받은 경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
  - 동일 작품으로 시범공연지원, 우수작품 제작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대본공모지원을 받았으면 모두 체크를 한 것이며 동일 공연단체가 다수 작품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별개로 간주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음.
- 총 60개 설문대상 공연단체 중 60개 공연단체가 설문에 응답하였음. 연극은 총 21개 작품, 무용은 44개 작품, 뮤지컬은 32개 작품, 오페라는 10개 작품, 음악은 5개 작품임.
- 연극, 무용, 뮤지컬에서 공연단체 1개 당 평균 2개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됨.

<표 4-4> 지원단계사업 지원받은 작품 수

장르	1.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2. 우수작품 제작지원	3. 시범공연 지원	4. 대본공모 지원	기타 (음악)	응답한 공연단체 수	공연단체 당 평균 지원 건수
연극	3	9	8	1	-	12	1.8
무용	13	18	13		-	21	2.1
뮤지컬	6	11	9	6	-	13	2.5
오페라	1	5	4			9	1.1
음악					5	5	1.0
합계	23	43	34	7	5	60	1.9

□ 지원단계별 수혜 작품 현황

-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은 23개, 우수작품 제작지원은 4개, 시범공연 지원은 34개, 대본공모지원은 7개, 음악은 5개 작품임.

□ 지원단계별 지원금액의 충당 비중

-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각 지원단계에서 작품제작 총 비용 중 어느 정도로 충당이 되었는지 파악함.
-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금은 전체 공연비용의 64%를 충당함. 우수작품 제작지원은 73%, 시범공연지원은 86%, 대본공모는 75%임.
- 음악분야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전체 비용에서 73%를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4-5> 지원단계별 지원금액과 충당비중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우수작품 제작지원		시범공연 지원		대본공모 지원		음악	
	지원금액 (백만원)	충당비중 (%)	지원금액 (백만원)	충당비중 (%)	지원금액 (백만원)	충당비중 (%)	지원금액 (백만원)	충당비중 (%)	지원금액 (백만원)	충당비중 (%)
전 체	92.8	64.2	95.1	72.9	19.2	85.8	20.0	75.4	132.0	73.4
뮤지컬	200.0	43.0	135.0	61.2	29.4	73.3	20.0	69.3		
연극	66.7	66.7	96.3	85.6	12.1	97.1	10.0	100.0		
무용	45.0	70.5	54.3	79.2	14.2	80.0				
음악			97.5	72.5					132.0	73.4
오페라	150.0	100.0	150.0	55.0	2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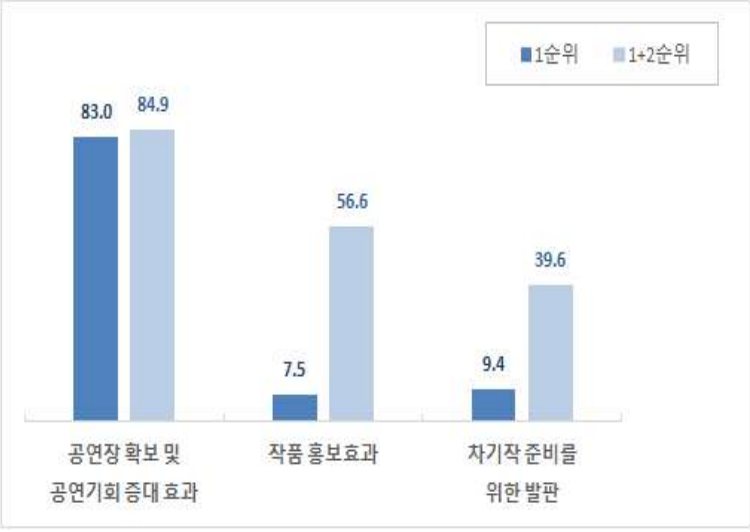
제3절 사업 지원효과

1. 지원단계별 사업지원 효과

□ 우수작품 재공연 및 우수 제작 지원사업 단계의 지원 효과 지원단계별 효과

- 우수작품 재공연 및 우수 제작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동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효과 및 실익이 컸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함
- 우수작품 재공연 및 제작 지원단계에서의 효과로는 공연장 확보 및 공연 기회 증대효과가 압도적으로 높음
- 다음으로는 작품의 홍보 효과 제고와 차기작 준비를 위한 발판이 된다고 함

[그림 4-1] 우수작품재공연/제작지원 사업 효과 및 실익 - 1순위+2순위 포함



<표 4-6> 우수작품재공연/제작지원 사업 효과 및 실익 - 1순위, 1+2순위

		사례수	공연장 확보 및 공연기회 증대에 가장 효과가 있었다.	차기작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작품의 홍보효과가 가장 컸다.
			%	%	%
1순위	전체	(53)	83.0	9.4	7.5
	뮤지컬	(12)	75.0	16.7	8.3
	연극	(10)	90.0	10.0	0.0
	무용	(21)	81.0	4.8	14.3
	음악	(4)	100.0	0.0	0.0
	오페라	(6)	83.3	16.7	0.0
1순위+2순위 통합	전 체	(53)	84.9	39.6	56.6
	뮤지컬	(12)	75.0	33.3	58.3
	연극	(10)	100.0	40.0	40.0
	무용	(21)	81.0	38.1	61.9
	음악	(4)	100.0	75.0	25.0
	오페라	(6)	83.3	33.3	83.3

□ 시범공연 및 대본공모 지원사업 단계의 지원 효과

- 시범공연과 대본 공모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작품을 가진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동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효과 및 실익이 컸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함.
-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을 포함한 두 경우 모두에서 작품을 완성하는 데 효과가 가장 높다고 응답을 하였음.
- 반면 시범공연 및 대본 공모 지원에 따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 시범 공연 및 대본 공모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해 모름 또는 무응답 비중이 23%임. 이렇게 동 지원단계에서의 효과에 대해 수혜 공연단체의 인지 수준이 낮은 것은 실제 효과에도 미미하거나 모호함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4-2] 시범공연/대본공모지원 사업 효과 및 실익 – 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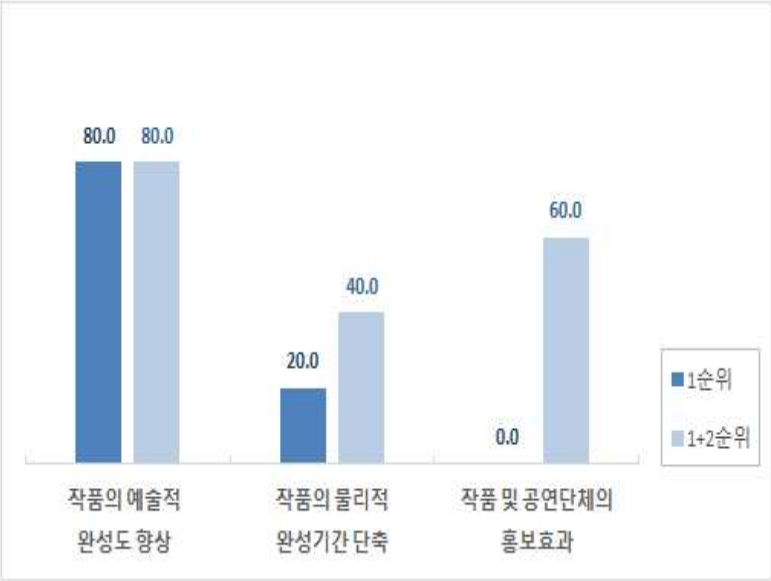
<표 4-7> 시범공연/대본공모지원 사업 효과 및 실익 – 1순위+2순위

		사례수	작품을 완성하는 데 효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효과	재공연 및 제작 지원을 받기 위한 기회를 얻는 효과	모름/ 무응답
			%	%	%	%
1순위	전체	(35)	48.6	14.3	14.3	22.9
	뮤지컬	(9)	55.6	11.1	0.0	33.3
	연극	(8)	62.5	25.0	12.5	0.0
	무용	(13)	46.2	7.7	15.4	30.8
	음악	(1)	0.0	0.0	100.0	0.0
	오페라	(4)	25.0	25.0	25.0	25.0
1순위 + 2순위 통합	전체	(35)	74.3	48.6	20.0	22.9
	뮤지컬	(9)	66.7	33.3	22.2	33.3
	연극	(8)	100.0	50.0	25.0	0.0
	무용	(13)	69.2	53.8	15.4	30.8
	음악	(1)	0.0	100.0	0.0	0.0
	오페라	(4)	75.0	50.0	25.0	25.0

□ 음악분야에 대한 지원 효과

- 음악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동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효과 및 실익이 컸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함
-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가장 컸고, 작품 및 공연단체의 홍보효과, 작품의 물리적 완성기간 단축 순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4-3] 음악분야 지원에 따른 사업 효과 및 실익 - 1순위+2순위



□ 사후 실태

- 우수작품 및 우수작품재공연지원 사업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이 있다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해외 진출 또는 지방 초청 공연으로의 연계와 같이 제작한 공연 작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음.

<표 4-8> 우수작품제작/재공연지원 사업 이후 효과극대화 의견

설문 응답 의견	전체(n=53)	
	사례수	비율(%)
해외 진출 기회 및 지원	(8)	15.1
지속적인 지원	(4)	7.5
지방초청공연으로의 연계/ 지방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	7.5
지원금 확대	(3)	5.7
다양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 마련	(3)	5.7
단발성 지원이 아닌 레퍼토리화를 시킬 수 있는 지원 시스템 필요	(3)	5.7
장기적인 지원금 제공	(2)	3.8
레퍼토리 유통과정 필요	(2)	3.8
공연장 지원	(2)	3.8
지역문예회관과 연계된 사업	(2)	3.8
다양한 장르의 수혜 적용	(1)	1.9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 (규제가 풀렸으면)	(1)	1.9
현실에 맞는 지원	(1)	1.9
공연들을 자체 기획하여 지방이나 문화소외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제공	(1)	1.9
우수작품 및 우수작품재공연 지원에 참여했던 무용단의 다른 작품에 지원	(1)	1.9
창작극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	(1)	1.9
창작산실 어워즈 개최	(1)	1.9
한문위 소유 대관료 할인	(1)	1.9
제작 투자 지원	(1)	1.9
우수작품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 위주의 재공연 지원사업의 확대	(1)	1.9
모름/ 무응답	(18)	34.0

□ 우수작품 제작지원 및 우수작품 재공연 이후 해당 공연으로 국내외 공연을 실시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전체의 약 70%의 공연단체가 지원 작품을 대상으로 한 해외 및 전국 공연 경험이 없음
- 지원사업을 통해 단지 20% 만이 전국공연을 실시하였으며, 해외공연은 4%에 불과함.

– 이중 뮤지컬이 지원사업 이후 실제 전국공연을 한 경우나 향후 전국공연이 계획된 경우를 모두 합해 42%로서 다른 장르에 비해 가장 높음.

<표 4-9> 지원 사업 이후 국내외 공연 실시이력 및 계획

	사례수	해외/전국공연 이력 및 계획 없음		지원사업 이후 전국공연 실시			
		공연 단체 수	비율(%)	공연 단체수	비율(%)	공연횟수 (평균)	공연 횟수 (합계)
전체	(53)	(37)	69.8	(11)	20.8	14.9	149
뮤지컬	(12)	(7)	58.3	(4)	33.3	43.7	131
연극	(10)	(9)	90.0	(1)	10.0	5.0	5
무용	(21)	(13)	61.9	(5)	23.8	2.4	12
음악	(4)	(3)	75.0				
오페라	(6)	(5)	83.3	(1)	16.7	1.0	1

	사례수	지원사업 이후 해외공연 실시				향후 전국공연 계획		향후 해외공연 계획		계
		공연 단체 수	비율 (%)	공연횟수 (평균)	공연횟수 (합계)	공연단 체수	비율 (%)	공연 단체수	비율 (%)	%
전체	(53)	(2)	3.8	2.5	5	(2)	3.8	(1)	1.9	100.0
뮤지컬	(12)					(1)	8.3		0.0	100.0
연극	(10)								0.0	100.0
무용	(21)	(1)	4.8	2.0	2	(1)	4.8	(1)	4.8	100.0
음악	(4)	(1)	25.0	3.0	3				0.0	100.0
오페라	(6)								0.0	100.0

□ 사후 실태 현황

– 지원받은 작품을 통해 전국공연이나 해외공연을 실시했거나 전국공연 및 해외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작품 제작지원 및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이후 실제 공연을 하거나 공연 계획을 잡았던 시기에 대해서 설문함.

- 실제 전국공연이나 해외공연은 우수작품 제작 지원 기간.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 기간,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 완료기간에 있어서 비슷한 비중으로 공연을 실시하였음

<표 4-10> 우수작품제작/재공연지원 사업 이후 공연계획 단계/시점

		사례수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기간 중	우수작품 제작지원 기간 중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완료 후	모름/ 무응답	계
			%	%	%	%	%
전	체	(17)	29.4	23.5	23.5	23.5	100.0
	뮤지컬	(5)	40.0	40.0	0.0	20.0	100.0
	연극	(1)	0.0	0.0	0.0	100.0	100.0
	무용	(8)	37.5	25.0	37.5	0.0	100.0
	음악	(2)	0.0	0.0	0.0	100.0	100.0
	오페라	(1)	0.0	0.0	100.0	0.0	100.0

2. 사업지원 계기 및 동기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에 지원한 동기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에 공연단체가 지원하게 된 동기는 1순위의 응답에서 육성지원사업의 취지가 당 공연단체의 공연 컨셉과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았으며, 공공지원을 받아야 공연 창작과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그 다음으로 높음.
- 2순위까지를 포함한 중복응답에서는 창작산실 육성사업의 취지가 당 공연단체

의 공연 컨셉과 부합하기 때문에, 공공지원을 받아야 공연 창작과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의 소개로, 공공지원을 받아야 투자를 받기 쉽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등의 순으로 설문 응답함.

[그림 4-4]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지원동기 - 1+2순위

<표 4-11>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에 지원 동기

		사례수	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취지가 당 공연단체의 공연 컨셉과 부합하기 때문	공공지원을 받아야 공연 창작과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
			%	%	%
■ 전 체 ■		(60)	55.0	45.0	100.0
장 르	뮤지컬	(13)	38.5	61.5	100.0
	연극	(12)	41.7	58.3	100.0
	무용	(21)	57.1	42.9	100.0
	음악	(5)	100.0	0.0	100.0
	오페라	(9)	66.7	33.3	100.0

		사례수	공공지원을 받아야 공연 창작과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취지가 당 공연단체의 공연 컨셉과 부합하기 때문	외부의 소개로 창작산실 육성사업에 참여	공공지원을 받아야 외부로부터 투자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
			%	%	%	%	%
전	체	(60)	86.7	80.0	10.0	8.3	1.7
	뮤지컬	(13)	84.6	53.8	15.4	23.1	0.0
	연극	(12)	83.3	91.7	8.3	0.0	0.0
	무용	(21)	90.5	85.7	9.5	4.8	4.8
	음악	(5)	100.0	100.0	0.0	0.0	0.0
	오페라	(9)	77.8	77.8	11.1	11.1	0.0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재원배분

- 공연단체 입장에서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총 재원이 10점이라면 단계별 지원, 즉 시범공연 지원, 우수작품 제작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지원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로 배분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함.
- 평균적으로는 우수작품 제작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시범공연 지원 순으로 지원규모도 그에 상응하는 규모를 배분하였음
-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우수작품 제작지원에 대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적임.

<표 4-12>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재원배분

		사례수	시범공연지원	우수작품 제작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평균(점)	평균(점)	평균(점)	합계
■ 전 체 ■		(60)	2.30	4.18	3.52	10
▣장 르	뮤지컬	(13)	2.22	4.28	3.51	10
	연극	(12)	2.00	4.25	3.75	10
	무용	(21)	2.16	4.15	3.70	10
	음악	(5)	3.00	3.80	3.20	10
	오페라	(9)	2.78	4.22	3.00	10

3. 장르별 사업 지원효과

□ 전체적인 성과

-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공연단체가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사업으로 우수작품 제작지원 및 우수작품재공연으로 지원받은 작품은 지원받지 않은 작품에 비해 전체적으로 성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실시하였음
- 위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5점 척도로 설문 응답을 받았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수혜 공연단체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4.24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 오페라가 4.67로 가장 높고, 음악이 3.67로 가장 만족도가 낮음.
- 연극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와 거의 그렇지 않다의 비중의 합이 17%로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13>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과 그 외 사업 성과차이

	사례수	①전혀 그렇지않다	②거의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	%	%	%
	(60)	1.7	3.3	18.3	21.7	55.0
뮤지컬	(13)	0.0	7.7	15.4	7.7	69.2
연극	(12)	8.3	8.3	25.0	25.0	33.3
무용	(21)	0.0	0.0	14.3	28.6	57.1
음악	(5)	0.0	0.0	40.0	40.0	20.0
오페라	(9)	0.0	0.0	11.1	11.1	77.8

	사례수	◐BOT2 (①+②)	◐MID (③)	◐TOP2 (④+⑤)	계	▶평균◀
		%	%	%	%	(5점척도)
	(60)	5.0	18.3	76.7	100.0	4.25
뮤지컬	(13)	7.7	15.4	76.9	100.0	4.38
연극	(12)	16.7	25.0	58.3	100.0	3.67
무용	(21)	0.0	14.3	85.7	100.0	4.43
음악	(5)	0.0	40.0	60.0	100.0	3.80
오페라	(9)	0.0	11.1	88.9	100.0	4.67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통해 사업 지원 전후의 차이를 파악하였음.
- 귀 공연단체는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을 받기 전과 후로 나누어 공연단체 운영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몇 %정도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 비교의 기준은 관람객의 수와 같은 계량적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작품의 질적 향상과 같은 정성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
-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 전후를 비교한 공연단체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51%이상이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1%~30%가 약

22% 비중을 차지하였음.

-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을 받기 전보다 받은 후에 변동이 없거나 더 나빠졌다는 의견이 약 17%인데 반해, 좋아졌다는 의견이 83%로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에 대한 지원에 따른 전반적인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됨.

<표 4-14>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 전후 공연단체 운영실적 평가

	사례수	받기 전보다 나빠졌음	변동 없음	받은후 0-10%	11-30%	31-50%	51% 이상
		%	%	%	%	%	%
전체	(60)	3.3	13.3	10.0	21.7	18.3	33.3
뮤지컬	(13)	7.7	7.7	15.4	38.5	0.0	30.8
연극	(12)	8.3	16.7	16.7	8.3	16.7	33.3
무용	(21)	0.0	9.5	4.8	19.0	38.1	28.6
음악	(5)	0.0	20.0	0.0	40.0	20.0	20.0
오페라	(9)	0.0	22.2	11.1	11.1	0.0	55.6

- 앞에서 지원 전후로 플러스의 효과를 본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문8-1. [문8의 ④,⑤,⑥ 응답자 대상) 어떤 측면에서 성과가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물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재정적인 지원으로 인해 공연작품의 질적 향상에 신경 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높았음. 또한 창작산실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공연시장에서 홍보효과를 거두어 작품의 인지도나 관람객의 확보에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4-15>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우수 성과 요인

	전체(n=44)	
	사례수	비율(%)
재정적인(경제적) 부문에서의 도움/ 재원 조성의 안정성/ 높은 지원금	(13)	29.5
작품의 질적 향상/ 작품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짐	(11)	25.0
브랜드 홍보 효과	(8)	18.2
작품에 전념할 수 있음	(7)	15.9
배우, 스탭의 개런티를 제때 지급	(4)	9.1
세트와 장치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 세트와 장치 등의 질적 향상	(4)	9.1
다시 공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재공연 가능	(3)	6.8
작품 제작, 개발 가능	(3)	6.8
관람객 수 증가	(3)	6.8
작품의 인지도 상승	(1)	2.3
실력 있는 스태프진 구성 용이	(1)	2.3
전문가 멘토링	(1)	2.3
홍보 효과로 인한 수월한 투자금액 유치	(1)	2.3
새로운 스타일을 공연 작품을 소개하는 단체로 인식되는데 기여	(1)	2.3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레퍼토리 확보	(1)	2.3
공연 기회의 증가	(1)	2.3
공연의 유통, 상품화 가능	(1)	2.3
레퍼토리 개발	(1)	2.3
전속 작곡가 배정	(1)	2.3
관람객에게 공연티켓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1)	2.3
관객으로부터 신뢰도 향상	(1)	2.3
게스트 무용수들도 참여 시킬 수 있는 공연	(1)	2.3
타 장르 무용인들을 비롯한 평단에서도 관심을 가짐	(1)	2.3
창작 뮤지컬 컨텐츠의 확보	(1)	2.3
모름/ 무응답	(1)	2.3

- 앞에서 지원 전후로 마이너스 효과를 본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지의 [문8]의 ①과 ② 응답자 대상) 어떤 측면에서 성과가 좋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물은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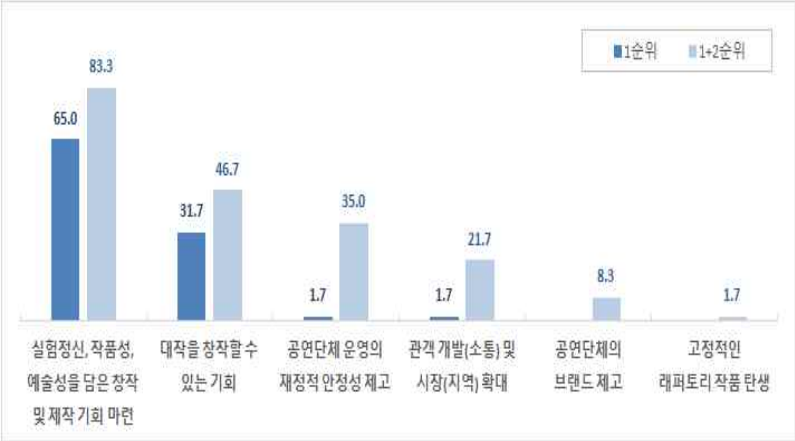
- 지원금액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이는 위의 제작비용 충당 비중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창작산실 육성사업의 지원금이 제작이나 재제작이 필요한 비용의 100%을 지원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수혜 단체의 반응으로 볼 수 있음
- 그 외에 후속 지원의 부족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됨.

<표 4-16>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 비 우수 성과 요인

	전체(n=16)	
	사례수	비율(%)
지원금이 적어 제작비에 미치지 못함	(3)	18.8
지원금이 적음	(2)	12.5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	(2)	12.5
지원금이 적어 작품 완성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	(1)	6.3
공연단체의 운영이 아니라 단체의 해당 작품의 완성도에 이바지함	(1)	6.3
정식 무대 공연의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음	(1)	6.3
추가 재원 조성의 어려움	(1)	6.3
지속적인 지원의 부족	(1)	6.3
최종 지원대상 단체를 뽑지 않음(후속 지원이 불충분)	(1)	6.3
모름/ 무응답	(4)	25.0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수혜 공연 단체들에게 물은 결과, 실험정신, 작품성, 예술성을 담은 창작 및 제작 기회 마련이 1순위, 1순위+2순위에서도 가장 높은 효과로 제시됨.
- 그 외에 대작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공연단체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 제고, 관객 개발 및 시장 확대, 공연단체의 브랜드 제고, 고정적인 레퍼토리 작품 탄생으로 열거함.

[그림 4-5]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을 통한 효과 - 1+2순위]



<표 4-17>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을 통한 효과 - 1+2순위]

	사례수	실험정신, 작품성, 예술성을 담은 창작 및 제작 기회 마련	대작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	공연단체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 제고	관객 개발(소통) 및 시장(지역) 확대	공연단체의 브랜드 제고	고정적인 레퍼토리 작품 탄생
		%	%	%	%	%	%
전 체	(60)	83.3	46.7	35.0	21.7	8.3	1.7
뮤지컬	(13)	100.0	7.7	53.8	15.4	15.4	0.0
연극	(12)	100.0	50.0	16.7	25.0	0.0	0.0
무용	(21)	71.4	61.9	42.9	14.3	4.8	4.8
음악	(5)	100.0	20.0	20.0	40.0	20.0	0.0
오페라	(9)	55.6	77.8	22.2	33.3	11.1	0.0

□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에 대한 수혜 공연 단체의 만족도

- 공연단체의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4.37이며 음악이 4.80으로 가장 높고 연극이 4.0으로 가장 낮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 4-18>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평균◀
			%	%	%	%	(5점척도)
전 체		(60)	3.3	10.0	30.0	56.7	4.37
	뮤지컬	(13)	0.0	15.4	46.2	38.5	4.23
	연극	(12)	8.3	16.7	33.3	41.7	4.00
	무용	(21)	0.0	4.8	23.8	71.4	4.67
	음악	(5)	0.0	0.0	20.0	80.0	4.80
	오페라	(9)	11.1	11.1	22.2	55.6	4.11

		사례수	◐BOT2 (①+②)	◐MID (③)	◐TOP2 (④+⑤)	계	▶평균◀
			%	%	%	%	(5점척도)
전 체		(60)	3.3	10.0	86.7	100.0	4.37
	뮤지컬	(13)	0.0	15.4	84.6	100.0	4.23
	연극	(12)	8.3	16.7	75.0	100.0	4.00
	무용	(21)	0.0	4.8	95.2	100.0	4.67
	음악	(5)	0.0	0.0	100.0	100.0	4.80
	오페라	(9)	11.1	11.1	77.8	100.0	4.11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만족스런 점으로는 아래와 같이 열거됨. 앞의 설문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재정적인 지원, 홍보효과, 공연작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의 효과로 인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4-19>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

	전체(n=52)	
	사례수	비율(%)
재정적인(경제적) 부문에서의 도움/ 재원 조성의 안정성/ 높은 지원금	(25)	48.1
작품 제작, 개발 가능	(12)	23.1
작품의 질적 향상/ 작품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짐	(8)	15.4
브랜드 홍보 효과	(7)	13.5
실험정신,작품성, 예술성을 담은 창작 및 제작 기회 마련	(5)	9.6
다시 공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재공연 가능	(3)	5.8
레퍼토리 개발	(2)	3.8
대작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	(2)	3.8
제작 환경 개선	(2)	3.8
작품의 인지도 상승	(1)	1.9
전문가 멘토링	(1)	1.9
작품에 전념할 수 있음	(1)	1.9
공연 기회의 증가	(1)	1.9
도전정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1)	1.9
체계적인 기획	(1)	1.9
시범공연을 통하여 작품에 대한 보완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됨	(1)	1.9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섬세한 도움이 공연 운영을 하는데 있어 도움	(1)	1.9
인터뷰 심사, 쇼케이스 과정을 통해 작품을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감	(1)	1.9
극장 대관	(1)	1.9
단계별 지원	(1)	1.9
창작자와 실연자들의 기획 제공	(1)	1.9
관객에게 공연예술의 관람 기회를 제공	(1)	1.9
대중들과 소통	(1)	1.9
창작지원 무용담당들의 적극적인 지원	(1)	1.9
전반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문제가 없었음	(1)	1.9
담당했던 담당자 안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만족	(1)	1.9
모름/ 무응답	(1)	1.9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 사업 외 공공 지원사업 수혜비중

- 2013-2015년 현재까지 최근 3년동안, 설문한 공연단체의 69%가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외 공공지원사업을 받은 경험이 있음.

<표 4-20> 최근 3년간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외 공공지원사업 혜택 유무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60)	68.3	31.7	100.0
	뮤지컬	(13)	53.8	46.2	100.0
	연극	(12)	75.0	25.0	100.0
	무용	(21)	71.4	28.6	100.0
	음악	(5)	60.0	40.0	100.0
	오페라	(9)	77.8	22.2	100.0

- 공연단체의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 사업 외 공공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음

<표 4-21> 최근 3년간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외 공공지원사업명

	전체(n=41)	
	사례수	비율(%)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3)	5.9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소외계층, 방방곡곡 문화공감)	(4)	7.8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2)	3.9
민간국제 예술교류지원	(11)	21.6
대관료 지원사업	(3)	5.9
용인문화재단 지원사업	(2)	3.9
서울시 창작환경개선지원사업	(2)	3.9
대한민국발레축제	(9)	17.6
강동 댄스페스티발	(1)	2.0
공연장 1+1 지원사업	(1)	2.0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2)	4.0
맘모스해동	(1)	2.0
문화재단(공연제작지원)	(1)	2.0
익명의 각종 공연단체 보조금 사업	(6)	11.8
스페셜 딜리버리	(1)	2.0
창작괙토리 <Untitled>	(1)	2.0
충청남도 공연지원사업	(1)	2.0

□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 사업의 장단점

– 앞의 다른 공연예술지원사업과 비교하여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주관적인 답변이 나옴.

<표 4-22>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장점

	전체(n=60)	
	사례수	비율(%)
재정적인(경제적) 부문에서의 도움/ 재원 조성의 안정성/ 높은 지원금	(21)	35.0
작품 제작, 개발 가능	(6)	10.0
작품에 전념할 수 있음	(6)	10.0
브랜드 홍보 효과	(5)	8.3
단계별 지원	(3)	5.0
작품의 질적 향상/ 작품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짐	(2)	3.3
다시 공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재공연 가능	(1)	1.7
전문가 멘토링	(1)	1.7
세트와 장치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 세트와 장치 등의 질적 향상	(1)	1.7
도전정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1)	1.7
대작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	(1)	1.7
실험정신,작품성, 예술성을 담은 창작 및 제작 기회 마련	(1)	1.7
체계적인 기획	(1)	1.7
제작 환경 개선	(1)	1.7
경력이 없는 젊은 창작자들에게 차별 없는 기회 제공	(1)	1.7
공신력이 있음	(1)	1.7
재공연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1)	1.7
다액소건의 집중 지원	(1)	1.7
지원금 외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1)	1.7
단계별 지원으로 완성도 있게 준비해야 하는 긴장감	(1)	1.7
플랫폼으로서 문화예술위원회의 대외적인 지원이 확실함	(1)	1.7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	1.7
작품을 우선으로 하는 지원선정	(1)	1.7
공연 제작기간 단축	(1)	1.7
지속적인 지원	(1)	1.7

	전체(n=60)	
	사례수	비율(%)
우수한 작품 선정으로 공연예술의 발전	(1)	1.7
새로운 작곡가의 탄생	(1)	1.7
참신한 작곡기법의 소개	(1)	1.7
관객에게 공연예술의 관람 기회를 제공	(1)	1.7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 여러 관객과 무대에서 만날 수 있음	(1)	1.7
창작 작품 활성화가 안무자들의 안무욕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계기 마련	(1)	1.7
담당했던 담당자 안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만족	(1)	1.7
전체적인 관리가 세심하고 정교함	(1)	1.7
지원을 받아야 작품을 진행할 수 있는 단체라 지원이 100% 필요함	(1)	1.7
자격요건이 많이 열려 있어서 좋았으며 자유롭게 사업을 운용할 수 있음	(1)	1.7
지원사업 운영 담당자들이 창작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1)	1.7
절차의 신속성	(1)	1.7
모름/ 무응답	(12)	20.0

- 앞의 다른 공연예술지원사업과 비교하여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단점으로 아래 사항을 답변함. 공정한 심사(자)에 대한 의견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적임.

<표 4-23>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단점

	전체(n=60)	
	사례수	비율(%)
지속적인 지원의 부족	(4)	6.7
홍보 활성화 부족	(2)	3.3
해외 진출 연결고리 마련 필요	(2)	3.3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 공정한 선정 방식	(2)	3.3
행정적으로 일정이 너무 촉박함	(2)	3.3
지원사업 선정, 결정이 지연되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큼	(2)	3.3
지원시기, 금액 등이 불확정적이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큼	(2)	3.3
지원금이 적음	(1)	1.7

	전체(n=60)	
	사례수	비율(%)
표현의 자유 규제	(1)	1.7
작품성, 예술성을 고려한 선정이 아닌 다작, 나눠주기 식의 선정	(1)	1.7
미숙하게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데 작품의 완성도를 평가하여 결정	(1)	1.7
지원 받은 당사자 앞으로 지원금 입금이 안 되는 점	(1)	1.7
창작자에게만 첫 단계 응모의 기회가 주워지는 점	(1)	1.7
창작자의 의존도가 높아져 자생력을 키우지 못함	(1)	1.7
초기와 달리 장르별 구분하지 않고 기금을 주는 것에 대한 보완 필요	(1)	1.7
심사자들의 안목에 대한 의구심/ 심사위원단 보강	(1)	1.7
전체적인 컨트롤이 가능한 전문 프로듀서 지원 필요	(1)	1.7
사업 후 잔업이 많음	(1)	1.7
작품 선정 기준의 부재	(1)	1.7
시범 공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1)	1.7
우수공연 발표 시의 아르코 기획력의 부재	(1)	1.7
여러 항목의 규제	(1)	1.7
투명한 재정운영에만 초점을 맞춰 창작 공연예술의 발굴과 지원, 평가 위축	(1)	1.7
제작 과정의 현장 모니터링 필요	(1)	1.7
장점을 악용하여 단발성 기획을 하는 단체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우려	(1)	1.7
독창적인 생각이 일반적 관점에서는 배제 당할 수 있음	(1)	1.7
결과보고서를 제출 할 때 실적위주의 결과로 귀결됨	(1)	1.7
우수제작지원금과 재공연 지원금이 같음	(1)	1.7
창작자 중심으로 지원 필요	(1)	1.7
제도가 매해 바뀌어서 현장 예술가들이 순발력 있게 인지하기 어려움	(1)	1.7
모름/ 무응답	(27)	45.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향후 개선 사항

-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에서 향후 개선되거나 보완할 사항으로 아래의 답변을 제시함.
-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사업의 지원규모에 비해 해외진출 및 사후 공연과 연계한 지원들이 상대적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가 많음. 제작과 재공연 그 자체에 대한 지원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 공연예술시장의 활성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공정한 심사,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단 구성, 서류절차의 간소화나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원 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수요자에 맞춘 지원 행정체계에 대한 요구도 많았음.

제5장

질적연구: 사업효과성 진단

제1절 정성적 진단연구의 설계와 방법
1. 연구개요와 조사방법
2. 대상 선정 및 자료의 수집
3. 면접조사 질문내용
4. 면접조사 분석방법
제2절 수혜단체 정성연구 분석결과
1. 수혜단체 면접조사 참여자
2. 연구결과 분석 요약
3. 연구결과 분석 내용
제3절 이해관계자 정성연구 분석결과
1. 이해관계자 면접조사 참여자
2. 연구결과 분석 요약
3. 연구결과 분석 내용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 소결
2.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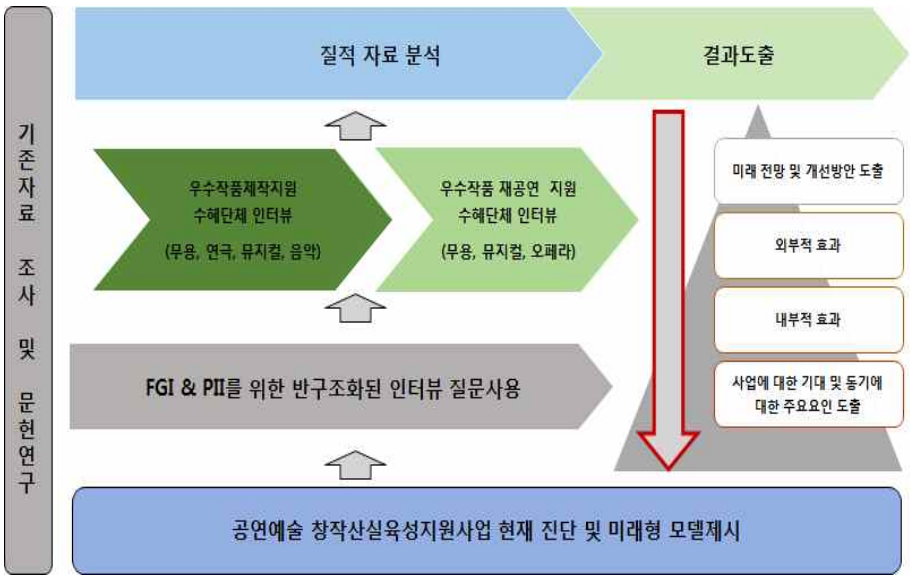
제1절 정성적 진단연구의 설계와 방법

1. 연구개요과 조사방법

□ 본 연구의 정성적 진단 연구는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과 개인심층 면접조사법(Personal Indepth Interview: 이하 PII)을 활용하여 실행되었으며 면접조사 참여자 총 28명을 통해 현 정책사업의 지원동기, 효과, 의미와 개선점 및 이에 따른 구체적 대안을 중심으로 조사·분석되었음

- 면접조사 참여자는 우수작품제작지원을 받은 장르별 단체대표(무용 N=5, 연극 N=2, 뮤지컬 N=6, 음악 N=4) 17명과 우수작품재공연지원을 받은 장르 별 단체대표 (무용 N=2, 뮤지컬 N=1, 오페라 N=1) 4명, 장르별 작품유통관련 기획자 3명(무용 N=1, 뮤지컬 N=1, 음악 N=1), 비평가, 평론가 및 심의위원(무용 N=1, 뮤지컬 N=1, 연극 N=1, 음악 N=1) 4명, 총 28명을 대상으로 함

[그림 5-1] 정성적 진단 연구 체계도



□ 본 연구의 정성연구 방법, 자료수집기간, 참여대상, 분석기법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음

- 연구방법: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초점집단면접(FGI) 및 개인심층면접(PII) 조사법
- 자료수집기간: 2015년 9월 4일 ~ 201년 10월 22일
- 연구 참여대상: 총 28명
  - 우수작품제작지원 수혜작품 단체대표 17명
  - 우수작품재공연지원 수혜작품 단체대표 4명
  - 작품유통관련 기획자 3명
  - 비평가, 평론가 및 심의위원 4명
- 분석기법:
  - 정책사업에 대한 지원동기, 효과, 의미, 문제점, 대안을 축으로 주요 테마(theme) 축출
  - 축출된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개방형 코딩(open coding)과 축코딩(axis coding)을 통해 정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효과성 및 개선방안 도출

□ 연구방법: 초점집단면접(FGI)와 개인심층 면접조사법(PII)의 적합성

- 초점집단면접(FGI)은 연구주제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를 갖춘 현장 실무자 및 담당자들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 사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상호 교류하며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음(Kleiber, 2003; McCormack, 2004)
- 개인심층 면접조사법(PII)은 연구 참여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례와 평가, 제언 등을 심층적·집약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타당한 질적 논고 마련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임(강진숙, 2007; Creswell, 2012)
-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와 PII 조사방법을 통해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선정작품으로 수혜를 받은 단체대표를 우수작품지원 그룹과 우수작품재

공연지원 그룹으로 나누어 사업의 효과성 및 내부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도록 유도함

-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추출하여 현 사업의 전반적 진단으로 정책사업의 효과와 의의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2. 대상 선정 및 자료의 수집

□ 정성적 진단 연구 대상 선정은 우수작품지원 그룹과 우수작품재공연지원 그룹으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정책사업의 대표성을 갖춘 우수작품지원 그룹을 중심으로 무용, 연극, 뮤지컬, 음악/오페라로 구분하여 장르 별로 분류하여 진행되었음

- 연구의 기간과 목적을 고려하여, 우수작품제작지원과 우수작품재공연지원 선정 작품을 기준으로 해당 단체의 대표와 FGI/PII가 이루어졌으며,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사업의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우수작품지원그룹을 중심으로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함
- 정성연구 참여자는 2015년 수혜작품을 기준으로 FGI에 참여 가능한 단체의 대표를 우선적으로 섭외하였으며, 연극의 경우 참여자의 개인사정에 의해 PII를 실시함.
  - 우수작품제작지원 그룹 (무용, 연극, 뮤지컬, 음악):
    초점집단면접(FGI) 3회 (N=15), 개인심층면접(PII) 2회 (N=2)
  - 우수작품재공연지원 그룹 (무용, 뮤지컬, 오페라):
    초점집단면접(FGI) 1회 (N=4)
  - 작품유통관련 기획자 그룹 (무용, 뮤지컬, 음악):
    초점집단면접(FGI) 1회 (N=3)
  - 비평가, 평론가 및 심의위원 그룹 (무용, 뮤지컬, 연극, 음악):
    초점집단면접(FGI) 1회 (N=4)

- 장르별 구분으로는 ① 무용(N=9), ② 연극(N=3), ③ 뮤지컬(N=9), ④ 음악/오페라(N=7) 총 4개 영역에서 선정되었음

□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표 5-1> 정성적 효과연구 참여대상 분류체계 (N= 28)

차수	대상		조사방법	참여자(N)	시행일
	구분	장르			
1차	우수작품 제작지원	무용	FGI	5	2015. 09. 04.
2차		연극	PII	1	2015. 09. 07.
3차				1	2015. 09. 11.
4차		뮤지컬	FGI	6	2015. 09. 04.
5차		음악	FGI	4	2015. 09. 11.
6차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	무용	FGI	2	2015. 09. 18.
		뮤지컬		1	
		오페라		1	
7차	작품유통 관련 기획자	무용	FGI	1	2015. 10. 15.
		뮤지컬		1	
		오페라		1	
8차	비평가, 평론가 및 심의위원	무용	FGI	1	2015. 10. 22.
		연극		1	
		뮤지컬		1	
		음악		1	

□ 면접조사는 각 그룹별로 FGI는 100~120분, PII는 약 60분 간 실시되었으며, 참여자는 반구조화된 질문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였고, 인터뷰

의 활용범위, 비밀보장 등을 전달하였음

-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록하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인터뷰 시작 시점에 이를 전달하고 참여자 동의하에 녹취를 진행하였음

3. 면접조사 질문내용

□ 면접조사는 아래와 같은 요목별 구조화 작업을 거쳐 실행되었음

- 배경: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 지원동기와 기대효과
- 내부적 효과: 정책수혜를 통한 단체내부의 변화 및 효과
- 외부적 효과: 정책수혜를 통한 외부환경의 변화 및 효과
- 의의: 정책의 의미화 및 정책방향의 적절성
- 제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각 영역별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고 진솔하게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집, 이를 통해 자료의 신뢰도(reliability)를 높이고자 노력함

- 인터뷰 일정을 상의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을 취할 시 주요 질문의 의도와 연구의 목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서 참여자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였음
-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 에 모든 인터뷰는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인터뷰 파일은 모두 녹취록으로 작성되어 정성적 분석에 활용되었음

□ 본 연구에서의 주요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음

<표 5-2> 정성적 진단연구 반구조화 질문체계 (수혜단체용)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내 용
면접 질문 I	배경	동기	– 어떤 경로와 이유로 지원하게 되었는가? – 무엇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인가?
		기대효과	– 지원 시 기대했던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인가? – 유사사업과 비교 시, 동 사업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면접 질문 II	효과	내부적	– 정책사업 수혜 후 내부적 변화는 무엇인가? (neutral) – 정책사업 수혜 후 내부적 효과는 무엇인가? (value-driven)
		외부적	– 정책사업 수혜 후 외부적 변화는 무엇인가? (neutral) – 정책사업 수혜 후 외부적 효과는 무엇인가? (value-driven)
면접 질문 III	의미	의미 (적절성)	– 정책사업은 나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 정책사업의 목적과 목표는 적절한가? (※ 단계적 경쟁 vs.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의견) – 평가체계는 적절하다고 보는가?
면접 질문 IV	제언	문제점	– 현 정책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현 정책사업의 한계점/단점은 무엇인가?
		개선방안	– 현 정책사업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현 정책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

<표 5-3> 정성적 진단연구 반구조화 질문체계 (이해관계자용)

체계	상위 구분	하위 구분	내 용
면접 질문 I	배경	목적	– 사업의 (장르별) 목적 또는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유사사업과 비교 시, 동 사업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면접 질문 II	정책 효과	예술계	– 현 사업 문화예술분야(예술계)에 기여한 점은 무엇인가? – 현 사업 문화예술시장에서 작품성을 취득하였다고 보는가?
		시장 및 유통	– 수혜 작품은 예술시장에 어떠한 의미(상징성)을 가지는가? – 현 사업 문화예술시장에서 자생력을 취득하였다고 보는가? – 현 사업을 통한 작품은 시장에서 원활히 유통되는가?
		평가 (심의위원)	– 평가체계는 적절하다고 보는가? – 평가에 있어 외부적 영향은 무엇인가? – 평가에 있어 내부적 영향은 무엇인가?
면접 질문 III	제언	문제점	– 현 정책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현 정책사업의 한계점/단점은 무엇인가?
		개선점	– 명시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4. 면접조사 분석방법

□ 본 연구에서는 FGI와 PII를 활용한 질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 있어 과학적 엄중성(scientific rigor)를 획득하고자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였음

- 면접조사 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참여자의 의견과 경험을 수집하고, 녹취록 작성 후, 개방형 코딩(open coding)과 축코딩(axis coding) 기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의미와 효과내용을 구조화하여 그 의미와 시사점을 분석하였음
-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조사 시 멤버체크(member check)과정을 철저히 거쳤음
  - 인터뷰 도중 단어나 문장이 불분명하거나 인터뷰 참여자의 의도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 메모해 두었다 해당답변에 대해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reliability)를 높이는 작업을 거쳤음
  - 연구 참여자의 증언을 연구자는 인터뷰 주요 시점마다 재정리하여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이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음

□ 수집된 자료의 분석모형은 4개의 대영역으로 정책사업 지원에 대한 배경(지원동기 및 기대효과), 효과 (내부적 및 외부적 생산물), 의의(정책적 의미와 적절성), 제언(문제점 및 구체적 대안)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그림 5-2] 정성적 진단연구 분석모형

□ 이를 통해 자료의 수집과정, 자료의 전사과정, 자료의 해석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뢰도(reliability)의 저하를 방지하고 연구에 대한 타당성(validity)를 확보하였음.

제2절 수혜단체 정성연구 분석결과

1. 수혜단체 면접조사 참여자

□ 수혜단체의 경우, 면접조사(FGI: Focused Group Interview & PII: Personal In-depth Interview)에 참여한 인원은 총 21명으로 무용, 연극, 뮤지컬, 음악/오페라 총 4개의 장르 중 최근 2015년 선정된 작품을 중심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짐

- 우수작품제작지원의 경우, 정책사업의 대표성을 위하여 장르 별 면접조사가 6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우수작품 재공연지원작품의 경우 장르 구분 없이 1회 진행되었음
-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연구윤리를 위하여, 모든 참여자 개인을 대변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각 증언에 대한 구분은 참여자 개인코드를 부여하여 처리함

□ 수혜단체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5-4> 수혜단체 정성연구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N= 21)

구분	참여자	성별	직위	장르	부여코드
우수작품 제작지원	참여자1	남	단장/예술감독	무용	A1
	참여자2	남	대표	무용	A2
	참여자3	여	단장	무용	A3
	참여자4	여	단장	무용	A4
	참여자5	여	대표	무용	A5
	참여자6	남	교수	연극	B1
	참여자7	남	대표	연극	B2
	참여자8	남	프로듀서	뮤지컬	C1
	참여자9	남	프로듀서	뮤지컬	C2
	참여자10	남	대표	뮤지컬	C3

구분	참여자	성별	직위	장르	부여코드
	참여자11	여	대표	뮤지컬	C4
	참여자12	남	이사	뮤지컬	C5
	참여자13	남	기획실장	뮤지컬	C6
	참여자14	여	작곡가/대표	음악	D1
	참여자15	여	사무국장	음악	D2
	참여자16	남	기획실장	음악	D3
	참여자17	남	(전)기획실장	음악	D4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참여자18	여	작곡가/겸임교수	오페라	가
	참여자19	남	대표	뮤지컬	나
	참여자20	남	대표	무용	다
	참여자21	여	단장	무용	라

2. 연구결과 분석 요약

□ 수혜단체 면접조사 분석 결과,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지원 배경으로는 동기에 2개의 주요테마가, 기대효과에서는 3개의 테마가 분석되었으며, 정책을 통한 효과로 내부적으로는 총 7개, 외부적으로는 5개의 주요한 테마들이 정책적 결과물로 파악됨

- 수혜단체의 관점에서 느끼는 정책에 대한 내재적 의미는 3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창작중심의 내재된 의미화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책의 적절성에 있어 정책사업의 목표는 불명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 정책사업의 문제점은 다양한 분야로 총 6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7개의 주요테마로 분석되었음

<표 5-5> 수혜단체(공연예술 창작산실)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N=21)

분석틀	상위 범주	하위범주 주요테마
배경	지원동기	– 소액다건의 지원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제작지원 – 단계적 계획과 긴 호흡을 통한 작품 창작의 기회
	기대효과	– (정책상 결여되어 있는) 규모있는 작품을 창작 할 수 있는 기회 – 실험정신, 작품성, 예술성을 담은 작품의 제작 – 창작을 통한 관객과의 소통
효과	내부적	– 제작비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안정감 – 작품제작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제공 – 실험정신, 새로운 시도를 통한 인식의 확장 – 예술성을 앞세운 시장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 완화 – 대표적 래퍼토리 구축 – 단원의 기량, 성취감 및 결속력 강화 – 단계별 계획을 통한 작품기획 및 역량 강화
	외부적	– 검증을 통한 외부의 신뢰도 및 인지도 상승 – 단체의 브랜드 네임 강화 – 폭넓어진 관객층 – 외부 단체 접촉을 통한 네트워크 및 협업의 기회 –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
의의	내재적 의미	– 창작역량 중심적 : 희망, 기회, 신발, 발판, 선물, 색깔, 새로운 예술생명의 시작 – 창작환경 중심적 : 숲을 위한 나무, 반달곰, 응원, 울타리 – 협업 중심적 : 책임감, 만남, 끈
	정책의 적절성	– 타 유사 정책사업과 비교 시 규모 및 시스템적 우위 – 정책목표와 방향의 모호성
제언	문제점	– 일관성과 지속성이 결여된 정책 및 행정 – 정책목표 설정과 취지의 모호함 – 작품규모에 맞는 시장의 부재 그리고 이에 따른 부담감 – 작품제작지원 이후 홍보 및 사후관리의 부족 – 유연하지 못한 평가기준과 서류상의 구조적 문제 – 심사 및 평가기준에 대한 심사위원 간 함의 및 이해
	개선방안	– 장기적 연계방안을 통한 지속적인 재공연의 기회제공 – 평가자 전문성과 평가체계 개선 – 장기적 안목과 장기적 성과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정책적 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심사위원에 대한 이해 도모 –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사후관리 – 해외진출 전략을 위한 다양한 지원 – 지원작품 기록을 위한 총체적 아카이빙 구축

3. 연구결과 분석 내용

□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지원동기

- 첫 번째 분석틀인 배경의 경우, 하위범주인 지원동기는 ① 소액다건의 지원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제작지원과 ② 단계적 기획과 긴 호흡을 통한 작품 창작의 기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특정 장르와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제작비 지원은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의 공통적 지원동기로 현 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로 드러남.
  - 이는 단순히 지원금의 규모 때문이라기보다는 소액다건의 지원에 기인한 성과중심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긴 호흡으로 작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대작을 창작해 보고자 하는 예술가로서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함

① 소액다건의 지원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제작지원

예산을 보고 지원을 했는데...예술가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하고. 창작의욕이라는게 있잖아요. (A2)

이게 지원사업 중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예술가가 이 사업에 선정되기를 원하고요. 희망하고. (A4)

사실 제일 좋았던 점은 금액이 크니까 무용수들이나 스탭, 참여하는 감독들한테
인건비를 제대로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마음이 놓이고. (A5)

② 단계적 기획과 긴 호흡을 통한 작품 창작의 기회

제작은 왜 이렇게 해야만 하지. 왜 우리(국내)는 속전속결의 방식으로 가게 될까.
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삭둥이를 계속 낳는 그런 제작방식을 택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의식이 많이 컸던 상태에서 (창작산실은) 저에게 필요한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B2)

□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원동기와 맞물려 ① 규모있는 작품을 창작 할 수 있는 기회, ② 실험정신, 작품성, 예술성을 담은 작품의 제작, ③ 창작을 통한 관객과의 소통이 두드러진 주요테마로 나타났음

• 특히 타 사업과 구분되는 예산의 규모와 단계적 지원은 현 사업의 지원동기 뿐 아니라 차별성 있는 작품창작에 대한 남다른 기대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① 규모있는 작품을 창작 할 수 있는 기회

지원을 하면 거의 금액이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 전에 좋은 작품을 해도 그 금액이 똑같고 [...] 한국시스템이
그 만큼에 대한 돈에 맞는 작품이 나온다고 또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규모있는)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에 지원을 했는데...(A4)

좀 더 규모있게...그 전에는 작은 편성의 곡들을 주로 했었는데 다양한 편성으로
꾸밀 수 있어서요. 작곡가들과도 일회성인 것 보다는 지속성도 있을 것 같아서. (D1)

② 실험정신, 작품성, 예술성을 담은 작품의 제작

넓게는 예술가 작게는 연극하는 사람. 그보다 더 작게는 연극연출가로의 로망이죠.
제대로 된 뭔가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고 [...] 정말 제대로 된 아이를 하나 키우고 싶은.
저희 연극하는 사람들 포함 다른 장르에 예술하는 사람들 모두의 로망이겠죠. (B1)

③ 창작을 통한 관객과의 소통

예술가들은 창작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하고
자기예술성을 알리기 위한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A1)

□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내부적 효과

- 면접조사 결과, 참여자의 대부분은 현 정책사업을 통해 얻게 된 단체의 내부 변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르는 만족도 또한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음
- 현 정책사업을 통해 얻은 수혜단체의 내부적 효과로 파악된 주요 테마는 총 7개로 ① 제작비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안정감, ② 작품제작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제공, ③ 실험정신, 새로운 시도를 통한 인식의 확장, ④ 예술성을 앞세운 시장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 완화, ⑤ 대표적 레퍼토리 구축, ⑥ 단원의 기량, 성취감 및 결속력 강화, ⑦ 단계별 계획을 통한 작품기획 및 역량 강화로 분석되었음
  - 수혜단체 내부의 이러한 효과들은 일종의 체인효과로서 규모 있는 제작비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험들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한 인식의 확장으로 대표적 레퍼토리 구축이라는 주요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됨
  - 창작산실의 특징인 경쟁을 통한 단계별 지원시스템은 단원들의 기량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단체의 결속력 및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① 제작비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안정감

인건비 사례비를 다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지원제도보다 비례해서 줄 수 있어서 굉장히 흡족했어요. (A3)

창작산실하면서 배우 분들한테 극단에서 처음으로 이백만원 넘게 드렸던 거 같은데. 최고 나이 많은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통장에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맞냐, 그러더라고 [...] 이것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는 거죠. (B1)

저희가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 많이 있잖아요. 작품을 처음 초기에 만들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자나요. 민간단체다 보니깐 그 예산을 감당을 못해서 끌어오기도 힘들었고. 창작산실을 통해서 예산을 감당했었고 [...] 지금도 계속 작업중에 있고. 단원 몇 명 더 월급을 줄 수 있는.(라)

② 작품제작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제공

연출 컨셉이나 극본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작품을 핸들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그런데 정책자금은 그 누구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죠. (C2)

내적역량이 다 상승된 것 같아요. 투잡 쓰리잡 하면서 하는 거랑 여기에서 집중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정신적 육체적인 에너지가 집중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돈보기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지 타잖아요. (웃음) 정말 그게 불이 붙고 다 연소 됐던 거 같아요. 그런 효과들. (B1)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700회 공연을 했었거든요. 여기저기 공모도 많이 지원해보고 그런데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괴감도 들고 아무리 뮤지컬이 상업적이라고 할지라도 [...] 그런데 창작산실이 되고나서 작품만 꾸준히 만들어가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힘을 받고 지속가능한 공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나)

③ 실험정신, 새로운 시도를 통한 인식의 확장

볼륨이 큰 작품을 올릴 수 있는 마음껏 무언가를 무대에 펼칠 수 있는 기회니까 너무 너무나 개인으로서 좋고. (A3)

하나의 백지수표를 받은 느낌. 그러다보니까 좀 더 깊숙이 들어 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D3)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극장 이상의 규모를 커버할 수 있는 연출자가 드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창작산실이 어느 정도 규모와 예산범위를 가졌기 때문에
소극장의 범위를 조금 씩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그걸 실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불가능하구나.
내가 막연하게 관념적으로만 생각했던 어떤 상상의 범위가 이렇게 구체화 돼서 관객들한테
예술적 감흥과 자극을 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B2)

오히려 첫 번째 작품은 쇼케이스 한 다음에 우수작품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재공연한 작품보다 제 색깔이 들어간 것 같고 이번에 공연은 내년에 공연을 또 하거든요.
근데 그 작품에서는 제가 완전 실험을 해서 정말 내 스타일로 갈 용기가 생겼어요.(가)

④ 예술성을 앞세운 시장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 완화

상업적이거나 대중적인 것을 쫓아가기 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큰 장점 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창작산실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C3)

처음에 라이센스로 진출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자신감을 갖고 자체제작을 했었는데 리스크가
컸어요. 결국엔 우수공연으로 선정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고 회사자체도 어려웠는데
결국에는 (창작산실 덕분에) 계속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나)

⑤ 대표적 래퍼토리 구축

개인적으로는 공연 때 좋은 평도 받아서
저한테는 뭔가 대표작이 하나 남았다는, 큰 스케일의. (A1)
오래간만에 큰 작품 올려서 그게 굉장히 좋았고 [...] 작품하나 남은 거.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A3)

⑥ 단원의 기량, 성취감 및 결속력 강화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고 보는 시각도 틀려졌고 [...]
단원들의 기량도 그렇고 이렇게 연기가 성숙이 되면서. (A1)

정시간에 퇴근하고 그런 생활을 두 달 정도 했었는데 서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주인의식같이 소속감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창작산실에
선정된 단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는 것 같아요. (A4)

같이 큰 산을 여러 번 넘었기 때문에 서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A2)

전체 (단원이) 뭔가를 같이하는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자생해야 되다 보니까
요즘은 15-20명 해요. 다 쪼개져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큰 기회 큰 프로젝트는
단비와 같은 거예요. 조직의 화합차원에서도. (D2)

일단은 사기를 복돋아 주는 큰 역할은 한 것 같아요. (라)

⑦ 단계별 계획을 통한 작품기획 및 역량 강화

저희는 굉장한 수혜를 봤어요. 기존의 만들어 논 세트들을 규격화해서 정리할 수 있었고
음악도 연출자들 섭외해서 레코딩을 하고 라이브하고 믹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 (C1)

창작산실은 초기부터 단계가 있자나요 [...] 저희가 단계가 좀 생기더라고요.
창작산실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지원금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창작팀들과
협업하는 단계들을 계획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 (C6)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정정도 이상의 예술성 또는 성취도
이런 부분을 완성해내야지. 그 중에서 제가 그 다음 과정을 진척을 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력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B2)

저희같은 경우는 좀 더 글로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어요. 일본 비즈니스가 가능한 분들 한 두분 정도 인력구성을 해서 창작산실 지원으로 인력보강이 됐죠. (나)

□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외부적 효과

- 현 정책사업을 통해 얻은 수혜단체의 외부적 효과로 파악된 주요 테마는 총 5개로 ① 검증을 통한 외부의 신뢰도 및 인지도 상승, ② 단체의 브랜드 네임 강화, ③ 폭넓어진 관객층, ④ 외부 단체 접촉을 통한 네트워크 및 협업의 기회 확대, ⑤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로 분석되어졌으며 이 중 외부환경에 있어 신뢰도와 인지도 상승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디만, 이러한 외부적 효과는 내부적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르적 특성에는 뮤지컬이, 그리고 그룹별 구분에서는 우수작품재공연지원에서 그 효과가 가시화 되는 것으로 드러남
  - 순수예술 분야 중 현대무용, 오페라, 현대음악의 경우는 단체의 신뢰도와 인지도 상승, 네트워크 확장, 브랜드 네임 강화는 정책 수혜를 통한 외부적 환경변화로 지목하였으나 폭넓어진 관객층이나 해외시장 진출은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 현 정책사업의 목적에서 “경쟁력”이라는 부분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볼 수 있는 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시장논리적 차원에서 “(수혜작품의 경우)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단일 정책사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예술시장이 안고 있는 경제적 딜레마에 기인한다고 사료됨
  - 이와 같은 이유로, 후술될 현 정책사업의 문제점에서도 드러나듯이 1~2년간의 제작지원 기간 이후에는 특별한 사후지원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분석됨.
  - 이와 더불어 수혜작품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연계전략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① 검증을 통한 외부의 신뢰도 및 인지도 상승

공동기획을 한다든지 뭐 초청을 제안을 했을 때
창작산실이란 타이틀이 주는 신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A4)

수많은 작품 중에 어쨌든 검증이 되었다라는 거. 작품을 대하는 태도, 들어오는 에너지,
그런 것들이 좀 달라져서 작품 개발에 정말 많은 도움 돼요. (C1)

저희는 마지막 우수작품 재공연에 지원해서 됐는데 (이전에) 공연을 해왔던 작품을
우수작품으로 선정을 해줘서,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던 거를 인정받은 느낌 [...]
또 인정을 받은 공연이어서 좋았던 거 같아요. (나)

창작산실에서 나오는 작품들은 작품에 대한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있다고
관객층이 느끼기 때문에 그 시즌에 하실 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

② 단체의 브랜드 네임 강화

(창작산실로) 저희는 기회가 돼서 공연을 하는데 새롭게 브랜드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너무나 소중한 기회고 큰돈이어서. (D2)

발레단 이름을 알리는 긍정적 역할을 했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지역에 인지도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죠. (라)

③ 폭넓어진 관객층

저한테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는 연주자와의 소통이 문제이고 [...] 연주자와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관객이나 감상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는 건
작곡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관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연주자분들과 소통이
상당히 원활해졌고 [...] (관객 중에) 관심가져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
2~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D3)

저희 단체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화두가 관객이잖아요. 작품에 들어오는 기법들이 기존의 방식들이 아닌 관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장치들의 고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창작산실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장이 됐던 거 같고. (D2)

관객의 층도 넓어졌고 관객의 들었던 것에 대해서 평을 해주는데 적극적이 됐어요. 그 분들이 현대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셨고 점점 소통하고 있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고. (D4)

④ 외부 단체 접촉을 통한 네트워크 및 협업의 기회 확대

저는 작곡가 입장이다 보니까 [...]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걸 좀 느꼈었거든요 작곡가대로 이런 걸 실현해 줄 수 있는 연주단체와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고 연주단체는 연주단체대로 또 우리와 성과는 성과대로 나와 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요. 그게 오작교로 인해서 물고를 틔어줬다고 봐요. (D3)

⑤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

뮤지컬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일본시장에 알려지는 계기가 돼서 일본 팬들도 많이 생기고. 결국엔 일본에서 잘되니깐 중국에서도 라이센스 되어서 5개 지역에 한 120회 공연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창작산실에서 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작품으로 나갔던 게. (나)

저희들은 뽑혀놓고도 (국내극장에서) 안 불러주는 거에요. 지방가면 특히 그게 계속 반복되요. (현대무용분야는) 계속 소외되는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은 그래서 오히려 유럽을 많이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여기서 나가야겠다. 여기서 아무리 해도 자꾸 수준 낮춰야하고 재미있게 하면 좋아하니까. (다)

□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의의: 정책사업의 내재적 의미

- 수혜단체의 관점에서 현 정책사업의 의미를 한 단어로 요약하여 그에 대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분석한 결과 크게 3개의 범주로 ① 창작역량 중심적 의미,

② 창작환경 중심적 의미, ③ 협업 중심적 의미로 분석됨

- 창작역량 중심적 의미로 희망, 기회, 새로운 예술생명의 시작, 신발, 발판 등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수작품지원 또는 재공연지원을 통해 창작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조망하거나 한 단계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함
- 창작환경 중심적 의미로 숲을 위한 나무, 반달곰, 응원, 울타리라는 단어가 선정됨. 은유적 표현으로 숲을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서있는 나무 또는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하지만 멸종위기의 동물인 반달곰으로 표현해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창작산실의 상징적 의미를 중첩적으로 표현함
- 협업 중심적 의미로 책임감, 끈이라는 단어가 선택되었으며, 그 이유로 정책사업의 특징인 단계적 확장으로 인해 네트워크 또는 협업의 범위 또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음. 특히, 이러한 내재적 의미화는 음악장르인 오작교 프로젝트에 더욱 집중된 양상을 보였으며, 작곡가와 연주가 (또는 연주단체) 사이의 협업의 주요 시너지 효과를 상정하기도 함
- 추가적으로 재미, 로또, 집이라는 단어가 속하며, 이를 택한 이유로 현 정책사업에 대해 현재 상황 안에서 그 분석적 의미를 부여한 것을 알 수 있음. 각 단계를 거쳐 감에 따라 작품도 함께 유기적으로 발전되어가는 것을 통해 재미라고 표현한 한 참여자와는 반대로 우연의 연속성 안에서 작품에 대한 지원을 로또로 해석한 경우도 있음. 또한 안정적이고 보호받는 집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미화 하는 해석을 통하여 정책의 주요 역할에 대한 재확인이 가능함

① 창작역량 중심적 의미

희망인 것 같아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돌아보고.
그러다보니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고. (A5)

기회다. 큰 작품 좋은 작품, 마음껏 담아보고 싶은 것을 펼칠 수 있었던 기회죠. (A1)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C2)

신발이요 세상에 빨리 나가라고 신발 신겨준 것 같아요. (C5)

새로운 예술생명의 시작이다. 시작이 생명이 탄생을 하면 결국엔 키워야 되자나요.
모든지 탄생 되면, 그 때 큰 기쁨을 주지만 그게 본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하게 독립할 수 있게 키워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D1)

발판이었다. 왜냐면 사실 창작산실이 없었으면 공연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저 뿐 만아니라 창작산실 통해서 젊은 작곡가들이 오페라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전에는 대부분 육십 된 선생님들이 오페라를 쓰기 시작하고, 그 오페라도 다 위촉해서 쓰죠.
젊은 사람들은 미리 써놔도 공연을 할 수가 없고. 어쨌든 그런 좋은 기회였던 거 같아요. (가)

색깔이다. 우리단체의 색깔을 만들어줬어요. 국립이랑 저희랑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경쟁을 하려면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색깔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럼 색깔을 찾은 것 같아요. (다)

② 창작환경 중심적 의미

숲이 중심이 되는 나무를 이식하는 작업이겠죠. 중심이 되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숲을 만드는. (B1)

(포획된)반달곰 같은 느낌? 스스로의 야생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렸을 때 사람 손에 키워내서 현장에 적응 시키잖아요. 야생성을 가지게끔
교육시키지만 되돌아오잖아요. 이게 야생의 환경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혼돈스러움을 겪고 있잖아요. 반달곰은 (멸종 위기에 있기에) 키워져야한다고
이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마치 작품과 같이 그들 스스로가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일차적인 문제 같아요. (B1)

응원이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나)

울타리다. 보호되고 안정적이고. 보호되는 그런 느낌. (다)

③ 협업체계 중심적 의미

책임감이요. 단체성이 좀 더 무게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혼자 솔로작업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꾸릴 수 있는 경험을 했잖아요. (A2)

건우와 직녀처럼 뭔가 끈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해요.
그 끈이 작곡가하고 연주자 일 수 도 있고 사실 많은 작곡가들이 부러워해요.
어쩜 뭔가 할 수 있을지 몰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몰라.
정말 내가 쓰레기 되는 작품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가 즐겨 줄 수 있는
음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도 몰라 그런 기대감. (D4)

만남이요.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고민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D2)

□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의의: 정책의 적절성

- 수혜단체의 관점에서 현 정책사업의 적절성은 모순된 두 가지 테마가 드러났으며 이는 ① 타 유사 정책사업과 비교 시 규모 및 시스템적 우위, ② 정책목표와 방향의 모호성으로, 이는 현 사업이 예술위에 2014년부터 이관됨에 따라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인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술될 문제점에서도 드러난 정책방향의 모호성은 예술계에서 창작산실지원 작품의 공적 신뢰도와 상징성 및 정책사업의 당위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재고해야할 부분으로 분석됨

① 타 유사 정책사업과 비교 시 규모 및 시스템적 우위

다른 사업하고 차이가 있죠. 일단 금액에서부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응모하는 사람들도 수준이 있어요. 그만큼 수준 높은 지원사업이고
창작산실이 퀄리티를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죠. 아무나 못해요 (A4)

평가실에 들어가도 작가 작곡가와 프로듀서가 들어가지 배우가 들어가지 않자나요.
전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하게 배우의 힘이 아니라
작품의 힘으로 그걸 평가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C4)

우수작품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죠.
음악적인 부분도 부족하고 대본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깐 전체적인 프로덕션이
많이 약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재공연을 하니까 작품도 보완이 되고
그 면이 가장 크게 좋았던 거 같아요. (가)

② 정책목표와 방향의 모호성

정책이 너무 해마다 바뀌니깐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변화가 많지 않은가.
과연 이거에 목표점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됐었고 [...]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생각을 했어요. (A3)

예술가들의 창작의욕 고취, 시민들에게는 향유를 준다. 그거 말고 창작산실이
가지고 있는 목표점은 과연 뭘까? 좀 더 구체적이면서 훨씬 독창적인. (A1)

해외시장에 내보낼 만한 훌륭한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뜻인지
혹은 작품 수를 늘려서 그만큼 관객층을 늘리겠다라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보니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C6)

저는 (현 사업이) 두 가지 관점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어요.
하나는 예술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라는 시도와
또 한편에서는 자생적으로 자기 성과들을 스스로 극단들이나 단체가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립적인 공연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 라는 두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두 가지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거죠.[...](B2)

□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문제점

– 현 정책사업의 문제점으로 파악된 주요 테마는 총 6개로 ① 일괄성과 지속성이 결여된 정책 및 행정, ② 정책목표 설정과 취지의 모호함, ③ 작품규모에 맞는 시장의 부재 그리고 이에 따른 부담감, ④ 작품제작지원 이후 홍보 및 사후관리의 부족 , ⑤ 유연하지 못한 평가기준과 서류상의 구조적 문제, ⑥ 심사 및 평가기준에 대한 심사위원 간 함의 및 이해가 지적되었음

- 이 중 일괄성과 지속성이 결여된 정책 및 행정의 경우는 지원금 및 사업의 공모시점 등이 원칙적으로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로, 선정된 작품 수를 늘리기 위한 지원금 쪼개기의 경우 창작산실 고유의 사업 정체성과 차별성을 희석시킨다는 의견이 다수 도출되었음
- 정책사업의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은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취지가 '창작의욕 고취과 경쟁력 강화'라도 창작역량 계발에 집중하여 확실한 목표설정과 이에 대한 예술계와 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이 강조됨
- 의견과 창작역량 부분에서도 실험성에 기반한 새로운 형식의 예술작품 양성이 목표인지 완성도 높은 대중성을 가미한 작품 양성이 목표인지에 대한 정책적 기반과 논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 사업의 성격상, 작품의 제작규모에 맞는 공연장을 찾기 힘든 점과 더불어 이에 따른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홍보는 작품이 사장되지 않고 주요 레퍼토리로 꾸준히 무대에 올려 질 수 있는 지속성을 담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 또한 다수의 의견임
- 유연하지 못한 평가기준과 정책목표에 대한 일부 심의위원들의 낮은 이해도 또는 비전문성으로 인해 느끼는 적절치 못함, 부당함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의 동의함

① 일괄성과 지속성이 결여된 정책 및 행정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무엇 무엇을 해야 할 지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일이 너무나 추가 또 추가 됐던 과정들이 있었던 거 같고요. (D2)

행정적인 것들 서류 작업 속에서 그게 양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일관성이 없었던 거 같아요 [...] 1차 년도 끝나고 2차 년도 교부신청을 따로 안 한다 하더니 또 교부신청을 해야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라 [...] 그게 계속 딜레이 돼서 결국 2차 년도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교부신청해서 진행됐던 게 8월달인 거예요 [...] 2년의 사업이 될 수 가 없는 거예요. (D1)

지원금 갑자기 많이 줄였어요. 이미 규모는 키워놨는데 [...] 대관료까지 있는 거예요.
엄청 크더라고요. 갑자기 돈은 작아지고 대관료만 해도 몇 백이 되니깐 힘들었어요.
갑자기 줄이시더라고요. (다)

한 프로덕션팀이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법정까지는 안 갔지만
지원당시 문제가 생겼던 팀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 돈을 나중에 메꾸고 중간에서 중재를 하긴 했는데
다음에 우수작품으로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개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가)

② 정책목표 설정과 취지의 모호함

레퍼토리 육성이 아닌 혹은 뉴폼(new form)을 원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면
형식도 바뀌어야하지 않을까 [...] 창작산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가
좀 질문드리고 싶었고. (A3)

증액을 받아서 좋을 수 는 있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 인가 의문이 들었어요.
1등은 오르고 2등은 동결이고 3/4위 감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거기에 자부담의 부담도 더 커지고요 (D1)

오페라도 소외되어있기 때문에 선발 될 때도 굉장히 획일화 된 작품,

대중성이 있는 작품들을 주로 뽑거든요. 제가 작곡가로서 느끼는 건 창작성이 배제되어있고 너무 획일화된 작품만을 뽑아서 그다지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해외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 작품이 정체성도 사실은 없기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죠. (가)

③ 작품규모에 맞는 시장의 부재 그리고 이에 따른 부담감

근래에는 소작품, 단편들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창작산실) 제작된 공연들이 (해외에) 나가기에는 사실상 어려워요. (A3)

계속해서 재공연될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작품이 한 번에 공연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나 정말 그 환경이라는 게, 예를 들면 칠삭둥이한테 (부담스런) 이런 옷을 입혀주고 이런 놀이감을 던져주는 방식으로 (B2)

④ 작품제작지원 이후 홍보 및 사후관리의 부족

예술위원회랑 같이 선정된 팀은 지방 공연갈 수 있게 한다든지, 후속단위의 지원사업이 있어주면 이왕 키운 싹이 잘 크지 않을까. 그 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알아서 살아보세요'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C1)

아쉬웠던 점은 전에 예술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있는 창작산실이 진정 뭔가. 창작이 자리서고 그리고 그 유통까지 되어야하는데 유통단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거 같아요. (B1)

(창작산실은)국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1년에 한번 전국에 제일 이름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자기 작품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이 몰라 이거를. 이러면 안되요. 모든 창구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러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A1)

⑤ 유연하지 못한 평가기준과 행정적 구조의 문제

제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 서류 낼 때도 무대세트를 얼마를 해야하고

조명에 얼마를 써야하고 이런 항목이 다 있으니깐 여기에 맞춰야해요. (A1)

(1차년도 간담회에서) 평가지표가 한 둘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
그거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게 다 준비해놓으셨는데 그걸 신경 안 쓸 수 가 없자나요.
완전히 깨알 같아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경은 쓰지 말래요. (D1)

오페라쪽은 공모방식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쭉 해왔었는데,
대부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은 작품을 위촉을 받아서 쓰거든요.
그런데 오페라를 쓰기위해서 기성 작곡가분들은 공모를 못해요. 모든 작품들을 사양하고 그것만
써서 공모만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타 분야하고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위촉과 공모가 같이 간다던지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

⑥ 심사 및 평가기준에 대한 심사위원 간 함의 및 이해

(평가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과잉 경쟁이 되고 거품이 생기는 거죠.
규모가 크다보니까 (작품이나 실력 대신에) 무대세트를 보여줘야만 하는. (A2)

(심사위원들이) 예술적 부분들에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 주요 평가지표인데
이것에 대해 논의해서 (평가)한게 아니었자나요.(D2)

오페라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 구성부터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너무 대중화 되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고...처음 심사를 위해 악보를 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악보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가)

어떤 때는 심사위원들이 누구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작업을 하지 않은 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들이 학교에 계시면서...
사실 교수님들은 현장성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다)

□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개선방안

–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총 7개의 주요 테마가 분석됨. ① 장기적 연계방안을 통한 지속적인 재공연의 기회제공, ② 평가자 전문성과 평가체계 개선, ③ 장기적 안목과 장기적 성과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④ 정책적 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심사위원에 대한 이해도모, ⑤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사후관리, ⑥ 해외진출 전략을 위한 다양한 지원, ⑦ 지원작품 기록을 위한 총체적 아카이빙 구축으로 축약됨

- 장기적 연계방안을 통한 지속적인 재공연의 기회제공은 면접조사 참여자 대부분의 의견으로, 문화예술회관 및 국공립 공연장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공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우수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끊기면 사장되어 버리는 현 예술시장에 대한 대응과 창작산실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문화예술회관과 연계적 협업은 필수적 대안임이 강력히 재기됨
- 문화예술회관의 장르별 차별(예: 뮤지컬 선호)을 완화하는 장치로 비인기 순수예술 장르 중 반드시 25%를 무대에 올려야 하는 <장르 별 쿼터 제도> 또는 PAMS 와 같은 부처 간 협업체계 지원 등 또한 거론되었음
-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사후관리, 아카이빙 구축, 해외진출 전략 등은 작품의 유통과 관련된 것으로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 자체의 브랜드의 가치를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필요성이 드러남
- 또한 국가가 단계적으로 지원한 상징적 의미로 5년 이상의 장기 정책과 함께 기록물을 축적하고, 홍보를 통해 해외진출전략 등을 실제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해외진출의 경우 특별히 통번역 지원이, 적극적인 홍보 및 사후관리의 예시로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하여 국공립 기관에 배치 가능한 창작산실 우수작품 카탈로그 및 아카이브 작업의 필요성도 대두 됨

- 이 중 가장 시급한 개선방안으로 정책사업의 목표를 구체화 하고, 이를 심의위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심사에 대한 과정이 정책의 목표와 부합하는 결과로 이끌어가는 것이었음
- 부수적으로 심의위원과 매칭을 통해 자문과 상담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예술적 조언과 네트워크 확장 방안도 제안됨

① 장기적 연계방안을 통한 지속적인 재공연의 기회제공

가장 많이 열정과 노력이 들어간 작품인데, 향후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A2)

이렇게 어렵게 큰 규모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연계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순수예술은 어디서든 저희가 일인기업처럼 작품 만들고 정치해야할 판이니까요. 세일즈도 해야 하고. 그 벽이 너무 커요. 극장을 연계를 해주는 장치가 없다면 작품을 다시 올릴 기회가 없어요. (A5)

② 평가자 전문성과 평가체계 개선

폭넓은 인식들이 있어야하고 [...] 거기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심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A1)

(평가에 대한) 책임자가 있어야 해요. 누군가가 예술가들과 심사위원들과 또는 예술위 정책과 이것을 조율해줄 수 있는 전체의 책임자. (A3)

단일공연으로 인해서 공연예술계의 파장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잖아요. 이런 평가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자극할 수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B2)

공개적으로 심사한 내용을 발표를 해주시면 조금 더 투명하게 될 것 같긴 해요.

심사위원들도 자기 이름을 걸고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자나요. 공개 다 되는 거니까.(가)

③ 장기적 안목과 지속가능한 성과를 위한 시스템 구축

무대세트에만 3-4천만 30%나 40%나 차지했기 때문에 [...] 민간단체가 그 세트를 다시 보관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 작품의 검토를 통해서 무대 세트를 위한 지원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지 않나.(A1)

인터파크나 왜곡된 시장은 조절해주는 걸 공공에서 해줘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민간과 경쟁하려고 하듯이 하면은 서로 힘들죠. 공공은 공공대로 걸려낼 수 있는 작업들을 빨리 해라 거기에 더 집중하면 더 좋지 않냐 [...] 다만 어느 하나가 편중되지 않을 만큼 공공이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B2)

저는 나라에서 좋은 작품 검증하고 만들었으면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무언가 장기적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C2)

일단 창작산실 공연기간을 보면 그렇게 공연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깐 이미 마케팅 범위 내에서 시도할 수 있는 자체가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해외 수많은 대표적인 공연들을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제작을 5년, 6년을 공을 들였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5년6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왜 이런 방법을 하고 있나. (B1)

응원할 것들은 확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공연은 유보시켜야...지금은 뭐냐면 평가를 하고 우리지금 돈 이만큼 있어 자 그중에서 너네들 줄 한번 서 봐봐 [...] 여기까지 5위까지 선정. 이래가지고 과연 작품이 나올까. (B2)

해외같은 경우, 어떤 작품이 국가 브랜드로 되려면 이 삼년 정도 지원을 하는데 [...] (창작산실도 장기적인) 지원을 해서 자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라)

저도 미성숙 단계니까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사실 예술위 쪽에서는 예산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캐스팅할게 아니면 부담스럽고..
심사위원단이 괜찮으면 그분들이 멘토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해요. (가)

④ 정책적 목표 설정에 대한 재고려

레파토리 육성이면 중견들이 많이 할 텐데. 그렇다면 대작을 만든다는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도전 정신을 위한 뉴 폼(new form)인지.
목표점이 정해지면 (평가가) 알아서 되지 않을까. (A3)

저는 국민의 세금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공연은 안 된다고 봐요.
그 성과 자체가 어떤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이가지고 있는 본연의 중심적 가치가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B1)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디셀러들 이렇게 연극계 내에서나 공연계 내에서 지원으로
스테디셀러가 되는 경우는 한건도 없거든요 [...]
창작산실을 통해서 스테디셀러를 만들어내는 성과가 아니라
공공의 재원으로 실제 예술계에 얼마만큼 파격적인,
어떤 의미들을 자극시켜주었냐 라는 게 저는 사실 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그것(스테디셀러)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위험하다는 거죠. (B2)

현대무용 꿋꿋하게 하시는 분들 관객이 없어도 정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고뇌하고
만들어진 작품들 보면 보이자나요. 그런데 그런 작품들을 (시장성과 관계없이)
창작산실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역할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다)

⑤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사후관리

비교적 재공연까지 선정된다면 어느 정도 작품성이나 예술성은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문화예술회관이랄지 이런 극장과의 연계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우수 공연으로써
여러 공연장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A5)

⑥ 해외진출 전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솔직히 해외 쪽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 런던에서 저작권 때문에
창작산실 사업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영어)명칭도 없고,
(홈페이지에) 영어가 충분치 않아서 설명도 안 되고 홈페이지 딸랑 한 개고 (C4)

국내 시장성이 아직은 없는데 거기서 딱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창작산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면 좋은 콘텐츠들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고민도 하면 좋지 않을까. (라)

⑦ 지원작품 기록을 위한 총체적 아카이빙 구축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연차보고서를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평론가들하고
공식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하나의 큰 자료를
만든다면, 문화정책들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고...
국공립 재단도 있지만 예술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B1)

이거를 창작만 해서 아는 사람만 보고 없어지는...
어떤 그리고 무엇을 이 사람들이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D5)

제3절 이해관계자 정성연구 분석결과

1. 이해관계자 면접조사 참여자

□ 이해관계자의 경우, 면접조사(FGI: Focused Group Interview & PII: Personal In-depth Interview)에 참여한 인원은 총 7명으로 무용, 연극, 뮤지컬, 음악 분야의 전문가로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수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작품유통관련기획자 그룹과 비평가, 평론가 및 심의위원 그룹 모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공한 리스트를 바탕으로 면접 참여자 대상을 우선 고려했음
-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연구윤리를 위하여, 모든 참여자 개인을 대변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각 증언에 대한 구분은 참여자 개인코드를 부여하여 처리함

□ 수혜단체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6> 이해단체 정성연구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N= 7)

구분	참여자	성별	직위	장르	부여코드
평론가 및 심의위원	참여자1	여	평론가/심의위원	무용	Y1
	참여자2	남	평론가/심의위원	음악	Y2
	참여자3	여	평론가/심의위원	뮤지컬	Y3
	참여자4	여	평론가/심의위원	연극	Y4
작품 유통관련 기획자	참여자5	남	기획자	무용	X1
	참여자6	남	대표	음악	X2
	참여자7	여	단장/교수	뮤지컬	X3

2. 연구결과 분석 요약

□ 이해관계자 면접조사 분석 결과,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응답은 크게 효과와 제언 두 부분으로 나뉘어 드러남. 정책효과에는 각각 예술계와 시장 및 유통이라는 2개 부분에서 주요테마가, 제언에서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면접결과의 주요 쟁점이 파악되었음

- 수혜단체가 아닌 이해관계자(평론가·심의위원)라는 특수함으로 인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와 견해가 주를 이루었으며, 초점집단 면접에서 현 정책사업에 대한 견해로 문제점이 4개, 개선방안에 8개 테마로 나뉘어 분석됨
- 정책사업 효과의 경우, 예술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4개의 주요테마가 확인되었으며 시장 및 유통의 경우는 2개의 주요테마가 파악되었음
- 주목할 점은, 수혜관계자 면접결과 분석과 마찬가지로 뮤지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은 현 정책사업에 대해 가장 후한 평가와 만족도를 나타내었음.
- 수혜관계자 면접 결과 오페라·음악, 연극, 무용은 비슷한 만족도와 평가를 내린 반면, 이해관계자의 경우 음악은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연극과 무용은 그 중간 정도로 평가의견이 분석됨
- 다만, 질적연구의 경우 일반화가 연구목적이 아니므로 각 면접자 답변을 정책적 맥락과 현 예술생태계와 연관지어 이해하는 관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이해관계자의 전수조사가 아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5-7> 이해단체(공연예술 창작산실)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N=7)

분석틀	상위 범주	하위범주 주요테마
효과	예술계	– 창작뮤지컬 콘텐츠의 활성화와 창작기반마련 – 규모 있는 작품 제작 지원 – 레퍼토리 창작 유형의 확대 – 완성도 있는 작품 지원 및 발굴
	시장 및 유통	– 장기공연이 가능한 작품의 출품 –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확장
제언	문제점	– 정책사업 목적의 철학과 관점의 부족 – 장르별 특수성을 배제한 획일화된 심사단계 – 예술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배정 – 심의위원 위촉의 문제
	개선방안	– 정책방향의 철학과 목적 수립 및 이에 대한 명확한 소통 – 장기적인 안목의 작품지원 – 장르별 특성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형태 수립 – 창작 작품 자체에 대한 검증과정 및 완성도 관리 – 창작 후 후속지원과 유통을 위한 전략방안 마련 – 창작 작품의 시연 기간 조정 및 타 공공극장과의 협업 – 장르 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 정착 – 심의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객관화를 위한 노력

3. 연구결과 분석 내용

□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이 예술계에 미치는 효과

– 현 지원사업이 예술계에 미치는 효과로 총 4개의 주요 테마로 분석되었으며, ① 창작뮤지컬 콘텐츠의 활성화와 창작기반 마련, ② 규모 있는 작품 제작 지원, ③ 완성도 있는 작품 지원 및 발굴, ④ 대표작(레퍼토리) 창작의 유형 확대로 축약됨

• 전술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 그룹에서도 수혜단체 그룹과 마찬가지로 장르별 차이로 창작뮤지컬 분야 종사자들의 만족도와 평가가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콘텐츠의 활성화와 창작기반을 마련을 그 주요 이유로 꼽았음

• 이 외의 예술계에 미치는 효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으로 인한 레퍼토

리 창작 유형의 확대가 있었으며, 완성도 있는 작품 지원이 시스템을 통해 발굴되어진다는 견해도 확인되었음

① 창작뮤지컬 콘텐츠의 활성화와 창작기반 마련

창작 뮤지컬을 만드는 단체들은 이런 지원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창작 뮤지컬을 개발을 한다라고 보면,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롱런 가능성이 있는 창작 뮤지컬들이 최근 2-3년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성과가 상당히 있는 편이예요. (X3)

뮤지컬 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단 창작활동 하라는 게 콘텐츠활성화라고 보고요. 결국 콘텐츠는 작품인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좋은 창작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차별화된다고 봐요. (X3)

대본 작업부터 시범공연 그 다음에 본 공연 재공연까지 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관객에게 검증되는 과정까지 지원 시스템을 두고 있다라는 게 창작 뮤지컬 부분에서는 하나의 큰 그림이고, 그 자체가 시스템이 되죠. (Y4)

② 규모 있는 작품 제작 지원

공공기금 중에 들어오는 돈은 제일 커요. 그런데 정말 창작산실로 브랜드가 되려면 창작산실에서 배출된 작품들이 그 다음 단계(홍보나 유통)가 있어야 해요. (X2)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만 지원을 하는 지원금이고, 일단 목돈을 준다라는 것 때문에 오는 건데 (Y1)

③ 레퍼토리 창작 유형의 확대

예전에는 창작 또는 작곡이라고 하면 한국의 작곡가들이 크게 실내악이나 독주회,

작은 규모의 작품 위주 였어요 [...] 왜냐하면, 연주자 섭외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서 의의를 둔다면 가장 저조한 창작 분야인 오케스트라랑 작곡가를 매칭해서 오케스트라곡이 한 곡도 없는 작곡가들한테도 오케스트라 레퍼토리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Y2)

④ 완성도 있는 작품 지원 및 발굴

작품이 완성도 있게 만들어 질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 크리에티브팀과 만나게 해주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뮤지컬 쪽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현장하고 잘 맞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Y3)

□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이 시장 및 유통에 미치는 효과

-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 시장 및 유통에 미치는 효과로는 ① 장기공연이 가능한 작품의 출품과 ②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확장이 도출되었음
  - 장기공연이 가능한 작품의 출품으로는 완성도와 연출 면에서 뛰어난 작품이라는 점을 지목했으며,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확장의 예로 특정 장르가 가진 고유함과 관객과의 소통 및 워크샵을 통한 공유라는 면에서 다층적 의미로 해석 됨을 알 수 있음

① 장기공연이 가능한 작품의 출품

최근에 현 사업의 단계적인 지원에 의해서 창작 뮤지컬 중 주목할 만한, 그리고 장기 공연이 가능한 공연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2-3년 사이에 평균 3-5개 정도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 뮤지컬 분야에 창작 크리에터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X3)

연극 같은 경우, 지난 번에 공연한 미국아버지라는 경우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작가, 연출가가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공연이 되고 사실 일 년에 이런 연극이

한편만 나와도 이 제도가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Y4)

②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확장

예술의 공공성은 상업성의 대칭이라고 보는 것도 한 편이지만,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함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우리가 창작뮤지컬을 정말 작품으로써 그 안에 작가라는 개념을 설정한다면 저는 창작산실이
뮤지컬의 상업성이 아닌 공공성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Y4)

기존의 작품지원의 경우는 발표로만 그쳤는데 이 과정(창작산실) 안에는
어떤 작곡가와 일반 관객들과의 워크숍, 그 다음에 강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관객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의의가 있습니다. (Y2)

□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문제점

- 현 지원사업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장르와 상관없이 공통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 테마로 ① 정책사업 목적의 철학과 관점의 부족, ② 장르별 특수성을 배제한 획일화된 심사단계, ③ 예술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배정, ④ 심의위원 위촉의 문제로 총 4개의 주제로 드러남
  - 특히 정책사업 목적의 방향성에 있어 모호함, 장르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평준화된 심사단계, 심의위원에 대한 선정에 대한 아쉬움은 수혜단체의 초점집단 면접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 문제로 이에 대한 시급성을 드러냄
  - 그러나 예술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배정의 경우, 무용과 음악에 있어 장르별 특수성과 이에 대한 시장성에 기인한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세부적 장르로 발레와 오페라의 소수 전문인력과 타 장르에 비해 특히 취약한 관객층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배정은 오히려 공급자 중심의 절름발이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함
  - 동일한 맥락으로 획일화된 단계 별 심사와 이에 대한 예산 배정 또한 장르의 특수성과 맥락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의 맹점임을 피력함

① 정책사업 목적의 철학과 관점의 부족

저도 궁금해요. 목적이 뭔지. 이게 인큐베이팅인지 아니면 레퍼토리 지원인지. 아직 자기 색깔을 못 만든 아티스트를 위한 인큐베이팅인지 아니면 자기 색깔을 어느 정도 갖춰 논 다음에 공연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지. 이 두 개가 모호하게 섞여있는 것 같고요. (X1)

이전(창작팩토리)의 사업이 문화예술위원회로 오면서 아직도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도 쭈뼛거리는 것도 있어요. 내 나이에 가도 되나, 너무 많거나 어리거나 뭐 다들 혼란스러워하죠. (Y1)

창작활성화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 창작활성화를 해야하냐 라는 철학이 궁금하고요. 이걸 왜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예술위원회 측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X2)

왜 이런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철학이나 기본적인 미션, 비전이 같은...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Y3)

항상 무슨 말만하면 인력이 부족하고 서울 출장소에 있는 사람도 부족해서 인턴직원을 뽑았다 그러는데 그들은 다 20대 젊은 여자들이예요. 그니깐 초대권 관리만으로도 바쁜데 다른 건 돌아 볼 수 가 없는 거죠. 어떤 철학을 가지고 뭘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에요.(Y1)

② 장르별 특수성을 배제한 획일화된 심사단계

무용 같은 경우는 제일 불만이 뭐냐면 쇼케이스 부분이예요 [...] 담당자들이 장르 특성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같은 매뉴얼을 적용시킨단 말이죠.(X1)

저도 궁금하다는 거죠. 훌륭한 작품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오히려 성과 책정이라는 게 자동차 스펙 뽑듯이 연비가 얼마고 어디가 디자인 오더를 받았고 몇 십만대 팔렸고. 이런 개념으로 뽑을려고 하면 예술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꿔야 된다고 봐요. (X2)

③ 예술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배정

이 분야는 얼마만큼 배정이 되어야 하고 얼마만큼씩 예산이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이런 전체 그림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판단을 할 텐데 몰라요. 그러다보니 일관성도 없고 중심도 안 잡히고. (창작을 하는 사람과 관객도 없는) 오페라와 오작교를 함께 하는 것부터. 벌써 거기서부터 잘못 됐다는 거죠. (X2)

창작 오페라는 사실 너무 공급자 중심이고, 더 큰 문제는 한번 올리고 나서 그 다음 재연이 불가능합니다. 뮤지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번 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페라는 정말 일회적인 페스티벌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한국의 어떠한 장르든 통틀어서 오페라 관객이 제일 적을 거예요 [...] 그런데 여기서 7개까지 지원하고 이런 거는 과도한 거죠.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고 철저하게 수요자 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그냥 그들만의 리그인거죠.(Y1)

돈을 획일적으로 주는 거예요. 사실 규모가 큰 공연도 있고 작은 공연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상금을 나눠서 차등을 시켜서 나눠줘야 하는데 무조건 1억 이예요. [...] 심의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함량미만인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공연이 잘 나올 지도 모르는데 그런 작품을 뽑아놓으면 또 이런 작품에다가 돈을 쏟아 부었다고 욕을 먹을 것이고. (Y4)

우리나라에서 창작 발레를 만들 수 있는 안무가는 몇 명 없어요 [...] 사실은 컨템퍼러리가 훨씬 안무가도 많고 무용단도 많은데, 이번에도 대극장이 현대무용은 한 작품밖에 없을 거예요 [...] 발레 쪽은 열악하고 인프라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구색을 맞추고 숫자를 맞춰주다 보니깐 올해 아마 장담하건데 발레 참담할겁니다. (Y1)

④ 심의위원 위촉의 문제

문제가 된 심사위원을 계속 선정을 해서 참여를 시키는 건 문제가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분야 대표적인 전문가이긴 한데, 굉장한 이해관계에 얽혀있어요. 그래서 그 심의 위원에 대한 지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심의위원 활동을 하는 거죠. 물론 위원 풀이 너무 적어서 인 것 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X3)

어떤 의도 때문에 선정했는지 이해는 가요. 어떤 특정세력이나 계파와 연관되지 않은 굉장히 초야에 묻혀 있는 분들이 아주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초야에 묻혀서 이 세계가, 무용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통 모르는 거예요. (Y1)

□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개선방안

- 지목된 문제점을 포함하여, 현 지원정책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총 8개의 테마로 분류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① 정책방향의 철학과 목적 수립 및 이에 대한 명확한 소통, ② 장기적인 안목의 작품지원, ③ 장르별 특성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형태 수립, ④ 창작 작품 자체에 대한 검증과정 및 완성도 관리, ⑤ 창작 후 후속지원과 유통을 위한 전략방안 마련, ⑥ 창작 작품의 시연 기간 조정 및 타 공공극장과의 협업, ⑦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 정착, ⑧ 심의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객관화를 위한 노력이 도출됨
  - 정책방향의 철학과 목적 수립은 전술된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이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점과 마인드에 대한 개선 요구도 함께 드러났음. 또한 목적 수립 후 이에 대한 수혜대상에 대한 구체성과 이에 대한 명확한 소통도 함께 제안됨
  - 장기적인 안목의 작품지원, 장르별 특성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창작 후 유통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공공예술극장과의 연계, 평가 시스템과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객관화 모두 수혜단체의 제안점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에 대한 제안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장르별 예술분야에 통찰력을 가진 코디네이터 또는 예술감독(심사위원장)을 선출하여 정책 방향성과 통일된 심의 및 지원과정을 거치는 것이 강력히 제안되었음
  - 수혜단체 초점집단 면접결과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창작 작품 자체에 대한

검증과정 및 완성도 관리 부분은 특히 심위위원과의 초점집단 면접 결과 강조되었던 부분으로, 정해진 예산을 단순히 분배하는 관점에서 떠나 작품의 우수성과 규모에 부합하는 지원이 필요한 점과 이에 합당한 작품이 없거나 계획서에 누락된 작품의 요소들이 발견되면 과감히 예산을 삭감 또는 환수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었음. 이는 창작산실 우수작품이라는 브랜드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① 정책방향의 철학과 목적 수립 및 이에 대한 명확한 소통

특히 무용 같은 경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자기 브랜드를 만들기 직전을 위한 사람들인지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논 상태에서 그 더 들어가기 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일단 그거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Y1)]

뮤지컬은 대본 가지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시범 공연을 본다 하더라도 그게 본 공연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 지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 따라서 창작산실에서 기대 하는 것은 인큐베이팅이나 작가의 발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거. 이거 자체를 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Y4)

문예위가 창작산실에 대한 역할과 진행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 분명히 지원인데 점점 마인드가 본인들이 제작비를 직접 대고 제작을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묘한 인상을 받았어요. 직접 수익 사업을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역할 인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X3)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화를 다루고 기금을 다루는 기관의 전반적인 마인드가 부족해요. 기관의 입장에서는 예술가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그렇고 기관의 소비자 고객이란 말이죠. 그 고객에 대한 마인드가 아닌 관리자의 마인드라는 점이 바뀌어야. (X2)

② 장기적인 안목의 작품지원

작품을 1년 안에 만든다 라는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단계적인 지원이 2-3년은 지속되야

발전가능성 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나 [...] 창작 작품 하나 만드는데 보통은 공연 올리기 까지 1년 이상 걸린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지원 프로그램을 구상해야하는 것 같고. (X3)

(창작산실이) 장기라고 하지만 국제 교류 하다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가없어요. 상대방에게. 왜냐하면 내년은 내년기금 또 신청해야하니까. 우리는 최소한 3년짜리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깐 장기적인 작업이 아예 안돼요. 뭘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거죠. (X2)

③ 장르별 특성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형태 수립

장르별 특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 그리고 난 다음에 장르의 특성에 맞게끔 진행 프로세스를 바꿔야죠. (X3)

부작용으로 보자면 연극 또는 무용 같은 경우 초연이 재연으로 가는 가능성이 있자나요. 클래식은 전혀 없습니다. 초연이면 그냥 다 끝납니다. [...] 현재 사업은 수혜단체의 고유한 레퍼토리로 안착을 해야 하는데 안착으로 가는 과정이 여기에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거죠. (Y2)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 단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무용 15분 만들면 그거 1시간 만든 거랑 마찬가지예요. 의상 음악 조명 다 나와야지 15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15분용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본 작품과 상관없는. (Y1)

장르의 특성상의 문제인데 음악은 악보 출판까지 필요해요. 악보가 나와서 어느 단체든지 이거를 다운 받고 살 수 있게끔 작품이 계속 돌고 돌아야 하는데 [...] 음악 쪽은 악보라는 것만 있으면 충분히 오퍼레이팅이 가능한 장르거든요. 그런 악보 출판까지가 필요한데 그런 옵션은 전혀 없었어요. 발표로만 딱 끝났죠. (Y2)

④ 창작 작품 자체에 대한 검증과정 및 완성도 관리

큰 지원금을 주는데 그게 제대로 쓰여 졌고 잘 만들어졌는지. 이걸 관리를 해서 심하게는 환수

하더라도 뭔가 엄격하게 집행해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Y4)

우수공연이라고 뽑아 놓은 공연 중에 너무 형편없었던 공연도 많더라고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다 주는 건지 그 기준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야 창작산실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고 [...]
예술적 관리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Y1)

⑤ 창작 후 후속지원과 유통을 위한 전략방안 마련

작품은 세상에 나와 봐야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끼리 좋다 나쁘다는 둘째 문제고
세상에 만나는 작업은 그 이후에 공공극장들에서 해줘야죠 [...]
탄생한 작품들을 세상과 만나는 작업을 2차로 해주셔야 해요.
거기서 그 결과물들을 보시고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X2)

그 다음 넥스트가 없어요. 창작산실을 통해 굉장히 다양한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그 다음 세상과 만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작품의 규모 상) 그거는
일개 기획자나 예술가들이 할 수 없는 작업이에요.(X1)

창작산실이라고 할 때'실'이란 공간을 뜻하자나요.
그 공간 안에 있는 예술가라면 이 안에 있는 동안 계속 제작을 하려고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계속 품어줄게'라는 뉘앙스가 필요한데... 사실 사업이 굴러 가는 거 보면, 일단은
지원금 뿌리고 담당자들은 우리들은 할 건 다 했다 이런 뉘앙스로 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홍보라든지 그런 관리에 있어서는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Y2)

⑥ 창작 작품의 시연 기간 조정 및 타 공공극장과의 협업

그 작품이 가장 적절한 곳을 매칭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건 신경을 안 쓰고
작년에 무조건 이해랑극장에서 획일적으로 시켜놨거든요. 그 극장이 무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관객들과 교감도 안 되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실험적인 그런 희극을 하는게 힘든 극장이예요.
그런데서 획일적으로 해버렸고, 홍보도 너무 안 되고 이런 상황이죠. (Y4)

정말 공연 기간을 확보를 해서 관객들 한테 노출이 되고 홍보를 해야하는데 그 다음에는 열 작품이 올라 간다고 하면 정말 다다다닥 일정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거를 좀 넓게 펼쳐서 그래도 좀 선택해서 볼 수 있게 [...] 그런데 이거를 다 붙여놓으니깐 본의 아니게 경쟁 체제가 되는 거예요. 창작산실작품들끼리. (Y3)

창작 이후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죠. 전국의 그 많은 문예회관이 놀자나요. 가동률이 30프로가 안돼요. 좋은 작품들 픽업해놨으면 뿌려줘야죠.(X1)

선정된 작품을 공공 공연장이나 공공 단체들이 수용을 하는 것 까지 제도화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사실은 선진국들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X3)

⑦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 정착

이거는 심사과정에 대한 문제였는데, 스코어(악보)를 볼 수 있는 심사위원들이 있고 없는 심사위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구술인터뷰로 했어요. 앞에 스코어가 쭉 있기는 했는데 기존의 그냥 작곡가가 쓴 악보만 나열을 했지, 이번에 쓸 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아웃라인인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니깐 순전히 구술로만. 감으로만. [...] 저희는 정말 허공에서 심사를 했던 거예요. (Y2)

각 장르별 코디네이터 또는 창작산실지원사업의 책임 예술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장르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과정을 관리 하든 뭘 하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문예위 직원말고. 예술적 관리자의 체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Y1)

평가지표는 사실 점수가 아니라 ox로 가도 돼요. 외국은 ox로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술가들이 묻는데요 10점 차이가 뭐냐. 심사위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ox로 많이 바뀌었죠. (Y2)

심사를 하기 전 기관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설명이 충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 자체 로드맵이 없는 거 아닌가. (Y1)

어떤 정책이 사라지거나 변할 때 뭔가 공표되지 않는 것들. 제일 심각하는 것들은 심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공개되진 않는 것, 누가 선정되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
책임 심의가 없어지면서 그것도 말도 없이 없어졌어요. (X1)

⑧ 심의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객관화를 위한 노력

심의위원들에 공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에도 공을 들여서 선정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 수혜 대상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아마 분야별로 다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예위는 선정위원 구성에 있어,
본인들의 권위의 신뢰성을 위해 정말 신중히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X3)

심의위원이 구성된다라는 거는 이 사업의 성격을 사실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어떤 심의위원을 뽑느냐,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가 이 사업의 가지는 목적을 보여주는 건데 [...]
사실은 매년 기준 없이 달라지고 일관성 없이 간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고. (Y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 굉장히 협소해요 [...]
기존의 인수인계로 내려오는 문서들과 본인이 알고 있는 새로운 몇 분을 더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내년에 똑같은 심사장을 만드는 것이고, 내후년도 마찬가지고. (Y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 소결

□ 전반적으로 현 정책사업에 대한 구조적 한계점 및 문제점에 대한 참여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혜단체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남. 그러나 이해관계자의 경우,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표명한 의견으로 상당히 비판적인 이해와 견해가 주를 이루었음

□ 수혜단체의 경우,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효과는 크게 내부적 효과와 외부적 효과로 구분되어 분석됨

- 현 정책의 내부적 효과로 ① 제작비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안정감, ② 작품제작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제공, ③ 실험정신, 새로운 시도를 통한 인식의 확장, ④ 예술성을 앞세운 시장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 완화, ⑤ 대표적 래퍼토리 구축, ⑥ 단원의 기량, 성취감 및 결속력 강화, ⑦ 단계별 계획을 통한 작품기획 및 역량 강화를 지목함
- 현 정책의 외부적 효과로, ① 검증을 통한 외부의 신뢰도 및 인지도 상승, ② 단체의 브랜드 네임 강화, ③ 폭넓어진 관객층, ④ 외부 단체 접촉을 통한 네트워크 및 협업의 기회 확대, ⑤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로 분석되어졌으며 이 중 외부환경에 있어 신뢰도와 인지도 상승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이해관계자(유통, 평론가 및 심의위원)의 경우,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효과는 크게 예술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장 및 유통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되어 분석됨

- 예술계에 미치는 효과로는 ① 창작뮤지컬 콘텐츠의 활성화와 창작기반 마련, ② 규모 있는 작품 제작 지원, ③ 완성도 있는 작품 지원 및 발굴, ④ 대표작(레퍼토리) 창작의 유형 확대로 축약됨
- 시장 및 유통에 미치는 효과로는 ① 장기공연이 가능한 작품의 출품과 ②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확장이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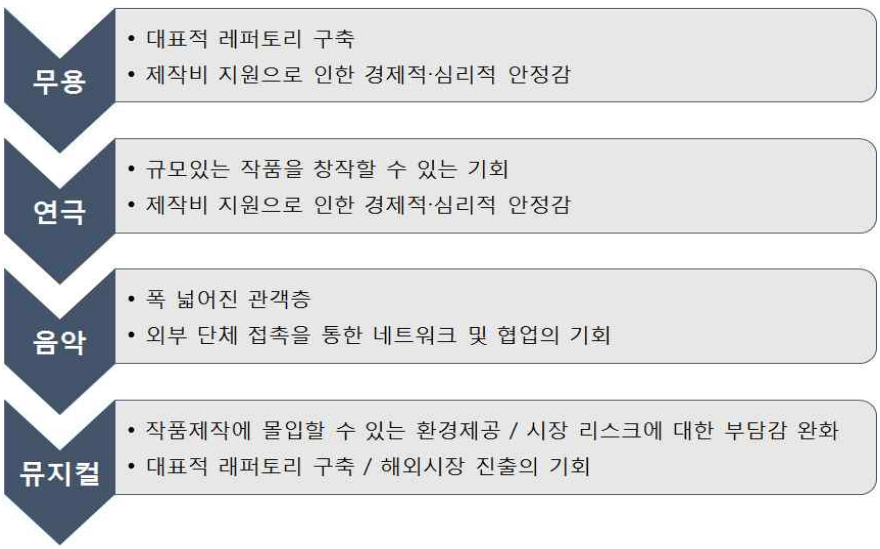
□ 수혜단체와 이해관계자 그룹 모두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에 있어 가장 긍정적이고 큰 만족감을 드러낸 장르는 무용, 음악, 연극, 창작 뮤지컬 중 창작뮤지컬로 드러남.

- 이러한 결과는 각 분야 중 문화산업에 가장 가까운 뮤지컬 분야가 현 정책사업의 시스템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예술가 중심이 아닌 전문 기획사 중심의 협업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각 단계별 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현 정책과정의 특성과 뮤지컬 창작시스템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고 추측됨

□ 총체적으로 현 정책사업이 가지는 장르별 주요 효과는 아래와 같음

- 다만, 아래의 결과는 일반화가 연구의 목적이 아닌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로 성급한 일반화의 잣대로 다가가기보다는, 각 면접자의 답변을 정책적 맥락과 현 예술생태계와 연관지어 이해하는 관점이 요구됨

[그림 5-3] 장르별 주요 효과 그림 65



□ 수혜단체의 경우, 현 정책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총 6개로 ① 일괄성과 지속성이 결여된 정책 및 행정, ② 정책목표 설정과 취지의 모호함, ③ 작품규모에 맞는 시장의 부재 그리고 이에 따른 부담감, ④ 작품제작지원 이후 홍보 및 사후관리의 부족 , ⑤ 유연하지 못한 평가기준과 서류상의 구조적 문제, ⑥ 심사 및 평가기준에 대한 심사위원 간 함의 및 이해가 지적되었음

□ 이해관계자에 의해 도출된 현 지원사업의 문제점은 ① 정책사업 목적의 철학과 관점의 부족, ② 장르별 특수성을 배제한 획일화된 심사단계, ③ 예술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배정, ④ 심의위원 위촉의 문제로 함축됨

□ 수혜단체와 이해관계자의 입장차이로 인해 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모두 일치하지 않으나, 특히 정책 목표와 방향성, 작품제작 후 사후대책, 그리고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모두 문제를 제기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파악되었음

2. 시사점

□ 공연예술단체가 사업에 지원한 동기와 기대효과를 실질적인 정책적 생산물인 내·외부적 효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의미가 큼. 다만, 현 정책사업의 문제점에서 드러나듯이, 수혜단체와 정부정책 사이에 가시적 성과 또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적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 현 정책사업의 목표로 설정된 “창작의욕 고취와 경쟁력 강화” 중 창작의욕과 이에 대한 결과는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이나, 우수작품제작지원을 통해 작품중심의 수익구조모델을 고안하여 시장경쟁력을 획득하는 것은 더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현 지원사업의 중요한 그리고 가장 뚜렷한 효과는 외부적 효과보다는 내부적 효과로, 공연예술창작에 대한 본질적이고 주축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해 보임

- 특히, 현 사업을 통해 대표적이고 독창적인 레퍼토리를 구축하고, 국내외 공연장 또는 페스티벌에 초청받거나 해외시장 진출 시발점이 된 점은 주목할 만한 효과임
- 다만, 창작력과 경쟁력 중 현 정책사업의 효과는 공연예술단체의 창작력에 더욱 실질적이고 확실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쟁력의 강화는 작품제작지원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사후관리나 홍보체계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그에 대한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급히 다루어져야 하는 우선 문제로 작품지원 후 작품에 대한 사후지원 및 관리의 부족이 도출되었으며, 정책의 고유한 목표설정과 이에 대한 예술계의 동의를 얻는 것 또한 주요한 사안임이 드러남.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러한 합의과정을 통해 심의위원에게 정책의도와 목표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개선방안임이 피력됨

- 장기적 연계방안을 통한 지속적인 재공연의 기회제공은 면접조사 참여자 대부분의 의견으로, 문화예술회관 및 국공립 공연장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공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우수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끊기면 사장되어 버리는 현 예술시장에 대한 대응과 창작산실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문화예술회관과 연계적 협업은 필수적 대안임이 강력히 재기됨

□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공연예술창작육성지원사업’을 기관의 독창적인 고유 브랜드 사업으로 심화하기 위해 정책 목표설정에 대한 차별성을 창작에 집중하고, 발굴된 작품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홍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사후관리를

통해 현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 시급함

□ 이와 함께,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예술인의 자부심과 예술계 내부에서 인정하는 신뢰와 위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심의위원의 위촉과정의 투명성, 단계별 심사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설계 및 심의결과 공개를 통한 소통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제6장

확대운영 및 개선방안

1. 지원 관행의 개선
2. 목표 우선순위와 적정 재원규모 파악
3. 창작성 제고 방안
4. 작품 우수성 제고 방안
5. 협업시스템 장려
6. 단체의 경쟁력향상 기여 방안
7. 심의평가제도 개선
8. 생태계발전 전략화
9. 사업목적에 부합한 세부전략
10. 위원회의 활성자 역할 강화
11. 단기적 개선 사항

1. 지원 관행의 개선

□ 고려할 점

- 지원정책은 그동안 되도록 많은 대상을 선정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하는 '시혜성 지원' 정책을 기조로 유지하여 이른바 '소액다건 지원' 방식이 관행으로 이어져옴. 그 결과 작품들이 단기성 과시나 전시행사와 같은 성격을 지님.
- 이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비판과 개선요구가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그 동안 재정 여건 감안, 지원수요대비 적정비율의 유지, 예술계현장의 요구 반영, 정치적 현실 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판단되어 유지되어 왔음.
- 창작산실 지원은 이 같은 소액다건 지원방식의 관행을 보완하고, 지원 실효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으로 대폭 개선되어 추진되면서 긍정적인 반응과 정책효과를 거두었음.
- 창작산실 지원정책은 이 같은 장점을 더욱 보강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갖춰 나가야 함. 예를 들면, 잠재적 수혜자들이 예측 가능한 준비를 하고, 관계자들이 지원정책을 이해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서 지원 분야나 내용의 변화로 인한 거래비용의 발생을 감소시켜주도록 해야 함.

□ 지원정책 기조의 개선

- 지원규모에 대한 수요는 끝이 없이 요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공연현장의 목소리이지만, 1건당 지원액 규모를 상대적으로 더 늘려서 재정계획과 작품기획을 연계시키는 지원정책으로 개선토록 해야 함.
- 제작비 규모가 큰 대작이나 실험창작을 더 많이 원하는 수혜자들의 기대를 적절히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는 것이 이제 검토되어야 함.
- 이러한 지원정책기조는 창조적 실험, 작품성 제고, 예술성 담보, 예술소비자들의 다양한 기대 부응, 높은 수준 충족이 가능한 작품을 기획하도록 지원한다는

기존 정책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음.

- 창작산실 지원이 현장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차분하고 계획적인 창작여유를 갖고, 예술성과 실험성을 존중하며, 관객의사를 반영하는 소통채널의 구축을 시도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함.

2. 목표 우선순위와 적정 재원규모 파악

□ 고려할 점

- 창작산실육성지원 사업의 목표는 '수준 높은 창작 공연예술 작품의 제작과 레퍼토리화 지원'에 있다고 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기준은 '예술성'(창의성, 실험성, 완성도 등의 속성)과 '자생성'(경쟁력, 수익성 등의 속성)을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실험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쉽지 않아 두 지원기준은 딜레마임. 이를 감안하여 '예술성'과 함께 '자생성'을 추구하는 목표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특히,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이 지원금을 받아 일회성으로 단기간 공연된 후 사장된다면 사업의 존재의의 자체가 약화될 수 있음.
- 창작산실 사업이 개별 창작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단위 사업지원목표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함.
  - 2015년 지원 건수는 77건 지원 금액은 총 31억 9천 3백만원으로 건당 평균 약 4,150만원 정도임. 계속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4,000만원 규모의 단건의 지원사업으로 창작산실만의 고유지원사업 목표를 달성한다고 볼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함
- 지원은 그 동안 단체나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수혜단체는 지원을 받아 한 해 한 해 공연을 제작하고 그 다음해는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불안정 지원시스템으로 이어져왔음.

-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므로 해마다 성장성이 보이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함.

□ 적정 재원규모 파악

- 창작산실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정한 재정규모를 산정해 볼 필요가 있음. 비용측면에서 공연예술산업이나 창조산업이 갖는 특징은 고정비용이 높음.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음. 따라서 주요 장르별로 먼저 고정비용을 조사하고 사업별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창작성 제고 방안

□ 고려할 점

- 지원기관의 입장에서 문화행정의 형식합리성 준수가 중요한데 창작자들에게 이 점은 익숙하지 않음.
- 공공예산 집행에 대한 이와 같은 절차적 합리성, 예산집행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이 창작의욕을 꺾을 정도까지는 아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같은 요구가 힘들기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는 많음. 그러다 보니 “창작수준 제고 보다는 위원회의 서류 요구 수준을 맞추는 것이 예술인에게 더 중요하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 한정된 예산에 많은 단체가 신청하고 소수 단체가 선정되다보니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하며, 단체들은 과도경쟁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기획에 몰두하거나 기획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생겨남. 결국 창작에 몰두하는 대신 비창작 분야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음. 다행이 선정되면 그나마 문제가 없지만 대상에서 탈락되면 후유증이 오래 감.

□ 컨설팅 지원으로 창작 몰입케

- 예술단체들에게 창작성과 시장성 사이에서 전략적 경영 고민이 크다는 점은 앞에서도 이야기 한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임.
- 따라서 창작산실사업으로 창작성제고 몰입가능한 안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시장에서의 타격 우려 없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성과를 가시적으로 거둘 수 있음.
- 시장성 추구를 확장하는 경영매개로 활용하도록 관련 컨설팅을 병행하면 더 큰 지원성과를 거둘 있음.

□ '사전준비 지원' 제도 신설

- 제작 후 공연성과를 보고 지원하는 관행 때문에 실질적인 인큐베이팅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 동안의 지원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
- 이런 점에서 공연 전 준비과정에 필요한 재원조성, 세미나,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하여 창작초기에 마케팅 제작, 공연기획이 충분히 이루어져 실질적 지원효과가 두드러지게 해야 함.
- 예를 들면, 미국의 National Performance Network(NPN)은 'Next Link Project'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단체들이 인큐베이팅(incubating based approach)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도록 실질적인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창작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봄. 이는 작품 창작초기에 지원을 하여 마케팅과 제작 및 공연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4. 작품 우수성 제고 방안

□ 고려할 점

- 창작산실 지원은 그동안 창작품의 작품성을 제고하는 종합요소를 설정하여 운영한 덕분에 단체의 실질적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연결되는 의의를 갖게 되었음.
- 특히 음악분야 창작산실은 이런 점에서 잘 운영되고 있음. 앞으로는 다른 장르에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몇 가지 점을 개선해야 함.

□ 제작기간 실질 보장

- 작품 우수성 보장을 위해서 장기적 지원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1년 단위 예산의 편성 주기에 맞춘 지원은 구조적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성과를 내기 좋은 분야나 방법만 발전하게 됨.
- 예술적 독창성이 장기 지원만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술적인 역량의 확보는 단기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로 일단 선택되면 선택된 자가 상황에 맞게 작품제작기간을 선정하도록 하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작품제작 기간 자율선택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캐나다의 무용창작지원사업(Production Project Grants in Dance:PPGD)에서는 단기제작지원과 장기제작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단기제작지원은 1개 작품을 24개월 제작기간 안에 완성후 유료관객에게 선보여야함. 그러나 장기제작지원은 2년~5년 사이에서 지원자가 선택하도록 되어있음.

□ 중요한 지원자격은 더욱 엄격하게

- 작품 우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탁월한 작품제작 경력이 있는 단체들이 임시적으

로 만든 단체인 경우에는 매우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붙여서 우수성을 담보하는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함.

- 예를 들어, 캐나다의 무용창작지원사업(Production Project Grants in Dance:PPGD)에서는 Ad Hoc방식의 임시팀에 대해서 자신의 경력수준에 맞고, 전문인력으로서 급여 받은 실적을 증명하며, 최소한도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한 경력을 확실하게 증명할 경우에만 작품 우수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지원자격으로 제시하고 있음.

5. 협업시스템 장려

□ 협업으로 작품제작 장려

- 창작산실 지원으로 수혜단체들은 대작 제작, 새로운 작품 실험, 작품을 지속적으로 세련되게 만들고 고쳐가는 데에 확실히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창작단체의 경쟁력을 키워 책임 있게 작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개의 단체가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특히 연극계통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작품을 제작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임시조직으로 신청하는 것도 장려하고 지원토록 함.
- 예를 들어, 캐나다의 연극창작지원사업(Theatre Production Project Grants: TPPG)은 Ad Hoc으로 구성된 팀들이 연극작품을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연극전문 예술인끼리 협업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음.
- 영국 Creative Europe Desk UK의 Cooperation Projects는 장르 구분 없이 유럽 기반의 예술단체간 협업을 장려하며, 최소 3개 단체가 함께 팀을 만들어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칭펀드를 달성해야 지원해주는 협업에 의한 창작성 제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이 경우에 공연밀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단체나 지원기관이 유의해야 할 것임

□ 교류 및 네트워크 향상

- 작품의 규모에 알맞는 시장을 찾아 교류하고, 단체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하는 세부 경영지원 정책을 마련해야함.
- 협업방식으로 참여하는 창작산실 지원 수혜단체들은 진행과정에서 서로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경영전략이나 시장마케팅을 공유하며, 추진과정이나 사후 관리 면에서 성과가 더 커지도록 전략을 개발을 장려함.
- 협업을 위해서는 개별단체들이 경쟁력을 갖춰야하는데 특히 외부와 교류를 늘려 향상되게 추진해야함. 따라서, 네트워크 소통시대에 알맞게 예술단체들이 협업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단체의 활동영역이나 홍보 및 마케팅 시장을 강화하도록 지원함.

6. 단체의 경쟁력향상 기여 방안

□ 고려할 점

- 단체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추진할 여력조차 없이 임기응변으로 단체를 이끌어가는 방식의 경영을 벗어날 수가 없었음.
-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단체들은 장르 간 경쟁과 아울러 작품간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늘 걱정하는 상황이 누적되어 왔음.

□ 대표레퍼토리 개발과 브랜드화

- 창작산실 지원을 받아서 대표적인 레퍼토리를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하거나, 실제로 단체가 지원받은 프로그램으로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데 활용하도록 유도해야함.
- 이를 바탕으로 단체의 위상을 정립하며 이를 브랜드화 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브랜드화를 위해서 '창작산실육성지원'을 받은 작품은 '감상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수준'이라는 인식을 관객들에게 홍보하고, 작품의 브랜드가치를 만들어 가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창작산실육성지원' 로고를 디자인해 작품홍보에 활용하고, '창작산실육성지원'을 받은 작품 감상자들을 대상으로 '회원제'를 도입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감상 마니아층을 형성해 나감.

□ 단체 경영역량 제고

- 창작산실 지원으로 단체들이 무기력증에서 탈피해 활력을 찾고, 단원 기량을 향상시키며, 단원들이 스스로 성취감을 맛보고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음.
- 단체 리더나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되는 배분항목을 감안해서 배분기준으로 삼아야 함.
- 인적자원 역량제고 노력결집 매개체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예산활용 항목 검토도 필요함.

7. 심의평가제도 개선

□ 고려할 점

- 위원회는 제도명확성과 책임운용, 공공예산의 집행책임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응력이 뒤떨어지는 단체들에게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함.
- 지원대상 선정 평가의 형식적인 운영,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의 수시 변경, 지원행정의 복잡성 등이 불만요소로 지적되어 우선 개선항목으로 제기됨.
- 금액산정 회계절차 명확화에 대한 예술인들의 부적응도 잘못 운영되면 평가제도 자체를 형식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개선해야 함.

□ ‘대중성’ 항목의 개선

- 심사기준에서 ‘대중성’ 항목이 연극 및 뮤지컬 분야의 대본심사에 들어 있음. 그런데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추도록 요구하는 심사기준은 창작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당혹스러움. 이 항목은 팩토리 지원 때 만들어진 지표로서 사용되어오던 관행을 단순히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
-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대안지표를 개발해야 함. 대체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예를 들어 ‘관객친화성’, ‘동시대성’ 등을 제시할 수도 있음. ‘동시대성’ 지표는 미국 뉴욕뮤지컬극장페스티벌(The New York Musical Theatre festival: NYMF)에서 ‘동시대의 현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뮤지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이 항목을 기준으로 연극에 지원하는 등 사례가 있음. 그러나 이 역시 심사기준으로서 공감대를 얻어 수용될 수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실질적 심의방식

- 심의방식을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심의항목이나 절차를 개선해야 함.
- 예를 들어, 3분정도의 데모영상 심사방식을 도입하여 ‘서류에 기반 하는 인터뷰 심사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 안무가의 창작 의도를 명확히 평가하는 심사로 개선함.

□ 대본과 데모 테이프심사

- 대본과 데모테이프를 전문가들이 철저한 브라인드를 거쳐 확정하여 심사를 공정성 있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함.
- 예를 들어,미국 뉴욕뮤지컬극장페스티벌(The New York Musical Theatre festival: NYMF)의 The Next Link Project는 전 세계에서 지원한 수많은 지원서와 함께 데모테이프(demo recording)와 대본을 대본심사위원들(NYMF

reading committee members)이 심사함. 심사과정은 두 번의 블라인드심사(blind screening)와 최종심사를 거쳐 이를 통과하게 되면 최고수준의 예술가와 프로듀서들로 구성된 심사위원(Grand Jury)에 올려 최종 심사를 받음.

□ 평가내실화

- 평가지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대표성 있게 구성하여 종합적 체계를 갖추도록 함. 명확히 함.
- 실질적인 요소를 평가하여 우열을 명확히 가리도록 해야 함.
- 사전 내정에 의한 형식적 절차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평가절차를 엄밀히 유지해야함.
- 예술단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절차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알기 쉬운 시스템을 만들어 편리하게 활용토록 개선해야함.

□ 심사위원에 대한 신뢰 제고

- 평가에 대한 신뢰는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므로 평가위원들이 선정한 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함부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심사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적용하여 선정 후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함.
- 심사위원에 대한 단체들의 기대수준에 차이가 있거나, 위원에 대한 선호 때문에 인식차이가 생길 수 있고, 심의위원 업종이 다양한데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도록 과정적 합리성을 아주 명확히 해야 함.
- 심사위원장은 사업 관련자들이나 예술인들이 만족할 수준에서 선정하기 위해 심사위원장의 선정절차 역할 등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을 상세히 설정함.
-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이 공유하고, 책임 있게 하도록 위원들이 제기하는 상이한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여 설득 있는 기준을 정하고 심사함.

8. 생태계발전 전략화

□ 고려할 점

- 창작산실 지원이 예술단체에 갖는 의미는 주로 미래성, 창작성, 협업성, 즐거움을 지향하는 것으로 의미화 되어 평가를 받음.
- 창작산실 지원은 장르적 특성, 예술단체의 활동성, 지속발전을 위한 방식 특정성을 살려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산해 낸 이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속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야 함.
- 창작산실의 당초 제도취지를 살려서 공연예술인큐베이팅 제도, 창작팩토리사업의 정신을 지속하되 이제는 경쟁적 차별화를 이뤄낼 전략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공연예술창작산실지원 사업의 특성화를 위해 생태계적 관점을 도입하여 좀 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업목적을 추가하며, 실질적인 심의방식을 도입하고, 위원회 주도의 지원 연계화 방안을 마련해야함.

□ 예술 생태계발전 기여목표의 명확화

- 문화행정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사업의 개발과 그 성과에 착안하여 바람직한 키워드 들을 정리하면서 사업의 의미로 연결시키는 사업기획이 중요함. 이는 관련 사업의 재정동원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략적인 특성화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임.
- 그동안 생태계 전반의 문제를 포함하여 정책기조를 잡기가 버거운 실정이었고, 공고 때 마다 사업목표가 조금씩 바뀌어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음.
- 지원기관과 수혜기관의 입장차이 때문에 결국 장기적인 공연예술 생태계의 발전을 고려하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됨.
-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사업으로 특성화하기 위해 예를 들어 지속발전 지향성, 생태계 기반 조성 지향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지원의미에 추가 반영한

다면 새로운 지원 전략적 가치를 키우는 사업으로 평가받도록 함.

□ 예술생태계 발전기여 목표 중점

- 지원신청 단체가 사업의 장기적 관점을 고려할 정도의 여유가 생기면서 목표설정을 위한 절차적 과정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거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목표와 핵심을 명확히 설정하며,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유지하게 됨.
- 예컨대, 지원을 기반으로 육성 및 조성에 관련된 정책수단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창작을 하는 등의 정책믹스가 가능하게 됨.
- 앞으로는 탈락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공연생태계 전반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생태계 발전방향을 감안하여 지원정책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경쟁을 넘어 생태계 전반의 축제로

- 지원받은 단체들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경쟁력 향상을 중심에 두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원이 단체 간 출혈경쟁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는데 대한 우려가 있음.
- 경쟁이 격화되게 부추기기보다는 이를 완화하여 축제분위기로 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전략임.

9. 사업목적에 부합한 세부전략

□ 장기적 연계

- 창작산실의 주요 목적가운데 하나인 창작의욕 고취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및 자생력제고를 위한 세부전략을 개발하여 일관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기적 연계방안을 통한 지속적인 재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또한 장기적 안목과 장기성과를 거두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심사위원들이 이 같은 목적, 창작산실 정책의 철학과 목표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춰야 매번 심사에서 일관성있게 적용될 수 있음.

□ 아카이빙구축

- 사업지원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창작산실과 같은 좋은 지원을 받아 일하는 예술가들 가운데 더 열심히 창작할 유인을 낮게 보고 투자나 노력에 드는 비용을 소홀하게 다룰 수 있음. 예술위원회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못지않게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을 중요 과제로 삼아야 함.
- 뿐만 아니라 정보비대칭 때문에 소비자가 작품의 질을 정확히 파악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소비자의 정보부족으로 간혹 창작자가 낮은 서비스를 하는 일이 없도록 예술위가 충분히 정보제공을 해야 함.
- 창작산실 장르가 늘어나고 지원목표나 방향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다보니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결과나 사업시행자들의 결과보고 등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해소하고 데이터에 기반 한 정책결정을 위해서 그동안 지원기준, 내역, 대상기관의 발전추이 등에 관련된 아카이빙 구축이 필요함.
- 무엇보다도 지원 작품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 다른 창작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총체적 아카이빙을 구축해야 함.

□ 작품에 대한 사후관리

- 창작산실 지원 수혜자들에게 작품 규모에 맞는 시장의 부재와 이에 따른 부담

감, 작품제작 이후 홍보 및 사후관리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리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경쟁력향상을 위해 지원할 대상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지원으로서 유통, 홍보, 사후관리, 해외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 주는 조치가 바람직함.

10. 위원회의 활성자 역할 강화

□ 활성자 역할 강화

- 위원회가 창작지원재원을 조성하고 배분하는 기본역할을 좀 더 적극화하여 생태계발전을 위한 활성자 역할(facilitator)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순히 지원을 매개하는 조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가져야 함.

□ 창작자에게 필요한 종합지원 역할

- 창작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서는 지원 사업 제안 단계부터 제안 작품들의 효과를 추정하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부터 지원사업의 사후 평가와 확산 및 진흥활동을 수행해야 함. 또한, 공연예술제작의 기능적 측면을 보강하여 지원받는 창작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완성된 작품 유통 지원으로 자생력을 키워줘야 함.
- 창작산실 사업은 생태계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관련 대상자들에게 작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이는 아카이빙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함.

□ 매칭에 관한 적극 역할

- 공공문화재단 및 기업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창작지원사업 규모를 키워가는 조율기능도 예술위가 적극 나서야 할 일임.

- 특히, 재단이나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간의 역할을 조정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원행정의 개선

- 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해야함. 영세단체들의 경우 지원금 수령 전에 작업시작에 대한 부담이 큼. 뿐만 아니라 연도 말에 사업집행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늦게 집행되어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적기 지급, 신속 절차를 갖춰야 함.
- 회계행정을 간소화하여 항목누락으로 본의 아니게 의심을 받거나, 사업 종료 후에 부실문제가 발견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함.
-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 관련 컨설팅을 상설화하거나, 지원받은 단체들이 관련 변호사나 회계사로부터 쉽게 도움을 받는 방안을 마련해 줌.

□ 위원회 주도의 연계발전 전략

- 지원받은 사업의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사회와 연계시키는 예술의 사회적 확산 역할을 위원회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정된 프로그램을 다른 공연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함. 즉, 다른 지원, 다른 제도와 연계해서 작품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예술위원회에서 마련해 줌으로서 지원효과의 사회적 확산을 유도하는 방안임.
- 작품에 대한 홍보방안 등 사후관리를 통해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우수작품과 단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마련함.
- 지원 작품을 기록하여 총체적인 아카이빙을 구축하여 다른 시점에서 다른 단체들이 활용하도록 함.

11. 단기적 개선 사항

□ 가족극 지원개선

- 2016년도 지원계획에 따르면 전통예술분야가 신설되었고, 연극분야에 일반 분야 외에 가족극 분야(어린이, 청소년, 가족을 주요 관객으로 하는 작품)가 신설되었음.
- 일반/가족극의 심의기준(시범공연, 제작지원)으로 ① 작품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30%, ② 작품의 예술성 50%, ③ 작품의 파급효과 20%를 정하고 있음.
- 그런데, 2017년도 공모부터는 가족극 분야의 경우, ②의 비중을 낮추고, ①과 ③(특히 연극 분야 관객 개발과 유인에의 기여 가능성)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창작뮤지컬(일반, 청소년)의 경우 ①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0%, ② 공연작품의 예술성 40%, ③ 공연단체(프로덕션)의 역량 30%로 되어 있음.

□ 계량지표 적용 확대

- 재공연 지원 심의기준의 경우, 연극, 무용, 오페라 분야는 비계량지표 100%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창작뮤지컬 분야는 비계량지표 85%(계획 충실성 · 타당성 25%, 작품 예술성 35%, 단체 역량 25%)와 계량지표 15%(기존공연 유·무료 관객수/점유율, 공연 수익, 고용창출 효과)로 구성함.
- 창작산실사업이 '예술성'과 '자생성' 추구를 사업 방향으로 하므로 연극, 무용, 오페라 등 순수예술 분야라고 해서 계량지표 도입을 굳이 회피할 필요는 없다고 봄.

□ 프로모션 책자 및 동영상 제작지원 확대

- 2015년 오페라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와는 달리 지원 내용에 '프로모션 책자 및 동영상 제작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연극·무용·전통·창작뮤지컬 분야의 경우에도 안내서에서 제시된 대관 지원, 통합홍보 지원, 전문가 멘토링 지원과 함께 '프로모션 책자 및 동영상 제작 지원'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모시점의 차별적 적용

- 회계연도 개념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공모시점은 예술위 원회의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으나, 응모 단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함.
- 작품의 수준과 질을 높이는 것은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므로, 작품구상과 제작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공모시점을 시행 전년도로 앞당겨주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창작산실 제도의 근본적 공론화

- 예술위원회가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설정하고, 이 사업의 개선 및 중장기 발전, 이론적·비평적 측면에서 이 시대를 대표할 창작 방향의 제시 등을 위해서 지원정책 방향의 공론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창작산실육성지원 사업에 기획비용을 편성하여 세미나를 개최해야 함.
- 주력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매년 심사 과정과 결과, 성과 평가 내용, 세미나 개최 결과, 사업 개선을 위한 환류 등을 정리한 '연차보고서' 발간이 필요함. 이는 아카이빙과 연계해서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TF는 사업 계획의 수립, 심의 기준·방식 등 실행 방식의 개선, 분야별 심의위원 및 성과평가 참여, 관련 세미나 개최,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담당함.

□ 컨설팅 연결

-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정을 지원하고,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연결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정지원 외에도 창작에 필요한 자원이나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함.

- 지원으로 창작에 필요한 실질자원 구매비용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자원을 탐색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멘토링과 컨설팅 매칭은 이러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제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음.

□ 사업성과에 대한 다각적 평가방식

- 창작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원프로그램 수혜자들의 만족감을 창작산실지원사업의 성과로 포함해야 함.
- 수혜자를 대상의 평가 외에도 시장의 새로운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예술계, 심사 탈락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필요함.
-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에 대해서 지원 수혜자 자체평가, 지원 전에 예상되는 효과와 기대효과에 대한 측정지표 사전 마련, 예술생태계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 등은 창작산실 지원성과의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고려할 만함.

□ 공연장 지원을 위한 협의

- 사업에 선정된 뒤 실제 공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극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이 문제는 우수작품에 대한 사후관리, 연계지원 관점에서 매우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예술위원회는 이를 한국문예회관연합회와 협의하여, 문예회관연합회에서 회원단체에 협조 요청토록 하는 방안을 알선하여 대상단체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함

부록

창작산실육성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ID				

안녕하십니까? 0000입니다. 본 조사는 창작산실 육성지원 사업에 따른 분야별 효과분석을 위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동 설문조사는 통계법 33조(비밀보호)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조사결과 또한 통계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면 개별기업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리서치 담당자 Tel 02-3438-1711 / Fax 02-6253-1544

2015년 11월

1. 일반 현황

단체 명	
창단(설립) 연도	
위치 (시,군,구)	
단체규모 (전임자수*)	전체 _____명 (전임자수 → 상근자 : _____명 / 비상근자 : _____명으로 구분하여 기재)
법적위상	① 재단법인 ② 사단법인 ③ 특수법인 ④ 상법인 ⑤ 비법인 사설단체(민간/임의) ⑥ 사회적기업/협동조합 ⑦ 기타( )

*** 전임자 수는 4대 보험가입자를 말하며 상근 및 비상근자로 구분하여 기재해주세요.**

2.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 현황

문1) 그간(2008년~201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지원단계별 사업지원을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아래의 현황표에 기입해 주십시오.

※ 동일 작품으로 시범공연지원, 우수작품 제작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대본공모지원을 받았으면 모두 체크를 해 주십시오.
다수 작품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별개로 추가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수혜작품명	장르*	지원단계사업명				
		1.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2. 우수작품 제작지원	3. 시범공연 지원	4. 대본공모 지원	기타 (음악)
예시) 홍길동전	무용(발레)	○(2015) 또는 2015년에 지원 받음	○(2015)	○(2014)	○(2013)	

* 장르 예시 : ① 뮤지컬 ② 연극 ③ 무용 ④ 음악 ⑤ 오페라

문2) 문1에서 응답한 바와 같이,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과 이의 사용이 각 지원단계에서 작품제작 총 비용 중 어느 정도로 충당이 되었는지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지원단계사업명				
	1. 우수작품 재 공 연 지원	2. 우수작품제작 지원	3. 시범공연 지원	4. 대본공모 지원	기타(음악)
지원 금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충당 비중	%	%	%	%	%
	3번으로 이동		4번으로 이동		5번으로 이동

3. 지원단계별 효과

문3) 귀 공연단체가 위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효과 및 실익이 컸는지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공연장 확보 및 공연기회 증대에 가장 효과가 있었다.
② 작품의 홍보효과가 가장 컸다.
③ 차기작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④ 기타 _____

문3-1) 우수작품 및 우수작품재공연지원 사업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이 있다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문3-2) (사후 실태조사). 귀 공연단체가 우수작품제작지원 및 우수작품재공연 이후 해당 공연으로 국내외 공연을 실시한 이력을 기입해 주십시오.(동일작품으로 해외공연과 전국공연을 했으면 둘 다 기입)

① 해외공연 실시 ☞ **응답 후 문3-4로**				
공 연 명 _____	지역 또는 국 가 _____	기 간	------ 월 ------ 일 ------ 월 ------ 일	총 _____회 초청여부(총 공연 ____회 중 초청 ____회)

예시: 2015.3.1.~3.5(5일간)

② 전국공연 실시 ☞ **응답 후 문3-4로**			
공 연 명 _____	장 소 _____	기 간 _____ _____일	총 ---------- 회

예시: 2015.3.1.~3.5(5일간)

③ 없다 ☞ **응답 후 문3-3로**

문3-3) 현재 기준으로 해외공연이나 전국공연이 없지만, 해외공연 및 전국공연이 계획되어 있으면 기입해 주십시오.

- 해외공연 또는 전국공연 계획 _____,
  국가 또는 장소 _____, 일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 **응답후 문3-4로**

문3-4) (문3-2의 ①과 ②, 문3-3 응답자만) 우수작품제작지원 및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이후 실제 공연을 하거나 공연 계획이 잡혔다면, 어느 단계 및 시점에 이루어 졌는지 기입해 주십시오. ☞ **응답후 문6으로**

① 우수작품 제작지원 기간 중 ②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기간 중
③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완료 후

문4) 귀 공연단체가 위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효과 및 실익이 컸는지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후 문6으로**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시범공연 및 대본공모를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② 작품을 완성하는 데 효과가 컸다.
③ 시범공연이나 대본공모 자체의 효과보다는 이후의 우수공연제작이나 재공연지원을 받기 위한 기회를 얻는 효과가 컸다.
④ 기타 _____

문5) (음악장르에 해당) 귀 공연단체가 위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효과 및 실익이 컸는지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응답후 문5-1로**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컸다.

② 작품의 물리적 완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컸다.
③ 작품 및 공연단체의 홍보효과가 컸다.
④ 기타 _____

문5-1) (음악장르에 해당)귀 공연단체는 전속작곡가와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효과를 보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후 문6으로

_____

4.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 사업 지원계기 및 동기

문6) 귀 공연단체가 실제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창작산실 육성사업의 취지가 당 공연단체의 공연 컨셉과 부합하기 때문
② 공공지원을 받아야 공연 창작과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③ 공공지원을 받아야 외부로부터 투자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④ 외부의 소개로 창작산실 육성사업에 참여
⑤ 기타 _____

문6-1) 귀 공연단체 입장에서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총 재원이 10점이라면 단계별 지원, 즉 시범공연지원, 우수작품 제작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지원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로 배분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 10점을 배분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예시. 4:3:3

시범공연지원	우수작품제작 지원	우수작품재공 연지원	합계
_____ 점	_____ 점	_____ 점	10점

5.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 사업 지원효과

문7. 귀 공연단체가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으로 우수작품 제작 지원 및 우수작품 재공연으로 지원받은 작품은 지원받지 않은 작품에 비해 전체적으로 성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8. 귀 공연단체는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을 받기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할 때, 공연단체 운영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몇 %정도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 비교의 기준은 관람객의 수와 같은 계량적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작품의 질적 향상과 같은 정성적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를 다 포함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① 받기 전보다 나빠졌음 ☞ **응답후 문8-2로**
② 변동 없음 ☞ **응답후 문8-2로**
③ 받은 후 0-10% ☞ **응답후 문8-2로**
④ 11-30% ☞ **응답후 문8-1로**
⑤ 31-50% ☞ **응답후 문8-1로**
⑥ 51% 이상 ☞ **응답후 문8-1로**

문8-1. [문8의 ④,⑤,⑥ 응답자만]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성과가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문8-2. [문8의 ①, ②, ③ 응답자만]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성과가 좋지 않았는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문9) 귀 공연단체 입장에서,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대작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
② 실험정신, 작품성, 예술성을 담은 창작 및 제작 기회 마련
③ 관객 개발(소통) 및 시장(지역) 확대
④ 공연단체의 브랜드 제고
⑤ 공연단체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 제고
⑥기타 _____

문10. 귀 공연단체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응답후 문10-2로**
② 거의 그렇지 않다 ☞ **응답후 문10-2로**
③ 보통이다 ☞ **응답후 문10-2로**
④ 약간 그렇다 ☞ **응답후 문10-1로**
⑤ 매우 그렇다 ☞ **응답후 문10-1로**

문10-1. [문10의 ④, ⑤ 응답자만]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우셨습니까?

_____

문10-2. [문10의 ①, ②, ③ 응답자만]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습니까?

_____

5.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체계에 대한 평가

문11. 2013-2015년 현재까지 최근 3년동안, 귀 공연단체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외 공공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지원사업 명 : _____)
② 없다

문12. 다른 공연예술지원사업과 비교하여 공연예술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의 장 단점을 말해 주십시오

① 장점

_____

② 단점

_____

문13.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에서 향후 개선되거나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국내문헌

1. 김문환, 전예완 (1998). 미국의 공연예술 지원정책. (문화정책논총, 제10집, 106-123)
2. 김승미(2012). 공연예술분야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사례 연구 -두산아트센터와 창작팩토리를 중심으로- (연극교육연구, 제 20집, 53-87)
3. 김수연(2011). 공연예술분야 인큐베이팅활성화 방안(서울: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김은미·권경은(2012). 공연예술계 온라인 문화매개자의 등장과 변화(언론정보연구, 제49권 2호, 74-114)
5. 선우영·장지호(2010).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지원에 관한 고찰(지방정부연구, 제14권 3호)
6. 문화체육관광부(2015).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7. 문화체육관광부(2013). 정책자료집(2008.2-2013.2)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8. 문화체육관광부(2011). 창작팩토리 대본공모 선정작 대본집 : 2008~2010
9. 양종남(2011).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제도 연구(경기: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양효석(2010).민간공연예술단체 공공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예술경영연구, 제17집, 31-58)
11. 이은미·정영기(2015). 공연예술단체 공공지원의 자부담 제도 개선방안(예술경영연구, 제33집, 25-48)
12. 용호성(2010). 민간공연예술단체의 경영환경 변화와 재원조성(예술경영연구, 제17집, 5-30)
13. 용호성(1998). 미국의 공연예술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식(문화정책논총, 제

10집, 124-141)
14. 이선영(2008). 퀘벡의 공연예술 정책(드라마연구, 제28집, 119-142)
15. 이병량(2011). 문화는 도시를 살리는가?(한국지방행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6. 이은미(2015). 공연예술단체 공공지원의 자부담 제도 개선방안(예술경영연구, 제33집)
17. 장광열(2000). 실패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구조조정(공연과 리뷰, 제27집, 31-38)
18. 전국문예회관연합회(2008). 2008 창작팩토리 공모
19. 정영미 (2015). 미국 뮤지컬 산업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6호, 115-124)
20. 정종은(2014). 예술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비교 분석: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사례 (문화정책, 2014:01, 5-37)
21. 정종은 (2013).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부상 (문화정책논총, 제27권1호, 122-145)
22. 제랄드 리드스톤·최영주(2002). 영국의 문화 정책 체제(공연과 이론을 위한모임, 공연과이론, 제7집, 47-52)
23. 최윤우(2013). 창작팩토리의 단계적 지원 시스템의 의미와 방향 (연극평론, 제70집, 93-97)
24. 최보연(2015). 창의교육에서 문화교육으로 : 영국 신노동당 및 보수·자민당 연합정부 간 문화예술교육 정책변동에 관한 비판적 고찰 (문화경제연구, 제18권1호, 53-96)
25. 최보연(2013). 영국 창조인력양성 정책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제28집, 167-201)
26.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8). 공연예술발전을 위한 공공지원정책 방안연구
27.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0). 공연예술단체의상주단체화방안을위한해외사례연구
2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문화예술정책백서
2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문화예술정책백서

30.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9). 문화재원(문화예술총서 11)
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사업 성과보고서
32.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0).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접근방안 연구: 공연예술단체의 시장 자생역량 제고를 중심으로
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안내
34. 황순원(2010). 창작 뮤지컬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 :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창작팩토리'를 중심으로 (서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외문헌

1. Arts Council England(2010)
2. 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rts, London: ACE. _____(2011)
3. The Arts Council Plan 2011-15, London: ACE. _____(2012)
4. Annual Review 2010/2011, London: ACE.
5. ailey, J., & Richardson, L. (2010). Meaningful measurement: a literature review and Australian and British case studies of arts organizations conducting 'artistic self-assessment'. *Cultural Trends*, 19(4), 291-306.
6. Boerner, S. (2004). Artisitc Quaility in an Opera Company: Toward the Development of a Concept. *Nonprofit Management & Leadership,* 14(4), 425-436.
7. Boerner, S., & Jobst, J. (2008). The Perception of Artistic Quality in Opera - Result from a Filed Study. *Journal Of New Music Research,* 37(3), 233-245.
8. Boerner, S., & Renz, S. (2008). Performance Measurement in Opera Companies: Comparing the Subjective Quality Judgements of Experts and Non-experts.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Management,* 10(3), 21-37.
9. Boorsma, M., & Chiaravalloti, F. (2010). Arts Marketing Performance: An Artistic-Mission-Led Approach to Evaluation.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 Society, 40(4), 297-317.

10. Canada Council for the Arts(2010), Strengthening Connections: Strategic Plan 2011-16, Ottawa: CCA
11. Caust, J. (2003). Putting the "art" back into arts policy making: how arts policy has been "captured" by the economists and the marke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9(1), 51-63.
12. Chiaravalloti, F., & Piber, M. (2011). Ethical Implications of Methodological Settings in Arts Management Research: The Case of Performance Evaluation.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 Society*, 41(4), 240-266.
13. Catalano, Angela., (2005). Community Space: How Land And Weather Shape Communities, Powerkids Pr.
14. Chartrand H. and McCaughey C. (1989). The Arm's Length Principle and the Art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Past, Present, and Future. In M. C. Cummings, Jr. and J.M.D. Schuster (eds.), Who's to Pay for the Arts?:The International Search for Models of Arts Support. (pp. 43-80).
15. David Berreby, (2008). *Us and Them: The science of identity,* Chicago: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6. Essing, L. (2014) Arts Incubators: A Typology,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44:3, 169-180
17. Harold H. Kelley, (2003). *An Atlas of interpersonal situ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 John E. Henning, (2004). *The Art of Discussion-Based Teaching*, New york: Continuum Books.
19. Lowem S. (2000). Creating community: art for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29(3), 357-386.
20. Matarasso, F. (1997).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Bournes Green, Stroud: Comedia.
21. Miles, S. (2003). The art of learning: empowerment through performing arts.

Young People and Contradictions of Inclusion: Towards Integrated Transition Policies in Europe, 163-180.
22. Reason, P., & Bradbury, H. (Eds.) (2001). Handbook of action research: Participative inquiry and practice. London; Thousand Oaks; New Delhi: Sage.
23. Respress, T., & Lutfi, G. (2006). Whole brain learning: The fine arts with students at risk. Reclaiming children and youth, 15(1), 24-31.
24.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5) NEA FY2014 Annual Report. Washington. D.C
25. Wyszomirski, M. J. (2013). Shaping a triple-bottom line for nonprofit arts organizations: Micro-, macro-, and meta-policy influences. Cultural Trends, 22(3-4), 156-166.

기사검색

'제1회 창작팩토리 시범공연 시민평가단 공모,'StageNews (2012.01.18.).

홈페이지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html/main/index.asp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www.kocaca.or.kr/Pages/Main.asp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or.kr

CJ문화재단 www.cjculturefoundation.org/index.html

영국예술위원회 www.artscouncil.org.uk

영국문화매체체육부 www.gov.uk/government/policies

예술가 커뮤니티 연합 www.artistcommunities.org

예술경영웹진 http://webzine.gokams.or.kr/

캐나다 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www.canadacouncil.ca

ART WORKS Guidelines: Grant Program
ttps://www.arts.gov/grants-organizations/art-works/grant-program-description

Creation fund http://npnweb.org/whatwedo/programs/creation-fund/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www.arts.gov

Guidestar http://www.guidestar.org/

The Oxford Samuel Beckett Theatre Trust Award http://www.osbttrust.com/

The Next Link Project http://www.nymf.org/programs/next-link-project/